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1-연구자료
연구자료 2008-4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임 언 박민정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정연순
서송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리말】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이로 인해 직업의 의미, 작업 방식의 변화, 채용 관행도 변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근래에 더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파편적인 활동들로 구성되며, 전체 교육활동 속에서 매우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알게 해주는 데서부터 진로교육이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이 결합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연구를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3개년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다. 첫째인 2008년도에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그 목표가 교과와 통합되어 달성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과 통합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초 연구적 성격을 갖는 2008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교과통합진로교육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의 산출물로서 본 보고서 외에, 3개의 자료집(‘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의 진로교육’, ‘교과통합 진로교육 모델 시안’)이 추가로 발간되었다. 이 자료집은 그 세 가지 자료집중 하나로서 교사와 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생생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로부터 현실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집 제작의 책임자는 임 언이며,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박민정, 정연순, 서송이 선생님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의 제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 준

위촉연구원 이해경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진로교육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8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 제 1 장 학생들과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본 진로교육 현황 · 1
 - 박민정,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정연순, 서송이 · 1

- 제 2 장 초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 55
 - 제 1 절 초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 최동선 · 55
 - 제 2 절 초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 서송이 · 85

- 제 3 장 중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 109
 - 제 1 절 중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내러티브 탐구 - 정연순 · 109
 - 제 2 절 중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 정연순 · 132

- 제 4 장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 157
 - 제 1 절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 임언 · 157
 - 제 2 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 정윤경 · 187

- 제 5 장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 201
 - 제 1 절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 김나라 · 201
 - 제 2 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 김나라 · 235

제 1 장

학생들과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본 진로교육 현황¹⁾

박민정,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정연순, 서송이

그 동안 진로교육의 현황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진로발달 상황, 제도적 현황 등에 관한 양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이지연·최동선, 2006; 임언·장홍근·윤형한, 2005). 진로교육이 내실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다.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진로정보의 생성과 보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제반 요인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들이 실망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운영되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

1) 이 장은 뒤에 이어서 제시되는 각 대상별 내러티브를 박민정 박사(서울대 BK 사업단 사무국장)가 종합한 것이다.

요하다. 즉, 학교 진로교육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및 교사들의 진로교육 체험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장의 1절에서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2절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 및 도움을 얻고 있는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진로교육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 전문성이므로,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그들이 부딪히는 딜레마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진로교육 체험을 살펴 볼 것이다.

1. 연구방법론

가.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진로교육을 체험한 학생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현황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내러티브 탐구가 이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러티브를 ‘지어낸 이야기’ 또는 ‘허황된 이야기’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이 존재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왔다. MacIntyre(1985)는 내러티브는 시인이나 극작가, 소설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기본원리라고 말한다. Coles(1989)도 인

간은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 문화, 사고 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좋은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윤리적 딜레마 등에 대해 배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표현되지 않았던 경험의 측면들을 이해하게 된다. 즉 내러티브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과 타자를 관련짓고, 인간과 자연을 관조하고,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내러티브는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자연스러우면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가 인간이 자신의 경험세계를 조직화하고 이해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사고양식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차원적 층으로 에워싸인 인간의 경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첫째,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개별적 사건들을 형상적 순서(configured sequence)에 따라 서로 연관 짓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조직화한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선정하고 현재의 관심과 동기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의 관심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과 그러한 관련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구성에 있다. 이 점에서 Polkinghorne(1988)은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에 비추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들을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연대기와는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Clandinin과 Connelly(1990)도 내러티브 구성은 일련의 경험적 사건들을 단

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하면서 해석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요컨대, 우리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을 연결하여 유의미하게 연속되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박민정, 2006).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무질서한 경험 세계의 파편적인 의미들을 엮어 이해 가능한 의미 구조를 생산하는 해석학적 과정으로 경험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Polkinghorne, 1988).

둘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경험의 지속성과 계열성을 강조한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파편적인 경험의 순간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연계 속에서 경험을 반성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도록 재구성하며, 불연속적 경험들에 잠정적인 연속성을 부여한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변화과정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시간적으로 전향-후향 운동을 반복하면서 과거 경험의 의미를 현재와 미래에 비추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인간의 경험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에 도달한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삶의 사건을 넘어 개인의 삶의 전체 이야기, 즉 삶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자아를 이해한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면서 개인의 역사성 속에서 자아를 정교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보다 발전된 자아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 요컨대, 내러티브 구성과정은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이 해석하는 자아의 모습과 자아 속에 숨겨진 타자성을 고려하며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자아를 바라보도록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자아의 관계적 개념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

이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공조 관계를 강조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며,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야기의 의미구성에 동참한다.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각자의 의식세계를 제한하고 있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경계를 넘어서 이야기적 삶을 공유하고 의미구성 작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연구과정 속에서 연구자의 존재를 배제했던 실증주의 연구방법론과 달리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의 삶이 연구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성장한다고 본다.

나. 연구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자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세 달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세 명, 중학생 두 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세 명,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을 면담하였다.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두 명, 중학교 교사 세 명,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두 명,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 세 명을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학생은 성별, 진로에 대한 관심, 가정배경 및 성적 등을 고려하였고, 교사는 진로교육을 담당경험과 접근가능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학생 참여자의 인적 배경

성명	성별	학년	가정배경 및 성적	진로에 대한 관심
재능이	여	초등학교 5학년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성적 은 중간임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음
독립이	남	초등학교 5학년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성적이 상위권임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기보 다 뚜렷한 자신의 목표의식에 따라 직업에 대해 한정된 관점을 갖고 있음
현실이	여	초등학교 5학년	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며 성적은 상위권임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 진로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명량이	남	중학교 2학년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며 성 적은 중하위권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보통임
또록이	여	중학교 2학년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며 성 적은 중상위권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음
섬김이	남	일반계고 2학년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성적 은 중간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음
평범이	여	일반계고 3학년	경제적 수준은 중간정도며 성적은 중간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음
호감이	남	인문계고 2학년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성 적은 상위권임	진로에 대한 관심은 보통임
성실이	여	상업계열 전문계고 1학년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성적 은 보통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음
열정이	여	조리분야 특성화 전문계고 3학년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고 성 적은 상위권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음

<표 2> 교사 참여자의 인적 배경

성명	성별	배경
초등교사 A	여	초등학교 진로상담 담당교사며 초등학교 진로교육 관련 자료 개발 경험이 풍부함
초등교사 B	여	초등학교 진로상담 담당교사며 초등학교 진로교육 관련 자료 개발 경험이 있음
중학교 교사 A	남	중학교 진로상담부장교사임
중학교 교사 B	여	중학교 진로상담부장교사임
중학교 교사 C	여	중학교 진로상담부장교사임
인문계고 교사 A	여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 『진로와 직업』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진로교육교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인문계고 교사 B	남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진로상담부장으로 있음
전문계고 교사 A	남	공립농업계열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상담 부장교사며 진로교육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음
전문계고 교사 B	남	농·공업계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업부장을 맡고 있으며, 2007년도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담당자였음
전문계고 교사 C	남	조리분야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연구부장을 맡고 있음.

면담은 개인당 2-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회 면담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자료의 전 내용은 전사하여 현장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연구 참여자가 녹음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담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질문과 연구 참여자의 답을 재구성하여 기록물로 남겼다. 면담은 질문영역에 따라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설정된 질문영역은 면담의 방향을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했고, 면담 중에 생성되는 주제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면담에서 사용된 가이드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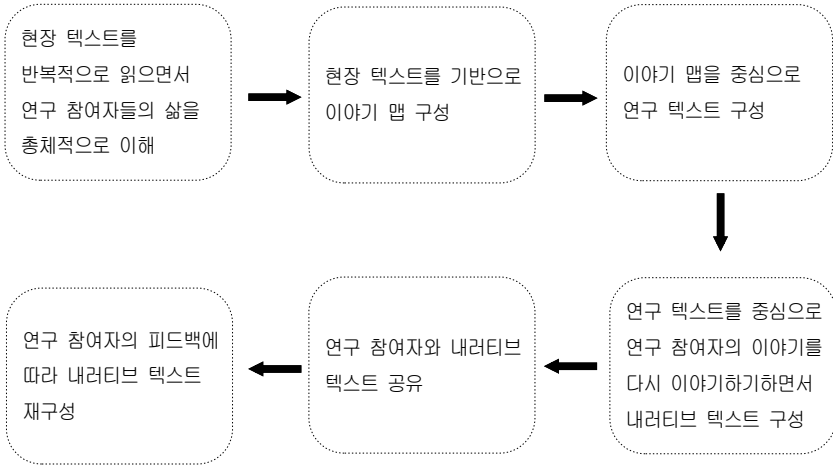
<표 3> 연구에 사용된 면담 가이드

학생에게 사용된 면담 가이드	교사에게 사용된 면담 가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탐색 계기 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3. 학교 밖에서의 진로교육 4. 가정에서의 진로교육 5. 진로와 관련된 고민 및 해결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적과 기능 2.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3.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5. 진로교육 운영 체계 6. 진로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인식 및 활용 7.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다. 첫째,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둘째, 현장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맵(story-map)을 구성했다. 셋째, 이야기 맵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차와 논리적 연관성 및 통합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묶으면서 이야기를 재조직하여 연구 텍스트²⁾를 구성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구성했다. 다섯째, 연구자가 구성한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현장 텍스트는 연구자와의 면담을 전사한 자료를 의미하며, 연구 텍스트는 반복되는 내러티브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 내러티브 구성 과정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학생들과 교사들의 내러티브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들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체험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그들의 내러티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로교육 현황의 특징으로 보이는 영역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된 영역들의 유사점과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것을 묶고 정리하여 현재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주제를 발견하였다. 넷째, 그러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 현황과 교사와 학생들의 진로교육 체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작과 종결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직선형 작업이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변증법적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는 나선형적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텍스트와 분석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member check).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현황과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함께 탐색할 수 있었다.

2.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내러티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교 3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전문계 고등학생 2명을 면담하였다. 그들의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능이는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5학년 여학생이다.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고, 자신이 재능이 많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독립이는 재능이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남학생이다. 자신의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똑똑한 아이로 평평이 나 있다. 독립이는 곤충학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꿈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곤충에 대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을 정도로 곤충에 대한 관심이 큰 아이였다. 현실이는 강북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했다. 현실이의 경우, 앞의 두 학생과 달리 학교나 가정에서 진로에 관한 교육이나 진로관련 정보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학생이었다.

중학생 명랑이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성적은 반에서 중하위권으로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편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며 장래희망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또록이는 3학년 여학생으로, 공부를 잘 하는 편이고 장래희망은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생 섬김이는 강북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이다. 이 학생은 커리어넷 이용수기 공모에 당선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로탐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평범이는 강북에 위치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이다. 이 학생은 부모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진로탐색을 하고 있었다. 호감이는 강남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인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부모는 이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본인도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가. 진로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은 진로를 생각할 때 주로 흥미, 능력, 경제력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재능이의 경우,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학생은 취학 전에 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보았다. 그래서인지 재능이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립이는 흥미를 중시한다. 독립이에게도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장이며,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일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편, 현실이는 경제력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믿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은행대출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현실이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현실이가 돈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들어보자.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잘 살려는 거잖아요.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검사가 되고 싶지만, 나중에 검사가 돈을 잘 못 벌면 다른 직업으로 바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그냥 취미로 하면 되죠. 일을 하는 목적을 돈을 벌려는 거고,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할 뿐이잖아요. 직업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는 일만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생 현실이)

중학생 명랑이는 진로선택에서 “힘들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된” 직업을 선호한다. 초등학교 때는 제법 공부를 잘했었지만 중학교에 와서 급격히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 명랑이는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한다. 명랑이는 인터뷰 당시 가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가수를 양성하는 기획사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노래방에 가거나, 혼자 집에 있으면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노래를 부르는 정도다. 본격적인 준비는 일단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가수 후보자 채용 오디션에 응시해서 합격한 후에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또록이는 진로선택의 주요 준거는 ‘흥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러다보면 보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므로 흥미는 진로선택의 일차적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진로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미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일을 하면서 재밌어야 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으면 직업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보수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그 분야에 있으면 보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 우선 흥미가 있어야 하니까 흥미가 진로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생 또록이)

또록이는 자신이 어떤 재능과 적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지난 3월에 방송 프로듀서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업적성 검사를 스스로 해보기까지 했다. 방송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언어능력은 비교적 자신이 있는 편이지만 창의성은 별로 없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섬김이는 장래 희망 직업이 변호사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소

송)이 닥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커서 변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 경제적 비용 때문에 변호받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희망 이유를 꼽았다.

진로선택에 있어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 평범이는 교사(교육직)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교사가 되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정했는데 생각해보니 본인 적성에도 맞는다고 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도 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 매여 있어 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점을 걱정했다.

인문계 고등학생 호감이는 부모님의 의망에 따라 의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의사 집안의 영향에 따른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친구들이 컴퓨터를 통해 영화를 보든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을 보고 멋있고 부럽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좀 더 개선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안시스템분야에서 해커들을 막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나. 학교 내 진로교육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능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통해 파악되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학교에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및 방과후 활동을 활용해 진로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치

고 있음을 잘 드러냈다.

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은 장래희망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쓰고 나서 붙여놓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거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반의 특별한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같이 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무슨 테스트를 해서 직업이 나왔는데요, 그냥 엄마 보여 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따로 선생님이 한 사람씩 말해주면 좋겠어요. 엄마를 같이 상담해주는 것도 좋을 텐데요. (초등학생 재능이)

재량활동은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면요, 맨 날 한자만 쓰고 하니까 완전 지루해요. 논술이 더 나아요. 사실 논술도 재미없지만요. 재량활동은 할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 맘대로 바뀌서 해요. 재량활동 시간에 장래희망에 대해 적어 낸 적이 있는데, 그냥 교실 뒤에다 붙여 놓고, 그것에 대해 선생님하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나 봐요. 다른 반 애들도 다 적어 냈거든요. (초등학생 독립이)

중학생 명량이기도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명량은 도덕시간에 진로관련 내용을 배웠는데 진로교육의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너무 딱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감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명량의 얘기를 들어보자.

도덕시간에 진로의 뜻, 정의 같은 것만 가르쳐 주고,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지 같은 거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서 사실 제가 진로탐색을 하는데 도움이 된 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정의 같아서 관심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EBS 교육방송 자료인가 그거 몇 개 보여주고요. 그리고 박지성에 대한 것, 박지성이 평발인데도 열심히 노

력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됐다는 것 보여주고, 그리고 정의 같은 건 딱딱하게 읽고, 그냥 그런 것 보여주고, 본문에 나온 것 읽고... 그런 게 다예요. (중학생 명량이)

또한 학교에서 자기이해 관련 검사를 여러 번 실시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결과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명량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량은 그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진로교육 관련 활동들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 전 여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에 대해 취재하는 인터뷰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때 자신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진로교육활동은 명량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명량과 마찬가지로 또록이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또록이는 교사들은 수업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내밀한 경험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지만 오랜 시간 집중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다 보니 지루해서 건성으로 작성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성검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록이는 적성검사 문항에 성실하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자신의 성향이나 생각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가정 시간에 이루어졌던 포트폴리오 작성은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평가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인문계고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는 주요 통로는 「진로와 직업」 교과, 학교 선배의 멘토링,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실을 통해서다. 평범이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서 진로검사와 성격 테스트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진로에 대한 목표나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특히 성격테스트의 경우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무척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평범이는 적성검사 결과 후 그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을 아쉬워했다. 시험 기간에는 「진로와 직업」 교과시간이 자습시간으로 악용되기도 하지만 입시에 얽매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평범이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서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검사도 활용하고 동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다.

호감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의 교사가 직접 집필한 WHO AM I라는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로관련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 수업이 즐겁긴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수업에 방해가 많았던 점이 아쉬웠다고 한다.

섬김이는 학교 상담실 운영 및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섬김이 학교의 경우, 진로상담실 선생님(전담)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학 시간에 학급을 돌며 진로지도를 하지만, 교사에 비해 학생이 많다보니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도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섬김이와 마찬가지로 평범이와 호감이도 학교에 상담실은 있지만 가 본적이 없다고 한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상담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이 세 인문계고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적이고 진로선택 및 탐색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섬김이네 반에서 진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총 30명의 학생 중 1명 정도만 장래 진로 희망이 뚜렷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계고에 재학 중인 성실이는 전공과 관련된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경험담이나 현장 상황 등을 듣는 방식의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동기화도 되었다고 한다.

저희 학교에는 외부에서 강사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해주기도 하지만, 진로와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요. 근데 강당이 전교생이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아서 그냥 저희는 텔레비전으로만 시청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통해 본 거라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 며칠 전에 DOLL Korea 라는 곳에서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그 분이 '바나나는 밥이다'라는 문구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마케팅 관련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마케팅도 소개해주고, 잘된 마케팅 사례나 실패한 마케팅 계속 설명해주셨어요. (전문계 고등학교 성실이)

한편, 성실이는 학교에서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성실이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의지의 부족 속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 분야에 대해 듣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실이는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직업사전을 찾아보기는 하지만 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학내에 존재하는 상담실도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 및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담실이 특별히 들어가기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약간 좀 그런 게... 누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 잘 들려요. 무슨 상담을 받는 게 공개상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계 고등학생 성실이)

요리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열정이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열정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조리 관련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다. 열정이는 수준 높은 실습 교육과 수많은 기능대회에 참가하면서 조리와 관련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학교는 일단 시설도 좋고, 실습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카빙도 배우고, 테커레이션도 배우고... 우리 학교에는 또 양식과정과 고급양식과정이 따로 있는데 1학기도 채 끝나기 전에 그런 과정이 다 완료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학교는 학원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정말 요리를 좋아해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온 경우에는 생각이 많이 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3학년 때 외식창업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거기서 파워포인트로 자기 가게를 가상적으로 설계를 해봐요. 애들이 한 거 보면 정말 애는 뭔가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포크에 자기만의 마크를 넣기도 하고, 디저트에 자기만의 토핑을 없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오픈식 키친을 열어서 칵테일 쇼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애들을 보면 나중에 뭔가 되겠다는 게 보여요. (전문계 고등학생 열정이)

한편, 열정이는 정규교사들의 전공지식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에게서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귀중한 조언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에 조리와 관련하여 사범대를 졸업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교사들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인들이 보다 손쉽

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시고,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세요. 오히려 조리에 관해서 거의 모르는 선생님들이 몇 년 공부하고 와서 조리 가르치는 것이 정말 더 싫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식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 없어요. 정말로 존경하고 있어요. (전문계 고등학생 열정이)

다. 학교 밖 진로교육

초등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진로체험을 하게 된다. 재능이는 사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바이올린이나 스케이트 학원을 통해 자신이 그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는 이 학생의 진로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다. 독립이의 내러티브를 통해서도 인터넷이 초등학생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된 건 TV를 많이 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도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외부 정보는 주로 컴퓨터를 봐요. 단어 찾으려고 사전 보고요, 숙제하려고 네이버, 꿀맛닷컴, 학교 사이트 주로 보고요. 정보를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서 100% 완벽하다고 믿진 않지만 그냥 봐요. (초등학생 재능이)

책보는 거 외에는 인터넷을 많이 봐요. 네이버를 주로 보고 가끔씩은 구글 같은 데서도 보고요. 학교에서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또 모르던 게 많잖아요. 단점은요, 전문가가 쓴 게 아니라서 자세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 걸 봐서, 똑같은 게 많으면 그건 정확한 거잖아요. (초등학생 독립이)

중학생들이 진로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는 친구, 주변 어른, 인터넷 등이다. 명랑이는 가끔 친구들과 장래희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은 무엇이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교사, 기자, 엔지니어, 스타일리스트, 호텔리어 등 다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매듭지어진다고 한다. 어른들과의 대화 또한 진로계획이나 진로를 위한 준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한 마디로 일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명랑이의 진로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가수가 되는 길에 관한 정보나 관련 인터뷰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방송프로듀서를 꿈꾸는 또록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업적성 검사를 통해 방송 프로듀서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검사해보았다. 또록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학교 교사보다는 소규모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원 강사와 진로문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고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는다고 한다.

전문계고에 다니는 성실이는 커리어넷(CareerNet)을 통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과감하게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실이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내준 숙제로 인해 커리어넷(CareerNet)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정보들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를 보다 집중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성실이도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리어 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등학교 정보를 보고 나서 고교 선택이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지역별로 존재하는 전문계 고교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방송관련 진로를 개척하는 데 적합한 전문계 학교가 근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성실이는 특별히 공부에 흥미나 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기 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의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데 가족과 중학교 담임교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실이는 집 근처의 전문계 고교의 문화산업마케팅 학과에 진학하였다.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열정이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족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부모님과 오빠 모두 조리업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리와 관련한 흥미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열정이는 진로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 진로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제가 4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셨대요. 아버지는 그때 32살이었고요. 그 때부터 아버지가 요리하는 걸 계속 봤어요. 아버지보다는 사실 오빠가 더 많이 자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저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오빠는 우리 집이 가난했을 때 어땠는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그때 얘기를 종종 해주곤 해요. 그 때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건물도 사고... 정말 아버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이사를 하고, 가게가 커졌거든요. 전에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장사는 돈이 많이 남는거보다 하고 말이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이 안 모이는구나. (전문계 고등학생 열정이)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 중 하나가 부모라는 점은 초등학생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재능이, 독립이, 현실이 모두 진로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다음에 제시된 내러티브는 부모와의 대화나 가정 내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님이 저보고 검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초등학생 현실이)

학교에서 했던 적성검사 결과 보셨을 때 엄마가 ‘너는 장래 희망이 이거구나, 이렇게 예술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일이 해보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초등학생 재능이)

부모님께 미래에 관해 얘기하면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좋아하면서 함께 그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해서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가 좋아하는 곤충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못 키우게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정보 같은 것도 더 많이 얻어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독립이)

라.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교사들의 진로교육 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로와 관련된 이들의 구체적인 체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내러티브에 비추어 볼 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등학생 재능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현실이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다. 중학

생 명랑이가 가수가 되고 싶은 것도, 또록이가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것도 텔레비전의 영향이 컸다. 이들이 현재의 희망을 얼마나 지속시켜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얻는 정보나 이미지들이 이들의 진로 탐색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문제는 대중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서 출발하는 진로 탐색이 대부분 직업에 관해 조작된 이미지나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원은 너무 평범해서 싫고,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있고, 인기도 얻는 쉬운 직업인 것 같아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명랑이의 장래 희망은 청소년들이 스타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분석하는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M.)의 설명과 일치한다.³⁾ 명랑이와 같은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화려한 스타나 일부 직업군의 사람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비현실적인 직업들을 찾아가려 한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들은 따분하고 시시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진로탐색을 할 때 인터넷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갈증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가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명랑이가 가수가 되는 준비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은 곳은 인터넷을 통해서다. 초등학생 재능이도 학교보다 인터넷을 통해 직업과 관련해 훨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보 탐색 및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보망을 알려주는 활동이 진로교육의 주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가정 내의 부모님의 모습이나 상호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는 자녀의 특성이나 성장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진로의식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망 직업을 부모가 선택

3)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바버라 슈나이더 지음. 이희재 옮김(2003).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해냄.

하여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은, 진로 개척에 방해가 된다. 개인이 마주치는 1차적이며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 바로 가족 및 가정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가족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언 및 물질적·정신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심리검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기 이해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목표이자 영역이므로 학교에서는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제안해 주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일의 경험과 이를 수행해 가는 자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심리검사가 활용되는 방식은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 도구라는 믿음을 토대로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test-and-tell’의 방식이다. 중학생 또록이나 명량이 모두 학교에서 한두 번씩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나 토론 등 추수 교육활동과 연결되지는 않음으로 인해 그것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그것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체험보다는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현장과 일 체험이 교과내용과 연계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지연 외, 2005; 최동선 외, 2005; 이영대 외, 2004). 중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진로교육 경험도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지적과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중학생 명량은 학교에서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등 교과외 단원 중 일부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 수업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진로의 개념이나 특정 직업

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아이들은 지루해한다고 한다. 이는 지식 전달과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성찰, 그리고 재구성성이 동원되는 방식으로 진로교육은 이끌어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인문계 고등학생 십김이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성적이 안 좋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평범이도 늦게 진로를 결정하다보면 3학년 입시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진로고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낫지만 학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전문계고에 다니는 성실이와 열정이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토로했다. 진로교육지표 조사(2007)⁴⁾에 따르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채택한 학생은 49.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그것을 채택한 학생 중 만족하고 있는 학생도 15.2%밖에 되지 않았다. 진로와 관련된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 등을 받은 학생은 36.2%정도인데 만족도는 「진로와 직업」 교과 보다 높은 64.6%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교육지표 조사에서도 높지는 않지만 59.7%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해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1%의 학생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진로교육 경험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선 교사의 이해와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교과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기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독립 교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4)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은 대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체 중학교 중 창의적 재량활동 내용의 하나로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50%가 넘지 않으며, 할애하는 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언 외, 2005)⁵⁾. 연구 참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내러티브에 비추어 볼 때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된 이유는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속에서 범교과 활동인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도 낮고, 교사들도 진로교육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량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주로 직업 관련 동영상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뭘 했는지조차 모른다”고 할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3. 교사들의 진로교육 내러티브를 통해 본 진로교육 현황

가.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일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의 역할, 사회에서의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 B는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온라인 상담을 하거나 초등학생 수준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아이들이랑,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조차 잘 모르거나,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죠. ... 저는 (자기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등 단

5) 임언, 장홍근, 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계의 진로지도라고 생각해요. 중등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초등에서는 자기 내부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초등교사 B)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자기이해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의 51.8%가 진로 관련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또한 홀랜드 진로 발달검사나 초등학생 직업적성검사 등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직업카드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생용 심리검사 도구의 유용성에 대해 교사A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는 초등학교에서의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는 심리검사 테스트가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초등학생용 적성검사를 보면 개별 활동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봐야 자신이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 적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교사 A)

중학교 교사 A도 진로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합한 목표를 세울 때 학습 동기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우선 점수만 높게 받으면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모든 것을 끊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교육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우선 아이들이 자기를 잘 알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오면 공부로 인한 굉장한 중압감을 받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중학교에서 첫 시험을 보면 음악, 미술, 태권도 같은 모든 걸 다 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요. 그런 현실이 안타깝죠. 자기가 어떤 것이 맞으니까 그걸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부만 다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지. (중학교 교사A)

중학교 교사 C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진로교육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그는 학교교육 자체는 진로교육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성공적으로 산다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이 잘돼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죠. ... 결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해주는 거니까 학교교육 자체가 진로교육인 거죠. (중학교 교사C)

인문계고 교사 A는 진로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보다 한정된 직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만 눈이 쏠려 있어서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문계고 교사 B는 삶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는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각 직업에 대하여 로드맵을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안

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생생한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문계고와 달리 전문계고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계고 교사 A는 전문계고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했기 때문에 학교 및 학과 생활에 흥미가 없고,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흥미를 토대로 전문계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조차도 해당 전공 및 전공 후 진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계고 교사 A의 학교에는 제과제빵 과정이 존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TV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파티쉐의 모습만을 상상하고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이런 학생들에게 파티쉐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진로교육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본다.

한편, 전문계고 교사 B는 직업세계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그는 진로교육은 단순히 진학/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종합적인 인성교육과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계고 교사 C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요리 특성화 전문계로 다른 전문계고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다. 진로담당 교사로서 그는 단순히 조리사라는 하나의 진로에 국한하기보다 조리의 특성을 살린 보다 많은 진로와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로교육을 추구한다. 그는 조리과 응용해서 진로를 개척해나간 좋은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다 조리사가 되기보다 조리라는 틀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다양한 진로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조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캐춰해 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미장원에서 무슨 잡지를 봤는데 여성동아인가에서 우리학교 출신의 한 학생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음식과 관련한 기사를 쓰더라고요. 푸드 칼럼리스트가 됐거든요. 음식을 했고 글재주가 있다 보니깐 음식에 대한 표현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마인드는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길을 가고 있는 선배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교사 C)

나.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대표하는 교과는 ‘실과(기술·가정)’ 교과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시기에 ‘일과 직업의 세계’라는 단원에서 ‘가족이 하는 일’과 ‘직업의 세계와 진로계획’을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에 수정·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의 중단원으로 ‘일과 진로’가 편성되어 ‘일과 직업의 중요성’, ‘나의 미래와 진로’가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과 교과에 포함된 진로교육 단원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A 교사의 말을 빌리면, 실과 교과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데다 내용도 제한적이어서 진로 관련 학습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크다. 실과 교과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학습내용이 늘어나 초등 진로교육을 대표하는 교과로 작용하길 기대하지만, 실과 교과에서 진로교육은 극히 일부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진로교육 운영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과라는 과목은 비중이 매우 낮은 교과예요. 더구나 실과 교과서에는 진로뿐만 아니라 나무가꾸기, 요리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 이런 상황에서 진로 관련 내용에 대해 우위를 두고 가르치게 되지 않죠. 실과 과목 안에 진로교육 내용의 속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더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느껴져도 실과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 그리고 현재 실과 교과서

에 포함된 진로교육 내용도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정도로, 심층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초등교사 A)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를 통해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A와 B는 독립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다른 교과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나마 「진로와 직업」이 독립교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가 교과로서의 정체감을 유지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더 정교화 되고, 향후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교과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문계고 교사 A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로와 직업」도 하나의 교과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진로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요. 그래서 전 이 교과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 교과가 특성상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교과통합을 하자는 거지, 이 교과가 홀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모든 교과에 있으니까 각 교과에 삽입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로관련 내용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진로와 직업」이 필요한 것은, 그 교과 목표 밑으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정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고 교사 A)

그러나 A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의 문제도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전공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대충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

고, 때로 필요한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시간을 빌려줄 수 있어서 일종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A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로와 직업 수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성적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매해 수업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나눠서 합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진로와 직업」 교과 지도가 정말 재미가 있고,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선생님은 매우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문계고 교사 A)

요컨대, 인문계고 교사 A와 B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사의 관심이나 전문성과 별로 상관이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분되고 있었으며, 사실상 내실 있게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이 이와 같이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현행 진로와 직업 교과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매우 긴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전문계고 교사들도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수업시수가 줄어든 교사들이 담당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교과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수조차 한 번 받지 않은 교사들이 성의 없이 가르치는 교과가 되다보니 그 효과성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문계고 교사 C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운영 실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사실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하질 않습니다. 우리학교에 공업선생님과 농업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시수가 좀 적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 「진로와 직업」 교과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진로와 직업」 수업이 어떻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애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

다고 대답하더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깐 사실 시간 때우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계고 교사 C)

다.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 활용

교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진로교육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창의적 재량활동(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씩 배당되어 있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진로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재량활동 시간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B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1년에 재량활동 시간의 3~5시간을 진로교육에 활용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렇게 편성된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할 지 다른 것을 할지의 여부는 담임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로교육 시간으로 활용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중학교 교사 A는 창의재량 시간의 일부를 진로교육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진로교육 관련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총 4시간 분량의 수업 자료로 개발하여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라. 교과통합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전 교과를 통하여 전 방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자주 강조되면서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은 초등학교의 실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간주된다.

저는 교과에서 연관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초등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마운 이웃” 단원이 나오면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교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업들 같은 것을 위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B)

초등학교에서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에 대해, 이 연구에 참여한 두 초등교사는 ‘교과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A 교사의 표현대로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무심히 지나가버릴 수 있는 것이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이다. 이는 진로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적인 접근이 학교 현실에서는 쉽지 않음을 함의한다.

교과서에 명백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 실과 시간에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시간에 어떤 지문을 읽으면서 진로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로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 문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별로 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과서 질문에 ‘뭐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코멘트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게 되죠. 책에 나오니까요. (초등교사 A)

중학교 교사 A도 교과영역의 일부로 진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관련 과제를 내줌으로써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도덕 교과는 10대들의 삶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 시간에 하는 일이 진로교육”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1학년 도덕 시간에는 ‘자기존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으며, 3학년 도덕 시간에는 ‘진로’ 단원을 다루면서 수행 평가 과제로 커리어넷에서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하게 하고, 3학년들에게는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만나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것을 방학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특정 직업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진로지도를 연계한 교과별 지도안 샘플, 진로교육시범 학교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EBS 등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물 등을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A도 고등학교 윤리 교사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속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아낸다. 그는 최근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과반의 시민 윤리 선택 교과를 담당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3학년 이과반의 시민윤리 수업은 대충 흘러가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 상의 순서와 다르게 학년 초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먼저 정성껏 다루다보니,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과 연결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으면서 수업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고3이고, 윤리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특히 이과반은 수능에서 윤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업태도가 참 좋아요.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의 의미,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3월, 4월동안 가르쳤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아이들도 방향을 잡게 되었고 수업태도도 더 진지해졌다고 봐요. (인문계고 교사 A)

한편 A 교사는 교과통합적 접근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녀는 경기도 진로교육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자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특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교과연구회 작업을 통하여 시도한 교과통합은 주로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것으로 접근하다보니 특별히 교과통합적 접근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한 자료를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수정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로교육 교과연구회에서 3년 동안 각각의 개별 교과안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왔어요. 각 교과의 단원에서 상당히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자료를 만들어봤지만, 막상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각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고, 그 직업과 관련된 여러 부수적인 사항들을 수업하는 정도로만 주로 구성되더군요. (인문계고 교사 A)

뿐만 아니라 A 교사는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니 교과통합의 진로교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통합의 요체가 되는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혹은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 합의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인문계고 교사 B는 다양한 교과의 교사가 그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실시해봤다고 한다. 그는 진로주간을 맞이하여 각 교과의 교사가 해당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안내하는 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한 시간 이상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일반교과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로 인해 진로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교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진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자기가 그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현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얘기해주는 시간을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어려워될 하시더라고요. 친

구들, 동문들 얘기도 해주고, 어떤 분야로 나가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시간 정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반복하거나 심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인문계교 교사 B)

교사들이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시간적 한계라고 한다. 초등교사 B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수-학습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한다. 많은 학습량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기 쉬운 교과 속에서의 진로교육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나하나 짚어가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연계된 수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체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험하기가 힘든 것이, 시간적으로 교육해야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일일이 직접 체험해보고 일상생활이나 진로와 연관시켜보고 해석하는 것은 교과량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진로와 연결시켜 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초등교사 B)

교사들이 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교사들은 교육과정보다 교과용도서, 즉 교과서 중심 수업 운영에 의존하는데서 기인한다. 특히, 많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에게 교과의 특질에 맞는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업목표 및 내용의 선정, 학습장면 및 활동 방법의 구안, 자료나 평가계획의 설계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 교과서가 ‘바이블(박민정, 2007)’처럼 여겨지는 관행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특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교사 A는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편을 강조한다. 교과서에 분명하게 ‘박혀야 교과시간에 진로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있어야 되요. 외국처럼 교과통합으로 자유롭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교과를 운영하시죠. 대학 다닐 때도 배우거든요. 교과에서 해당 부분이 있으면 뽑아다가 하나의 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겨우 할 수 있지 그렇게는 안 돼요.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최고예요. (초등교사 A)

마. 진로상담

초등학생, 특히 4~6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기에 접하게 된다. 두 초등교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 또는 집단상담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내의 상담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밖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A 교사는 학교 조직에서의 업무분장은 말 그대로 업무처리를 위한 역할분담으로, 학교 내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실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지는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담임교사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은 문제해결의 측면보다는 인성교육 쪽으로 봐야 되요.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중·고등학교에는 따로 그러한 부서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담당자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담당자로서 제가 맡은 일은 관련 기관

에서 오는 자료들 가운데 괜찮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정도예요. (초등교사 A)

초등교사 B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에 의한 집단 상담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한 활동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B교사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초등학생의 진로에 관한 주된 관심 사항은 ‘저는 꿈은 ○○○인데요...’ 정도인데, 자신의 꿈을 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높지 않다고 한다.

애들한테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면 ‘저의 꿈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막연하지만,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도 자기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다 해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꼭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학부모들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교과목을 가르쳐주고, 남은 시간에는 학원에 많이 가니까... 학부모들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켜주길 원해요.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가 구체적으로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건 없어요. (초등교사 B)

중학교의 경우, 진로교육은 진로상담부라는 한 부서의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 A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학생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담임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로교육이 담당부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로교육은 인지적 영역이라기보다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 중심의 교육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전문계고 교사들이 성공적인 진로교육 사례로 들어준 대부분 교외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전문계고 교사 C는 조리 분야에서 성공한 인사들이나 선배들의 초청강연이 학생들의 의지나 동기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조리명인 특강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불러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분이 왔냐면, 노르웨이에서 ‘누들 킹’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이철호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호텔에 조리명인들을 불러다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외식산업체에서 성공한 분들, 예를 들면 놀부보쌈 CEO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애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교사 C)

뿐만 아니라 그는 방과 후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문계 고교와는 달리 전문계 고교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A활동은 선생님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CA활동은 선생님들이 전문성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요. 근데 동아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동아리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수업 끝나고 애들한테 두 시간씩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교사 C)

사. 진로교육의 문제점

■ 진로교육의 정체성 미흡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A는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진로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진로교육 교과서의 개발, 그 교과서를 위한 지도서 개발 작업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고, 주변의 교사들이 자신을 직업교육 전문가로 생각하고 조언을 구할 때도 그러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A 교사는 진로교육의 학문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명확한 지식 체계가 있지도 않은데다가 국가 수준에서 합의된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체계가 수립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혼란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안내, 주요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이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많다는 것,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교과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뭔가 가르치면서도 자신 없게 하는 것이 진로와 직업 교과 속에 내재한 특성이라는 지적한다.

진로교육이 학문은 아니지만 진로교육하면 이거, 이거, 이거는 딱딱 가르쳐야 한다는 체계라든가 정형화된 틀이 없잖아요. 경기도에도 교과서가 있지만 다른 도에도 교과서가 있고,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마다 다 편리한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로교육의 뼈대를 확실히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 수학 같으면 사칙연산을 가르친다, 이 단원은 ‘뺄셈을 가르친다’라고 하듯이, 진로교육의 어떤 영역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목표하고, 역량 같은 것을 동료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문계교사 A)

■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 모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면서 진로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교장·교감이나 부장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교과의 개설, 신규교사 연수나 1정 교사연수 등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진로교육에 관한 과목의 개설 등을 강조했다.

서울에 초·중등진로교육연구회가 있어요. 그런데서 여름이나 겨울에 연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버로 연수를 많이 해요. 그 직무연수 과정 중에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개설된 것이 있으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찾아서 들죠. ... 최근에는 학교에 직접 오셔서 교사 연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이러 이러한 좋은 연수를 헤드릴 테니까 불리만 달라, 공짜로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다 헤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평교사가 아니라 부장 선생님이나 교장·교감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진로교육에 관련된 것을 넣거나, 신규교사 연수나 1정 연수, 이럴 때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강좌라도 넣으면, 이런 연수는 모든 교사가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야하는 연수니까 소양함양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교사 A)

최근 초·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지만 많은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 A는 전문가 집단 양성을 강조한다. 그는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촉진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전문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B 교사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그

는 여러 학교에 ‘숨어있는’ 전문 인력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도 연수를 진행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는 해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접하시는 입장이라 겹치지는 않겠지만, 많은 연수를 받아왔는데 더 심화된 내용을 듣고 싶으실 경우에는 찾아갈 만한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죠. 저도 강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진로교육 내에서도 전문 분야별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같이 나누고 널리 퍼뜨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연결(네트워크나 인력풀 정보)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조직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교사 B)

■ 교사들의 협조체제 부족

중학교에서 진로상담 부장을 맡고 있는 B교사는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적극적 진로교육보다는 자료를 탐색하고 제공하는 정도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보니 상담부에 배정된 교사들도 상담실 업무를 보는데 그칠 뿐, 아이들과 상담할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학생들도 상담부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한다.

제가 일단 교사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보니깐, 만약 진로교육을 강조하면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중학교 교사들은 일단 교과에 대한 책임이 크고 교과지도와 관련해서 실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 한 사람 당 40여 명의 학생을 맡다보니깐 진로교육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교 교사 B)

학교 일의 특성상 부서 일이 맡겨지면 그 부서에서 대부분의 안이 다 나오다시피 해야 되요. 선생님들이 새롭게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는 참 여력이 없어요. ... 진로교육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안을 받고, 서로 토론하고 그건 좋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인가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게 나 혼자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교사A)

■ 진로교육계의 비체계적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중심으로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교육계 설치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진로교육계’를 하나의 업무 분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진로교육계, 또는 진로담당계라는 조직은 업무 분장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로담당계 교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의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담당계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진로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거나 소개하거나 관련 업무를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진로담당계가 진로교육과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식위주의 진로교육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B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박제화”되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진로와 직업」 교과도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나 체험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도 매우 양적인 정보들로 실제로 직업을 선택해서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담겨 있는 생생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어서 아

이들의 진로탐색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 연수 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든 기업과 직업인들이 일종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 지역 사회 내의 주요 직업 현장에 가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부러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 사회 시스템이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 그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말하자면 생생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 인근에 있는 기업체라던가 공공기관은 학교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 업체에 가면 학생에 대한 박물관적인 자료가 있고, 또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가서 인근 자기 지역에 있는 직업현장을 방문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요. (인문계고 교사 B)

■ 심리검사 위주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중요한 내용 영역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자기이해이다. 초기 진로교육 이론인 특성-요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교육에서의 자기이해는 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지도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데 그칠 뿐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의미 있는 교육 경험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심리검사에 기초해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짚겠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실증주의에 기초한다. 우선 개인의 특성을 제한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심리검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그러한 결과에 의하여 찾아진 특성에 맞는 직업이 있다는 가정, 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의 특성은 고정되었다는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특성과 잘 맞는 직업을 찾기만 한다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과 같이 현실을 매우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이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진로교육의 목표이며, 그것이 피상적인 자기이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아탐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심리검사가 갖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로서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한 번 보고 검사표 받아서 어디 났는지 모르는 애가 절반 이상이에요. 결과를 한 번 대충 보고 이렇게 쓱 보고 부모님에게 조차 안보여주는 학생도 있죠. 그렇지만 담임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담임들도 한부씩 가지고 문제 되는 학생들은 지도를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직업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환기가 되죠. (인문계 교사 A)

물론 이제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나 성격검사가 얼마만큼 심리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교 교사 B)

■ 진학위주의 진로교육

인문계고의 진로교육은 진학에 초점이 주어짐으로써 ‘진학지도부’라는 것이 고3담임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는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진학지도를 한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진학 후에 전공과 학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진로지도 보다는 진학지도가 위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학 위주의 진로지도를 하다보디, 적성에 맞는 중위권 대학에 가기 보다는, 적성과 조금 멀지만 성적에 맞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지요. (인문계고 교사 B)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계고에서도 나타난다. 전문계고 교사 B는 그는 고교 졸업 후 진학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부분의 전문계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취업과 진학은 이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하는가의 순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B 교사가 보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작정 대학진학을 하려는 주요 원인은 부모님들의 짝 막힌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진로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 바로 진학을 할 경우 실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을 갖고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열떨결에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잠시라도 해보고 나서 필요할 때 대학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일단 진학 쪽으로 생각을 하지요. 1학년 때는 애들이 제 말에 끄덕끄덕 하다가, 3학년 돼서 친구들 진학하는 거 보면 많이들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솔직히 요즘 대학은 돈만 내면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공부 그렇게 못해도, 대학을 다 보내

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많지요. 부모님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계고 교사 B)

■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와 뒤쳐지는 진로교육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려운 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는 것이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 조리전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 C는 조리 분야와 관련된 유명한 호텔 및 외식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진학이나 유학을 결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이 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교사로서 진로교육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이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매우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다 배운 애들이 대학에 가서 심화과정을 배워야 하는데, 대학에서 그런 심화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애들이 대학에 가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복습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1등을 하는 학생이고, 다른 부류는 재미없다고 아예 손을 놓아버리지요. 전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멀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 부류이고, 후자의 학생들은 결국에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조리를 한 애들보다도 뒤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계고 교사 C)

전문계고 교사 A는 다양해진 직업세계와 복잡해진 입시전형으로 인하여 취업·진학 상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의 형태가 1:1 맞춤형 컨설팅의 형태이기 때문이며,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취업·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담임교사나 진로상담교사가 너무나 방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며, 정리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학을 예로 들어 볼게요. 진학을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는 그냥 성적이 몇 점에서 몇 점 되야 한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다보니깐 한 학생 진로지도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보니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다 하기가 쉽지 않죠. (전문계고 교사 A)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문계고 교사 B도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가 재직하고 있는 전문계고는 애완동물이나 화훼장식 등과 같은 특수한 학과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들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침체 될 경우 해당 전공의 학생들의 진로지도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다.

애완동물이나 화훼장식이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애완동물 같은 경우 한동안 떴다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애들이 애견미용 이런 거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애견미용 실제로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애완동물 훈련, 사육 같은 경우도 좁은 분야고 실제로 수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쪽 계열로 해서 나갈 수 있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애견훈련소 가서 자기가 교육받고 같이 생활하고 한 학생들은 도제식으로 해서 졸업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외 학생은 그쪽 계열로 나가기 힘들겁니다. (전문계고 교사 B)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등단계 청소년의 경우 진로선택 시 부모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선택 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올바른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계고 교사 B는 학부모가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학생역시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들의 진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학생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했는데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을 상담해야 되요. 학부모를 상담해야 되요. 애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부모가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 부모 주도하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진로에 대한 많은 탐색을 해요. 그런 학생들은 아주 진로가 뚜렷해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변리사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변리사나 노무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개들은 벌써 난 여길 가야 되고, 여길 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 애들은 진로지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이 상담을 오면 제가 오히려 긴장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3학년이 됐는데도 우왕좌왕하고, 넌 무슨 과 갈래하면 몰라요, 몰라요 이라고. 그런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원서를 써가지고 해쥬도 접수까지 해줘야 할 때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문계고 교사 B)

전문계고 교사 C는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B교사와는 달리, C교사는 전문계고 및 전공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학생의 장래를 위해 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의 목적으로 본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적인 피드백 제공은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개척”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삼위일체를 만들 것으로 본다.

진로부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요. 학생들이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진로로 나가야 하느냐가 학부모님들의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옆집에 인문계 학생이 있고 하면 그쪽 학생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정말로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우리학교는 인문계 학생처럼 공부 안 시켜 주느냐는 질문도 많이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설명해드리지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면 많이 나아지기는 하는데, 1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은 아직 많이 이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요. 아이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바로 교사죠.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사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토의하고 피드백 받고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계고 교사 C)

아. 논의 및 결론

교사들의 진로교육 내러티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진로교육을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중학교 교사 A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적어진다. 중학교 1학년들은 창의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이해나 진로 탐색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성적의 압박이 커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은 성적과 별 상관없는 활동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된다. ‘성적이 곧 적성’이라고 인식되는 현실에서 성적에 발목 잡힌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게 되고 성적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고 한다. 성적이 높으면 진로선택의 폭이 커지지만, 성적이 낮으면 그러려 볼 수 있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현실 속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판단기준은 오직 성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진로는 진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나마도 진학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지식과 단편적인 정보로 구성된 교과서, 교사들의 열의와 전문성 부족,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수립하고, 생생한 직업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일터를 개방하고, 경험과 학습의 장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진로교육이 개별 부서 활동에 머물 뿐 학교 전체의 호응을 얻거나 전반의 문화로 파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교육에 의욕과 능력을 가진 교사조차도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기 쉬운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진로교육이 학교 전체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임무는 부서 담당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맡겨지고 있다. 학교는 개별 교과목 단위로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교사들은 표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에 맞추어 학년별 진도를 나가기에 바쁘다. 예컨대, 중학교 교사 A는 진로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강했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로상담 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칫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진로교육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진로교육에 열정을 가진 연구 참여 교사들은 진로교육이 교육 본연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하는 교육활동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현실의 실천 활동으로 기획될 때 학교 전체 과제로는 간주되기보다 교사 개인의 신념에 좌우되는 활동이 되는 현실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진로교육이 교육 과정 전반의 흐름이나 구조와 연결되지 못하고 교과외 프로그램의 기획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진로상담부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진로교육은 실시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수적 교육활동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

어지는데, 그 교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은 이 교과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교사들 간의 수업시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됨으로써 『진로와 직업』 시간은 교사의 관심이나 전문성과 별로 상관이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평가가 되지 않는 수업이므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활용되면서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하기보다 각 교과별로 시간이 할당되면 해당 교과 내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진로교육 활성화의 방안으로 교과통합적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 교사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현장 체험 및 방과후학교 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과교육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경우 단발성 행사로 끝나기 쉽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들은 교과 내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즉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보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적극 찬성하고 있었다. 전문계고 교사 C의 학교에서는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적극 강조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쉬운 인문교과 과목에서 자신의 향후 진로와 연계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 인문계고 교사들은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교과 전체 혹은 특정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수준의 교과통합이 진로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 통합이 단순히 해당단원 또는 교과와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게 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진로교육을 하면 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이 목표인 학생도 있고 취업이 목표인 학생이 있어 어느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더구나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성적이 안 좋은 편이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편부편모 가정도 많아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향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초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제1절 초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최동선

1.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동은 누구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러한 기초보통교육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초등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초능력 배양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영역인 직업세계 또는 일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시간적 특성, 즉 일생 동안 형성되는 개념이라는 특성도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주된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초등학교 아동기는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성장기로써, 미래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며,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달적인 특성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민무숙 외, 2004; 이종범·정철영, 2005).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며,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곧 진로인식을 위한 활동이라는 등식도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며, 그리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취미를 발견하고 사회에서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오인수, 2008).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은 어떠한 내용이나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즉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시도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부 부처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진로 관련 프로그램(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2; 민무숙 외, 2004; 정철영 외, 2005)을 비롯하여 활동 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현림·최남옥·류진영, 2007), 직업카드 분류 활동(황태항·최경애, 2006), 상담 기반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오인수, 2008; 이현림·이난희·이영옥, 2006)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실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실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이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진로교육의 개념이나 목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나승일, 1999), 아동이나 학부모들도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주희, 2005; 정수교, 2004). 둘째, 초등학교 교수-학습 현장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자료가 개발·보급되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잘 활용되지 않아 수업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신장

시킬 수 있는 기회부여가 적은 편이다(김남오, 2000; 나승일, 1999). 셋째, 현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로교육을 각 교과내용의 관련 단원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의 영역별 비중이 계획적이며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시된 영역과 내용이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장석민 외, 1985; 최동선 외, 2005). 넷째, 초등학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교사 연수도 부족한 상황이다(김남오, 2000; 임복순, 1999).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초등 진로교육이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왜’ 초등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단까지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들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 진로교육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다.

2.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내러티브

가.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전반

■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자기중심의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의 단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동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인식과 자기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옥환, 2001). 일반적

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으로 요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등학교시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의 역할, 사회에서의 일이 갖는 역할과 의미, 사회적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Zunker, 1990).

두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이해’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온라인 상담을 하거나 초등학생 수준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아이들이랑,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죠. ... (자기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초등 단계의 진로지도죠. 중등에서는 외부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초등에서는 자기 내부에 대한 정보가 먼저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B 교사)

특히 A 교사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의 장점을 다양하게 진술하는데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여러 진로개발지침(예: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s 등)에서 지적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을 위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처치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모든 것을 잘하라고 하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반 애들도 자기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 개인별로 10개를 못 채워요. 그런데 단점은 10가지가 넘게 나와요. 자기 장점은 모르고 자기가 못하는 것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A 교사)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이 폭넓은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많은 경우 자기이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의 51.8%가 진로 관련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또한 홀랜드 진로발달검사(안창규·안현의, 2000)나 초등학생 직업적성검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직업카드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등학생용 심리검사 도구의 유용성에 대하여 A 교사는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이나 직업적 활동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초등학교에서의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가 심리검사가 아닌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용 적성검사를 보면 개별 활동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활동을 다양하게 해봐야 내가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해보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직접 해보는 게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 교사)

■ 중요성의 인식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현재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현황을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의 사례를 통해 보면, 교과와의 직접적인 연계 보다는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진로심리검사의 실시, 영상자료를 활용한 학습기회 제공, 간단한 형태의 진로프로그램 활동지 중심의 활동, 부분적인 진로집단상담 등이 주된 활동이라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아침자습 시간, 재량활동의 일부 또는 교과 수업시간의 일부(주로 해당 교과에 진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경우) 진로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일단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닌데요, 그냥 실과와 같은 교과서에 자기 꿈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각 교과마다 내용 중간 중간에 진로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지도가 되는 정도입니다. (A 교사)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에서 갖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교사가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은 진로교육 운영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학습량과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 관행, 다양한 행사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진로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되면서 학교 수업에서 가르칠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록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가르치라는 것이지만 잘 안됩니다.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가르치면 무능한 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주5일제가 되니까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기도 빠듯합니다. 어떤 때에는 진로와 관련하여 발표

를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를 재미있게 하려면 나머지 몇 차시는 정신없이 진도만 나가야 그 시간이 확보가 되요. 그런 상황에서 교과별 진로교육 관련 내용까지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고학년은 무슨 대회나 행사가 너무 많아요. (A 교사)

또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제도가 자율적인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중·고등학교보다 적극적인 진로교육 운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담임교사의 적극성이나 동기부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의 내용이 특정 교과로 제공되거나 또는 분명한 학습내용으로 교육과정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저것을 하는데, 그런 데에 특별히 소명 의식이나 교사의 개인적인 동기화가 없거나 하면 어렵죠. 결국 그것이 교과목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초등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진로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자율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진로교육에 관심이 있어 진로교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애들이 자아존중감 같은 것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진로나 다양한 곳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 (A 교사)

[그림 2]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학습지 예시

▶ 사례 1. 온라인 직업적성검사의 활용을 위한 학습지

직업 적성 검사 결과

○○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직업검사 결과를 세 보세요.

직업	백분위 점수	직업	백분위 점수
신체노동	%	연예	%
손재주	%	수리·논리	%
공간·시각	%	사기성향	%
음악	%	대인관계	%
창의력	%	사건처리	%

나의 높은 직성은 어느 것인가요? (높은 순서대로 3가지를 세 보세요.)

지금까지의 경험 중 나의 높은 직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경험을 세 보세요.

나의 직업 경험

나는 평소엔 노력 보지 않을 뿐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내게는 내 특성이 소위 말하는 노력의 대동이라고 하겠고, 친구들은 내가 노력을 잘 보인다고 생각하더라.

높은 직성

나의 경험

그림	직업	내용
1	신체노동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 몸 운동, 경기 활동, 실용체제 학습, 레크리이션, 요양하는 능력이다. 이 직업 분야에 대한 사항은 신체적 활동에 대해 설명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무릎이나 손목 등에서 신체로 자신이 내면체제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2	손재주	손으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3	공간	이원적으로 크기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 도형, 그림, 지도, 도해 설계 등의 공간적 상상체제를 소질과 직업을 보이는 능력이다. 공간을 논리, 물리, 화학, 디자인,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보충, 조립에 필요한 것, 물리적 능력이다.
4	수리능력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 숫자나 공식, 문제 등의 상징체제를 잘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상징적 해결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수리(수)는 항상 동적이지는 않지만, 수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를 풀거나 논리를 풀거나 논리를 풀 수 있는 능력이다.
5	창의력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6	사기성향	사회의 평가를 잘 받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 자기 자신을 높이, 자기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높이, 자기 자신의 향상을 잘 받아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7	음악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여 감상할 수 있는 능력 -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체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상징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의해 제정한다.
8	연어	말과 글로써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말과 글로써는 상징체제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고하고, 이를 통해 생각한다. 이 직업은 높은 언어의 활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9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진다.
10	자연 친화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향유-보존할 수 있는 능력 -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위적 문제를 해결할 문제(자연)와 기술을 발전하는 능력을 말한다.

▶ 사례 2. 『만화로 보는 직업세계』를 읽고 직업세계 이해를 위한 활동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를 읽고

()학년 ()반 이름: ()

•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를 읽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미인도형, 만화 등)

• 내가 되고 싶은 직업:

• 30년 후 직업이 된 내 모습(그림+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가 관이나 단체가 초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러한 외부 수혜에 의한 진로교육은, 비록 모든 초등학생이 아닌 일부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재직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교육과 같이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을 와서 교재도 다 제공해 주고 애들 데리고 5회거나 10회기로 운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활성화 시키기에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한 팀이 학교에서 와서 5회기 정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모두가 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게 훨씬 더 높고, 학교에서도 생활지도라던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사들도 자신의 반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 지금은 복지관 같은 기관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학교 등의 시간을 통해 초등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꺼이 호응해 주실 것 같아요. (A 교사)

나.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

- 비교적 진로교육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된 ‘실과(기술·가정)’, 이를 통한 진로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대표하는 교과로 ‘실과(기술·가정)’ 교과가 꼽히곤 한다(정모근·정재영, 2001).⁶⁾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시기

에 ‘일과 직업의 세계’라는 단원에서 ‘가족이 하는 일’과 ‘직업의 세계와 진로 계획’을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에 수정·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의 중단원으로 ‘일과 진로’가 편성되어 ‘일과 직업의 중요성’, ‘나의 미래와 진로’가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하지만 실과 교과에 포함된 진로교육 단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교사의 말을 빌리면, 실과 교과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데다 제한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충분한 진로 관련 학습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로교육의 시각에서는 실과 교과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학습내용이 늘어나 초등 진로교육을 대표하는 교과로 작용하길 기대하지만 생명과학, 기술학, 가정학, 정보통신, 생활환경과 함께 진로교육이 실과 교과를 형성함으로써 인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⁷⁾

일단, 실과라는 과목은 비중이 매우 낮아요. ... 실과라는 것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고, 실과 교과서에 진로뿐만 아니라 나무가꾸기, 요리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참 가르치기 힘들어요. ... 그렇다 보니 실과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낮는데, 그렇다고 진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더 우위를 두고 가르치기는 좀 그래요. 즉, 실과라는 과목에 속해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내용의 비중이 조금 더 하찮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느끼더라도 실과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니면 차라리 실과 교과에 진로에 관한 내용이 더 늘었으면 좋

-
- 6)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교육목표에서 자신의 적성 계발 및 진로탐색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 직업의 세계 및 진로설계에 관한 단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미래 기술 및 산업의 발달 전망 등에 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특정 교과에 일부 단원으로 진로교육 내용이 편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진로교육 친화성은 ‘일’ 또는 ‘직업’에 관한 내용이 2차 교육과정부터 반영되어 온 역사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최홍선 외, 2005).
- 7) 실과 교과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여러 학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교과라고 해석되기도 한다(정성봉·송현순, 2002; 최유현, 2002). 정성봉과 송현순(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교육이 가정과학, 생명과학, 기술학을 핵심 모학문으로 하고, 생활환경, 진로교육, 정보과학을 관련 학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유현(2002)의 연구에서는 독립학문과 공유학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또한 현재의 실과 교과서 내용은 진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 정도로, 심층적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⁸⁾ (A 교사)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은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의미하는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독립된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은 초등학교의 실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B 교사는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실제로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이 교과시간이 아닌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교과학습과 진로교육이 동일시되지 못하는 한계, 즉 교과시간에는 교과내용에 관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과, 교과내용을 계기로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연관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초등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마운 이웃” 단원이 나오면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교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업들 같은 것을 위주로 만들었어요. ... 교과시간에 하는 경우는 교과 진도내용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진로지도 내용 중에는 교육과정 내용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안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재량활동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B 교사)

8) 실과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춘식(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일과 직업의 세계’ 단원은 학습량이 다른 단원보다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일과 직업의 세계’ 단원이 학생들의 이해 정도도 높고, 내용의 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에 대한 B 교사의 설명은 ‘재량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었는데, 초등 진로교육이 대체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한계로 인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 하면서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창의적 재량활동(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씩 배당되어 있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진로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재량활동 시간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B 교사의 학교에서는 1년에 재량활동 시간의 3~5시간을 진로교육에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이렇게 편성된 재량활동에서의 진로교육 시간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할지의 여부가 담임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초등 진로교육에서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약간씩 틀린데, 저희 학교는 진로교육으로 1년에 재량활동에서 3~5시간 정도 책정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도록 권장은 하고 있어요. 관련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고 개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도록 권장해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제공해 드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진로지도를 하시지는 선생님의 재량사항이니까, 그것은 반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개발활동시간이나 방과후활동 시간에 자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도 진로교육과 연관시켜서 아이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구요. (B 교사)

- 학교 교육과정, 특히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나 가능한 표현

그렇다면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 다시 말하면 교과 수업시간에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어떠할까? 두 교사 모두 ‘교과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많은 초등교사들이 굳이 교과내용에서 진로교육의 요소들을 ‘일부러’ 뽑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 교사의 표현대로 특별

히 의식하지 않으면 무심히 지나가버릴 수 있는 것이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인 것이다. 진로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적인 접근이 학교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⁹⁾

교과서에 명백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 실과 시간에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시간에 어떤 지문을 읽으면서 진로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로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 문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별로 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과서 질문에 ‘뭐에 대해서 생각해 적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코멘트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게 되요. 책에 나오니까. (A 교사)

일부러 교과별로 진로교육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진로랑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진로와 연관이 없이 그냥 해당 교과의 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B 교사)

초등교사가 교과와 진로교육을 ‘일부러’ 연계하려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적인 한계이다. 시간의 부족은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맹영임·임경희, 2008). B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수-학습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한다. 정남식(2007)은 10개 교과와 재량활동의 ICT 교육,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5개 영역, 저학년의 통합교과 등으로 세분화하면 초등 교사의 입장

9)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전개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81.5%, 중학교 44.0%, 일반계 고등학교 49.6%, 전문계 고등학교 49.5%가 교과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을 전개한다고 응답하였다. 맹영임과 임경희(2008)의 연구에서도 응답 교사의 41.3%가 담당교과 시간에 진로교육을 실시한다고 나타났다. 즉 양적 조사결과와 내러티브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합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민과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에서 무려 20여개의 교과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이러한 이유로 과목이 많아 교과 특질을 살린 지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많은 학습량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기 쉬운 교과 속에서의 진로교육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나하나 짚어가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한 박민정(2007)의 연구에서도 시수나 교육과정상의 진도표에 맞추어 학급 경영록을 작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통합교육과정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연계된 수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체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험하기가 힘든 것이, 시간적으로 교육해야 할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일일이 직접 체험해보고 일상생활이나 진로와 연관시켜보고 해석하는 것은 교과량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진로와 연결시켜 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양이 조금 줄어야 하겠죠. 수업시간이 느는 것은 조금 힘들테니까. (B 교사)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한계,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의 제약은 초등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이지 아닌 교과용도서, 즉 교과서가 중심이 되는 수업 운영에 의존하게 만든다. 많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 교사에게 교과서의 특질에 맞는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업목표 및 내용의 선정, 학습장면 및 활동 방법의 구안, 자료나 평가계획의 설계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정남식, 2007). 여기에 교과서가 ‘바이블(박민정, 2007)’처럼 여겨지는 관행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특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A 교사는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편을 강조한다. 교과서에 분명하게 ‘박혀야’ 교과시간에 진로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있어야 되요. 외국처럼 교과통합으로 자유롭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교과를 운영하시죠. 대학 다닐 때도 배우거든요. 교과에서 해당 부분이 있으면 뽑아다가 하나의 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겨우 할 수 있지 그렇게는 안되요.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최고예요. (A 교사)

■ 학부모 주도의 진로체험

초등학교에서의 교과통합형 진로교육, 또는 초등 진로교육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은 상당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장방문, 새도우잉(job shadowing), 역할놀이, 직접경험 등을 통한 현장체험 활동이 갖는 구체성이 주는 학습의 용이성도 크지만, 무엇보다 가정이나 학교를 제외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업인을 만난다는 자체만으로도 초등학생에게 많은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진로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Hoyt & Wickwire, 1999; Watts, 1991). A 교사의 말을 빌리면, 초등학교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많은 수업량으로 인한 체험학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 밖 체험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등이 그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주도의 진로체험학습보다는 학부모 주도의 진로체험학습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A 교사는 과제로 어느 기관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곤 하는데, A 교사가 지적하듯이 교사가 권장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교사에 의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학부모의 적극성 및 준비도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A 교사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예를 들어 현장직업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개별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안에서’ 직업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흔히 하는 것으로는 부모님 회사 방문하는 것이 있지만,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소에 하는 체험학습(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을 의미함)도 학기 중에는 가능하지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인데... 그것도 교과서 가르치기가 너무 벅차서 매달 나가는 것은 ‘교육적인 의지’가 아니면 나가기 힘들죠. 특히 저희 학교처럼 서울의 구석에 있는 경우에는 매달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서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또한 예전에는 학교에서 한번 어디를 가보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지만,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에버랜드를 안가도 다 각자 집에서 많이들 가잖아요? 같이 간다는 의미만 크지, 체험학습 자체가 학교에서 제공을 모두 다 해줘야 할 의무는 굳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례로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가는 추세거든요. 이유가 수련회를 가서 어울려서 지내면서 오히려 안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안좋은 것을 배워오기도 하죠.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 수련회 보내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숙제를 해오는 애들 중에도 부모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꼼꼼히 보고 해주실만한 데까지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 모든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몇 명이라도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면 그게 또 어디겠어요? 없는 것 보다는 낫죠. (A 교사)

■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의 효과

전문가 집단 또는 일선 현장, 그리고 정책적으로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추구하고 있다(이지연·최동선·이혜숙, 2007). 하나는 학습내용과 직업세계(또는 일상생활)의 연계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제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진로탐색을 촉진함으로써 폭넓은 진로대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임언·장홍근·윤형한, 2005)이다. B 교사의 사례를 통해 보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관심도를 쉽게 높일 수 있고, 자신의 특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로개발의 요구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다. 반면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학습동기나 학업성취와 연계되는 사례는 찾지 못한다고 한다.

일단은 애들이 참 좋아해요. 공부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보통 그런 거 저희도 예전부터 많이 하잖아요. 장래희망 조사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적성이랑 잘 연결시켜서 확대하는 작업은 많이 안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이 교과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이들 개인별로는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적성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적성이 어느 부분으로 나오는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를 교과랑 관련지어서 이런 적성은 이런 교과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그쪽에 조금 더 집중되거나 잠깐이라도 집중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특별히 진로교육을 역으로 교과를 활성화시키는 데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못 느끼졌어요. (B 교사)

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

초등학생, 특히 4~6학년의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기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응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교사의 말을 종합하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 또는 집단상담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내의 상담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밖 인력에 의한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A 교사는 학교 조직에서의 업무분장은 말 그대로 업무처리를 위한 역할분담이라고 설명한다. 즉 학교 내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실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담임교사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은 문제해결의 측면보다는 인성교육 쪽으로 봐야 되요.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중·고등학교에는 따로 그러한 부서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담임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담당자라고 해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담담당자로서 제가 맡게 되는 일은, 관련 기관에서 오는 자료들 가운데 괜찮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정도이지, 제가 상담 담당이라고 해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뭘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A 교사)

B 교사의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에 의한 집단 상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한 활동이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단

위 초등학교에서 독립된 상담실을 구비하거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직적인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두 교사 모두 단위 초등학교에서 상담실을 갖추고 이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상담교실이 운영되었어요. 어머니들로 구성된 학생상담자 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 중에 진로가 들어가 있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는 한 학교별로 한 학급이 4회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참여는 아이들이 신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해당 반 선생님이 통째로 한 개 반이 다 참여하는데, 한 반을 네 그룹으로 쪼개서 팀을 만들어서 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하지는 않죠.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은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고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B 교사)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요구나 관심에 대하여 학교가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진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학교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이다. B 교사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분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초등학생의 진로에 관한 주된 관심 사항은 ‘저는 꿈은 ○○○인데요...’ 정도인데, 자신의 꿈을 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진로에 대한 뭐라고 하면... ‘저의 꿈은 무엇입니다’, 6학년까지 공히 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지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하나일 필요는 없죠. 아이들은 막연하지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바뀌고, 그 이유도 계속 바뀌지만,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에 의해서 생긴 것인

지, 아니면 그냥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도 자기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다 해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A 교사)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학교에서 꼭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학부모들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교과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공백이 있으면 학원에서들 많이 하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아이의 인성교육을 지도하는 과정을 볼 때, 가정에서도 애를 어떻게 못해서 애가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오면 가정에서 못한 것까지 덤터기를 씌워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잘 있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교육을 많이 하지, 진로나 이런 쪽으로 관련하여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주세요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다들 좋겠다고 하시지만, 먼저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A 교사)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상담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하여 B 교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문제해결 차원에서의 상담 활동이 주로 담임교사 주도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들어보면, 반에서 해결이 안되는 아이들, 교과 활동 시간에 진도는 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상담실로 보내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 차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담실을 만들자고 건의하는 선생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필요하다고는 하실 것 같은데, 굳이 나서서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는 안하죠. (B 교사)

일반적으로 진로상담은 진로교육에서 매우 핵심적인 활동의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의 직접적인 접근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초등 진로상담에 대한 두 교사의 생각이나 경험들은 초등 진로교육이 중등 진로교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등학교와는 다른 패러다임이나 접근 방법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 진로교육계의 활동, 그러나 비체계적인 구조

담임교사 중심의 진로교육 활동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A 교사는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진로교육계’를 하나의 업무 분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B 교사는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의 부족함을 지원하는데 진로교육계의 역할이나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진로교육계라고... 어느 학교에나 다 있어요. 학교 업무에 2~3년 전부터 진로가 갑자기 많이 회자되면서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진로교육 담당계가 있고 학교에 교사들 업무 중에 진로교육 담당, 상담 담당과 같이 담당 업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담당 업무자가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느냐는 학교마다 다르죠. (A 교사)

담임선생님들은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특별히 생각할 것 같아요. 학교 담당자가 언급을 주거나 관련된 것을 연계해 주고 자료 같은 것을 주시면 더 좋죠. (B 교사)

이러한 진로교육계, 또는 진로담당계라는 조직은 업무 분장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초등학교의 진로담당계 교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의체 등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서 진로담당계의 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신 담임교사가 진로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거나 소개하거나 관련 업무를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진로담당계가 진로교육과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저희 학교 진로담당계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진로 관련 학습지를 만들어서 담임선생님들께 나눠줬었어요. 4, 5, 6학년만 대상으로 했었고, 학년마다 약 12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지요. 내용은 4, 5, 6학년 공히 자기탐구는 들어가고, 5, 6학년은 조금 더 직업탐구 쪽으로 넣고 해서 학습지를 만들었었고, 『미래의 직업 여행』이라는 책을 4학년은 모두 운독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활동을 하고, 5학년은 만화의 형태로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와이즈멘토의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를 가지고 공부했지요. (A 교사)

또한 여러 업무 분장 가운데 하나로 진로교육계가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진로교육계의 설치 여부가 해당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진로교육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적극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진로담당 업무를 맡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움직이면) 학교가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학교가 사실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마 성교육에 대한 엄청난 지침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올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교육들을 다 해야 되지만, 가르칠 것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로교육이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사실 어느 교사가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 가르치고 싶겠어요. 너무 중요한 걸 알지만, 힘에 부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많은 것 같아요. (A 교사)

■ 교육청이나 외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미약한 지원

단위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추진하는데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단위 학교에 전문 인력이 ‘공식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초등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단위 학교별로 설치되고 있는 ‘진로교육계’라는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도 ‘진로교육계가 움직여야 담임선생님들이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외부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초등학교의 현실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등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과학연구원 이외의 외부 단체와 조직적인 연계를 맺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⁰⁾ 또한 인터뷰를 위하여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A 교사는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받은 진로와 관련한 공문을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연구자의 느낌은 교육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공문 전달이지 초등학교의 시각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10)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학교의 43.9%가 외부 기관과 연계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교육청 또는 지역진로정보센터를 활용한다는 비율은 39.6%,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한다는 비율은 16.8%이었다.

교육청에서 진로를 강조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라고는 해요. 오늘만 해도 학교에 진로지도위원회를 만들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진로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게다가 ‘진로탐구 주간(직업세계 체험 주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됨)’을 정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주간이 우습게도 항상 스승의 날이 끼워져 있는 주로 결정해서 하달되니까 실제로 추진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또한 제가 알기에 ‘진로탐구 주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니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요. 이러한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아무래도 진로교육과 관련한 학교 차원의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초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A 교사)

■ 초등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각종 연수를 통한 학습이 유일한 경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초등교사의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높이는데 각종 연수를 통한 학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난 두 교사 모두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강조하였다. 진로교육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교장·교감이나 부장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교과의 개설, 신규교사 연수나 1정교사연수 등의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진로교육에 관한 과목의 개설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초·중등진로교육연구회가 있어요. 그런데서 여름이나 겨울에 연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버로 연수를 많이 해요. 그 직무연수 과정 중에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개설된 것이 있으면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찾아서 듣죠. ... 최근에는 학교에 직접 오셔서 교사 연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이러 이러한 좋은 연수를 해드릴 테니까 불리만 달라, 공짜로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다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평교사가 아니라 부장 선생님이나 교장·교감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진로교육에 관련된 것을 넣거나. 신규교사 연수나 1정 연수, 이럴 때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 강좌라도 넣으면, 이런 연수는 모든 교사가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야하는 연수니까 소양함양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A 교사)

이러한 형식적인 형태의 진로교육 연수 이외에 단위 학교나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학습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겪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단위 학교나 지역 단위의 학습조직이 효용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 교사는 이러한 학교 자체적인 자율연수나 교과별 연구회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교과연구회도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 연구회가 있으면 전체 연구원에서 운영되는 국어교과 연구회가 있고 교육청 별로 지부가 있거든요. 지부별로 3월이나 4월초에 총회를 해요.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데, 그거는 되게 형식적인 것 같고, 그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관련이 되는 그런 임원들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 같아요. 진로교육연구회도 있고 지역별로 지부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B 교사)

최근 초·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A 교사

는 전문가 집단 양성을 강조한다. 그는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촉진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 교사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여러 학교에 ‘숨어있는’ 전문 인력들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교 진로담당교사가 정말 진로 쪽으로는 전문적인 소양이 있으셔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교 진로교육은 누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A 교사)

저도 연수를 진행하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는 해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접하시는 입장이라 겹치지는 않겠지만, 많은 연수를 받아왔는데 더 심화된 내용을 듣고 싶으실 경우에는 찾아갈 만한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강사로 참여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진로교육 내에서도 전문 분야별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같이 나누고 널리 퍼트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연결(네트워킹이나 인력풀 정보)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조직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B 교사)

3. 결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도 발견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지금까지 양적인 수치로 보고되던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두 명의 초등학교 교사, 특히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이

나 실천 경험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러티브 탐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양적 데이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맹영임·임경희, 2008; 오호영·이지연·윤희한, 2005)에서는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보여지는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은 교과서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내용에 국한된 형태로 운영된다. 게다가 ‘일부러’ 진로교육과 연계된 교과내용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 진로교육계라는 업무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담임교사 중심의 수업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떠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아직까지 비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교사들은 T자형 인력을 선호한다고 한다(정남식, 2007). 20개 교과 정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 모든 교과를 두루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높은 관심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로교육에 높은 관심도와 전문성을 가진 초등 교사도 분명히 활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면 이들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이 구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초등 교사가 진로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길 기대하기보다는, 소수의 정예부대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는 중등학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로교육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서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중심의 수업환경도 초등학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차이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중등학교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독특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장애 요소들이 극복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 요소에는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 관행이나 많은 학습량 등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할 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이나 관심과 같은 미시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모델이 모색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천적인 모형이 구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9호, 별책10].
- 김남오(2000). 초등학교원의 진로교육 수용현황과 개선방안. 교육논문집, 22, 69-81.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 나승일(1999).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진로교육학회(편),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pp. 253-280). 교육과학사.
-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2). 재량활동시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I: 초등학생용.
- 맹영임·임경희(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인식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무숙 외(2004). 초등학교의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69-93.
- 서주희(2005).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지각 및 수행 실태와 아동의 기대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인수(2008). 초등학생 진로교육의 새로운 접근: 가계도를 활용한 진로상담. 초등교육연구, 21(2), 49-73.
-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범(200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실과교과서 진로영역 개발방향. 실과교육연구
- 이종범·정철영(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요인구조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3), 1-13.
- 이춘식(2005). 제7차 교육과정의 실과 교육내용 적정성 평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1), 1-15.
- 임복순(1999).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식(2007).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제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체제 구조에 관한 연구(pp. 123-130). 교육인적자원부.

- 정모근·정재영(2001). 초등학교 실과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4(1), 143-164.
- 정성봉·송현순(2002). 초등 실과 교육의 학문적 기초 연구. 실과교육연구, 8(2), 101-125.
- 정수교(2004).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평가.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유현(2002). 실과 교육 목표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이론적 체계의 구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2), 1-19.
- Watts, A. G.(1991). The concept of work experience. In A. Miller, A. G. Watts and I. Jamieson, *Rethinking Work Experience* (pp. 16-38). The Falmer Press.
- Hoyt, K. B., & Wickwire, P. N.(1999). Career education: Basic concepts and current status. In A. J. Pauler, Jr. (Ed.), *Workforce education: Issues for the new century* (pp. 49-63). Ann Arbor, MI: Prakken Publications.

제2절 초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서송이

1. 초등학생 내러티브 탐구의 의미

초등학생은 진로정보와 선택의 시작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며, 반드시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다. 아동의 기본욕구는 호기심인데, 호기심은 탐색활동을 통해 충족되며, 이러한 탐색활동은 중요한 진로발달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이재창, 2008)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호기심과, 호기심이 충족되는 과정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진로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관심 분야가 자주 바뀔 수 있다.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할 때, 흥미분야의 변화나 미결정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과 직업세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목표로 동기화된 학습경험을 통하여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교육은 학령기, 또는 특정한 시기의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일생 동안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추어 향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임언 외, 2006), 일선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진로개발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학교 진로교육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인 초등학교 고학년은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재창, 2008),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거나, 부모가 인식하는 각 가정의 사회적 위치 혹은 각 직업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연령대이기도 하다. 직업에 관한 정보는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는 내용이나 친구들과 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대부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초등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한 진로교육이

학교 내외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진로교육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에 관하여 의미 있는 접근을 시도한다. 즉, 진로교육 운영 실태와 희망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생생한 내러티브를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방향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세 초등학생의 진로교육 이야기

이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초등학생은 ‘재능이, 독립이, 현실이’이고, 아래의 일정에 따라 각각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 및 현재 진로교육과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식, 희망하는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4> 초등학생 인터뷰 진행 일정

구분	일시	인터뷰 내용
1 차	2008. 5. 2(금)	재능이-1회기
2 차	2008. 5. 9(금)	재능이-2회기
3 차	2008. 5.16(금)	현실이-1회기
4 차	2008. 5.23(금)	독립이-1회기, 재능이/독립이-그룹회기
5 차	2008. 5.30(금)	현실이-2회기
6 차	2008. 6.18(수)	독립이-2회기, 재능이-3회기

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재능이의 진로교육

재능이는 강남지역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으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될 때마다 마치 불꽃이 일어나듯 호기심이 생기는,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학생이었다. 인터뷰 내용보다 오히려 연구자와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친밀감 형성에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운동에 뛰어난 편이고, 바이올린을 6년 동안 연주하고 있으며, 인기 있는 연기자의 꿈도 갖고 있다.

- 다양한 활동과 경험은 ‘언젠가 정말 하고 싶어질 일’에 대한 준비다.

재능이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도 아주 많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실제로 다 해보는 편이다. 또 일단 시도하면 곧잘 해내는 편이며, 특히 예체능에 강하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다.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나한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이 많을 것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다. 학교성적은 중간정도이지만, 언젠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정을 발휘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 진로교육은 부모님의 교육관과 외부교류를 선호하는 학생 성향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재능이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어린이였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 또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라는 타입으로, 생활태도에선 엄격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재능이의 교육에 관해서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재능이도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거의 매번 끌리는 편이기도 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욕구는 오히려 재능이보다 강한 느낌을 줄 정도였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가 그러했다.

아버지는 재능이의 교육을 어머니에게 일임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셨으나, 해외어학연수나 유학에 관해서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편이다. 이는 해외유학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아버지 자신의 경험 때문일 거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가 배우고 싶은 건 엄마가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라는 재능이의 말과 같이, 이미 취학 전부터 많은 교육을 접했다. 영어유치원, 운동, 악기 등 재능이가 배우고 싶은 것,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그에 관한 대화로 ‘사교육 중심의 학교 밖 진로교육’이 시작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사람마다 잘 하는 쪽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거.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노력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배우게 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못하는 걸 해도요, 한 가지를 딱 정해서 노력하면 잘 하게 되잖아요. 꾸준히 하면요, 꾸준히 하면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게 되고, 더 하면 또 어려운 걸 하고 그러다보면 선생님(expert의 의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2008. 5. 2. 1차 인터뷰/ 5. 9. 2차 인터뷰)

일찍이 사교육이 시작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교육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자녀에게 ‘노력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으며, 자녀교육을 일임 받은 어머니는 일단 시작한 교육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즐겁고 편안한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진로교육

재능이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직업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적당히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관심분야라도 일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재능이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재능이의 특성상, 일 생활과 별도로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거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 나중에 잘 하게 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면요.(2008. 5. 23. 그룹 인터뷰)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꿈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선택보다는 안목을 키워가도 좋을 시기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다.

나.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독립이의 진로교육

- 다섯 살, 선생님께서 사주셨던 장수풍뎅이가 곤충학자의 꿈으로!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고 싶다”

독립이는 재능이와 같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다른 반 남학생으로,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똑똑하고 자기표현이 확실한 친구로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 전에 재능이로부터 전해 들었다. 곤충학자의 꿈을 가진 독립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단한 면모가 느껴졌다. 곤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제 2의 직업을 병행하더라도 곤충에 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섯 살, 한글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장수풍뎅이를 키우며 곤충학자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독립이는 어린 시절 도심이 아닌 자연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곤충을 보고 자랐다. 미래에 곤충학자가 되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산 근처에 농장을 지어 곤충을 키우고,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진로교육

“누구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길 것이다”

자신의 장래희망이 확실한 만큼, 누구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지 않겠냐고 말한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또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진로

교육 활동을 강조하고 희망하였다. 독립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걸 아예 안 가르쳐 줘요.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친하게 지내가지고요, 나중에 같이 일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모여보고 싶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취미가 똑같은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가르치던지 그런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에 흥미를 안 잃고요, 더 좋아할 수 있게요,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어요.(2008. 5. 23. 1차 인터뷰/ 6. 18. 2차 인터뷰)

부모님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진로에 관한 독립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영어 및 과학 학습과 관련된 활동 또한 다양하게 지원해주신다. 독립이는 자신의 진로에 관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강요하시는 건 아니었고, 독립이 또한 어머니의 의견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하여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모님께서 돈 벌려고 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옛날에 화학공부를 했는데, 반도체 회사 다니세요. 근데 반도체랑 화학이랑 좀 다르잖아요. 좋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2008. 6. 18. 2차 인터뷰)

위의 이야기는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투잡을 해서라도 좋아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자신과는 달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짐작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독립이 아버지의 전공인 화학은 반도체 분야의 세부 업무

에 따라 관련 전공에 속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한 대화를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나눌 경우 또 다른 진로 경험이 될 수 있다. 만약, 현재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독립이는 현재의 자신감을 최고수준이라 스스로 평가했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지금처럼 노력을 해나간다면 당연히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현실이의 진로교육

■ 선생님, 기자세요? 전, 돈만 잘 벌면 돼요!

현실이는 강북지역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희망하였다. 학교에서 진로에 관한 교육이나 정보의 경험이 거의 없고,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이 바라시는 직업을 말씀하신 것이 전부인, 구체적인 진로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에, “선생님, 기자세요?”라며 질문을 던지던 현실이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에서, “좋아하는 거 별로 없고 돈만 많이 벌면 돼요”라고 말하는 현실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현실이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일, 좋은 직업, 직업선택의 이유, 일을 하는 이유, 현실이가 인지하는 부모님의 직업선택 이유, 직업인으로서의 즐거움, 행복해지는 방법은 공통된 답을 갖는다. 현실이의 답은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였으며, 무엇이 이토록 편향된 가치를 갖도록 했는지 그 배경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엄마는 공무원이세요. 퇴근을 하는데요, 저녁에 또 가세요. 그냥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하셔서요.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고요, 엄마 아빠가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 빌렸을 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2008. 5. 16. 1차 인터뷰 / 5. 30. 2차 인터뷰)

아버지는 모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입용자 특별전형으로 최근 교원이 되셨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셨다. 현실이는 평소 부모님의 잦은 은행대출 이야기에 막연히 돈이 많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 부모님께 직접 질문을 하진 않았다.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검사되라고 하셔서요. 돈 잘 벌고, 일도 좀 많이 하고 그거 밖에 없어요. 검사에 대해 찾아보거나 부모님이랑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서요.(2008. 5. 16. 1차 인터뷰)

부모님께서서는 현실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망한 직업을 권하셨다. 또한 막연히 직업만 권해주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니, 현실이도 직업이나 자신의 특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망하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현실이가 언급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업무가 많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인가의 여부 즉, 일자리 전망의 맥락이었다.

■ 적절한 생활지도와 관심분야를 구체화하는 진로교육

현실이는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 하는 편이었으나, 친구관계 등 생활면에서 약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힘들었던 마음을 풀어주며,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하는 부분을 격려해준다면, 하고 싶은 일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줄 알게 돕는 과정이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이는 가정 내에서 진로문제 이전에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지나치게 경제에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게 될 때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모두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 학생이었다. 비단, 현실이 뿐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혹은 다양한 경제사정을 지닌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포로수용소를 전 쟁놀이를 하는 것이라 아들 조슈아에게 설명하여 아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전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가정의 일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실제 경제 환경보다 훨씬 불행하게 왜곡하여 느끼는 것은 부모의 언행과 세심한 배려로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의 요소로서 경제력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 시기의 진로와 관련된 경제관을 바르게 갖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한편, 현실이는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교 내 진로교육으로 희망하였다.

3. 진로와 진로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요구 분석

가. 진로에 대한 인식 :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

세 명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흥미, 능력, 경제력이었으며, 개인적인 환경과 부모님의 가정 내 진로교육 성향 등에 따라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

- 첫째, “좋아하면 잘 하게 되고, 잘 하면 돈도 잘 벌게 되는 거죠!”

재능이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재능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을 하는 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으니까. 엄마야 빠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싶어요. 미래는요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기초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걸 하면 일할 때 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빨리 익숙해질 수 있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일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재능이 인터뷰 종합-2008. 5. 2 / 5. 9 / 6. 18)

재능이는 ‘흥미와 능력, 경제력의 순환’을 강조한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 잘 하게 되고, 결국 능력 있는 분야라면 경제력도 갖게 되며, 삶에 여유가 생기고 즐거워진다는 논리이다. 이 때 흥미만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분야에서 노력을 통해 능력을 신장시켜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확고하였다. 또한, 재능이는 진로선택 이전에 사교육과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둘째, “흥미 있는 일이 우선이죠!”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독립이의 기준은 ‘좋아하는 일’, 즉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결과로서 경제적인 보상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즐거움 등이 뒤따르게 되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재밌어하고 좋아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을 하면 돈도 벌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고, 좋은 데서 살고요, 돈도 많고요, 또 나중에 커서 엄마도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장래희망을 정하진 못했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찍어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흥미 조금 있는 거 그냥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 청소부나 하던지. 일단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거 알아보고요, 힘들 것 같으면 다른 거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끈충은 힘들어도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돈을 너무 조금 번다면 끈충 일 하면서 다른 일 또 하면 돼요. 정말 오랫동안 관심 갖고 좋아하는 거라면 바뀔 것 같지 않아요.(독립이 2008. 5. 23. 1차 및 그룹 인터뷰)

독립이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경우 현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간다면, 당연히 능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분야에 따라 경제력의 차이만 발생한다는 입장이었다. 흥미분야를 지향하는 것은 재능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능이는 재능이 없으면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능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했으며, 여기서 독립이와 재능이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독립이에게도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만약 돈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직업을 병행해서라도 좋아하는 일은 꼭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일을 목표로 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초 활동과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 셋째, “경제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현실이의 우선 가치는 ‘소득수준이나 일자리 전망’이다. 진로선택에 있어 돈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는지 현실이의 이야기에서 직접 들어보자.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잘 살려는 거고요, 잘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검사가 되고 싶지만, 나중에 검사가 돈을 보통으로 벌게 되면 또 새로운 직업으로 바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려고요.

일하는 거는 돈을 버는 일이고요,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할 뿐이니까요. 직업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하는 일이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일만 아니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현실이 2008. 5. 30. 2차 인터뷰)

현실이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기초역량은 필요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잘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재능이의 의견과 구별된다.

세 학생이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비교해보면, 세 학생 모두 흥미, 능력, 경제력을 언급하지만, 그 핵심은 다르다. 재능이의 핵심은 흥미, 능력, 경제력의 순환구조이며, 흥미와 능력 중 무엇이 먼저 오느냐에 대해서 흥미라고 말하지만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 즉, 좋아하는 일 분야에서 노력하면 잘 하게 되고, 능력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좋아하게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독립이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일은 있고, 그 일을 할 때 즐겁다는 것이다. 현실이의 핵심은 경제력이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싫지만 않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할 것이라 말한다.

나. 학교 내 진로교육의 인식 : 현실과 이상의 간극 좁히기

▪ 진로교육, 누가 먼저여야 하는가?

물론 학교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현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연구 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아직 양쪽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쪽의 이야기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학생의 내러티브]

선생님이 관심을 안 가져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관심도 안 가지실 텐데요. 관심을 가지신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에 흥미를 안 잃고요,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독립이 2008. 5. 23. 그룹 인터뷰 / 6. 18. 2차 인터뷰)

선생님들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거나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그냥 공부만 잘 하는 거.(현실이 2008. 5. 30. 2차 인터뷰)

[교사의 내러티브]

사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 대부분 선생님들이 생각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학부모들도 없는 것 같아요.(교사 A)

“어차피 관심도 안 가지실 텐데요, 관심을 가지신다면...”이라고 원하는 형태의 관심을 표현하는 독립이의 이야기에서, 결국 교사의 관심을 바라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라는 교사의 말은, 요구가 있다면 노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진로교육에 관한 시도는 누가 먼저여야 하는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라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이 정해지므로, 학생의 요구 이전에 학교 및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생활을 종합하는 진로교육

교육인적자원부(2007) 7차 교육과정자료¹¹⁾의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은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

11)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1).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 별 교육목표와의 관계

넓은 학습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내러티브와 맞물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진로교육에서 지향하는 ‘흥미를 우선으로 하는 진로교육’만이 아니라, ‘능력의 관점’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러티브에서 재능이가 기대하는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관심”은 ‘___을 잘 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하고 살려서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에 대한 가이드이다.

선생님은요, 우리의 성적을 아니까요, 만약에 사회를 잘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너는 수학을 잘 하니까 수학천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생활을 보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얘기해주는 건 좀 그렇고요, 한명 씩 얘기해주는 거요.(재능이 2008. 6. 18. 3차 인터뷰)

즉, ‘현 시점에서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가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종합하여 가능성을 제시하고, 개발이 필요한 능력을 지도하는 진로교육’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능력을 키우고, 개발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개척이 가능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일방향이 아닌, 소통하는 진로교육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의무적인 진로 관련 교과활동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진로교육 실태에 관한 재능이와 독립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재량활동은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면요, 맨날 한자만 쓰고 그래가지

고 완전 지루해요. 논술이냐요, 그런 거 하는데요, 다 재미없어요. 할 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선생님 맘대로 바뀌서 공부해요. 장래희망도 쓴 적은 있는데요, 근데 그냥 뒤에다 붙이고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건 학교에서 맨 처음에 쓰게 되어 있나봐요, 다른 반 애들도 다 썼거든요.(독립이 2008. 5. 23. 그룹 인터뷰)

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은 장래희망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쓰고 나서 붙여놓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거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반의 특별한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같이 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무슨 테스트를 해서 직업이 나왔는데요, 그냥 엄마 보여 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따로 선생님이 한 사람씩 말해주면 좋겠어요. 엄마를 같이 상담해주는 것도 좋을 텐데.(재능이 2008. 6. 18. 3차 인터뷰)

위의 이야기에서도 읽어낼 수 있듯이, 일 방향적인 진로교육이 아닌 ‘소통하는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사 또한 가시적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진로교육의 모호함과 답답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통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부 지도안이나 전문 인력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 학교 내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분석

■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의 가능성

초등학생들은 이론적인 진로교육을 쉽게 지루해 할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나 교과 지식을 진로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시간에 진로와 관련하여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재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랑 연관 지어서 하니까요, 그 수업이 더 쉬워지고요, 모르던 것도 많이 알 수 있잖아요.(독립이 2008. 6. 18. 2차 인터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랑 관련되었다라든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건 다 지루할 것 같고요. 뭔가 제가 해보는 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가 되면 재판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현실이 2008. 5. 30. 2차 인터뷰)

외국 선생님이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선생님이 다른 과목 가르치고 그런 거. 그러면 영어공부도 되고 과학 공부도 돼서 좋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따로따로 배워도 되긴 하지만요.(재능이와 독립이 2008. 5. 23. 그룹 인터뷰)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유형은 ①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 ② 특정 교과에 일부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③ 교과에 통합(infusion)하는 방법, ④ 교과 외 활동을 통한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최동선 외, 2005), 세 초등학교의 이야기는 일부 교과의 단원에 포함하거나 보통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 교과 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흥미와 능력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관심분야를 탐색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곧 진로탐색이며, 그러한 과정을 조력하는 활동이 곧 진로교육 활동이 될 수 있다. 위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립이의 교과통합에 대한 의견은 교과에 대한 흥미와 진로에 대한 흥미를 동시에 높여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유형(최동선 외, 2005)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현실이가 말하는 교과통합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탐색과정과 직접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을 구조화된 커리큘럼으로 택하는 것이다.

한편, 주5일제 실시로 인하여 진로교육 시간으로 자주 활용되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전반적으로 시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을 별도의 단원 또는 교과로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예

상되며, 교과를 통한 통합적 진로교육이 실시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임언 외, 2006)에서도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 특별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 후 활동의 활용

주제별 활동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과 후 활동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시각 또한 부정적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 조금 보고 하면 돼요. 나가서 피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 쓰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 시간에 선생님이 한명씩 상담해주는 거 하면 돼요.(재능이 2008. 6. 18. 3차 인터뷰)

특별활동에는 책 읽을 때도 있고요 보통 국어 같은 것도 쓰고 선생님 마음대로 인데요, 그건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활동으로 학교에다가 곤충 전시실을 차려놓으면 애들이 오고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취미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요.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말도 잘 통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관심분야가 같은 애들이랑 모여서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좋아하는 애들이 과반 수 이상 아니면, 제가 좋아하더라도 안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꼭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을 불러주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건 괜찮아요. 인터넷에서도 봐도 되긴 하지만요.(독립이 2008. 5. 23 그룹 인터뷰 / 6. 18. 2차 인터뷰)

특기적성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수업시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현실이 2008. 5. 30. 2차 인터뷰)

독립이의 말처럼, 관심분야가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진로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관심을 구체화하는 역할’이라 현실이가 설명했듯,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도울 수 있다. 즉, 관심 있는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라. 학교 밖 진로교육

■ 미래의 진로에 미치는 사교육 및 취미활동의 영향력

학생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라면 사교육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이나 활동경험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힘을 키워갈 수 있다. 또한, “한번 해봤고 힘들다는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시작하면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재능이의 표현에서, ‘풍부한 자원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학교 밖 활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재능이와 독립이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자.

제가 바이올린을 몇 년 동안 배워서 잘 하게 됐으니까 가능성도 높은 것 같고요. (재능이 2008. 5. 2. 1차 인터뷰) 배웠던 건 대부분 재밌었어요,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추억이 돼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신감도 생겨요. 만약 따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방과 후 활동이나 스카우트 활동 같은 걸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자신감은 생겼을 것 같아요. 스케이트도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가 한번 배웠으니까 더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어려운 걸 하게 되더라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봤고, 힘들다는 그 마음을 알고도 시작했으니까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관련된 거 하는 거에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능이 2008. 5. 9. 2차 인터뷰)

저는 곤충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곤충을 키웠으니까 나중에 연구할 때 그 경험으로 잘 키울 수 있잖아요.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연구가 쉽고 그럴 것 같아요.(독립이 2008. 5. 23. 1차 인터뷰) 학교공부 외에도 관심 있는 걸 따로 배우게 되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연구 같은 거 할 때요 다 알아두면 좋잖아요. 곤충학자가 되려면 영어도 잘 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서요.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를 해도 수준이 낮으니까 마찬가지로요.(독립이 2008. 5. 23. 그룹 인터뷰)

한편, 긍정적인 사교육의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관찰하여 적절하게 피드백을 해주어야 의미 있는 진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정 내 진로지도와도 연계된다.

■ 외부 정보 중 텔레비전과 인터넷 정보의 활용

인터넷을 활용한 외부 정보는 단편적인 지식 검색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외부 정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낮았다. 외부 정보 활용의 장점으로는 정보탐색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단점으로는 전문성과 정확성의 부족을 이야기하였다. 텔레비전을 직업의 검색 통로로 활용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직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된 건 TV를 많이 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도 연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구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외부 정보는 주로 컴퓨터를 봐요. 단어 찾으려고 사전 보고요, 숙제하려고 네이버, 꿀맛닷컴, 학교 사이트 주로 보고요. 정보를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서 100% 완벽하다고 믿진 않지만 그냥

박요.(재능이 2008. 6. 18. 3차 인터뷰)

책보는 거 외에는 인터넷을 보는데요, 네이버를 주로 보고 가끔씩은 구글 같은 데서도 보고요. 학교에서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또 모르던 게 많잖아요. 단점은요, 전문가가 쓴 게 아니라서 자세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 걸 봐서, 똑같은 게 많으면 그건 정확한 거잖아요.(독립이 2008. 6. 18. 2차 인터뷰)

매체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진로정보탐색 및 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망을 제공하는 활동도 진로교육이 될 수 있다.

■ 가정 내 진로교육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녀의 특성이나 성장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진로의식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망 직업을 부모가 선택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 몰라도 되는 게 많은 아이’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체험 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구조화된 부모님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 부모님의 모습이나 상호관계를 통해서도 진로의식 형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러티브를 살펴보자.

부모님이 먼저 검사되며 좋겠다고 말해서요, 저도 그냥 그쪽으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현실이 2008. 5. 30. 2차 인터뷰)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건 학원에 돈을 내줘야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려다가 못하면 그냥 회사에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했던 검사 결과 보셨을 때는 엄마가 ‘너는 장래 희망이 이거구나, 이렇게 예술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좋았고요, 그 일이 해보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제가 직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아빠 월급은 얼 만큼 받아?” 이러면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전 자세한 걸 알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얼 만큼 돈을 버는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회사 일을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재능이 2008. 6. 18. 3차 인터뷰)

미래에 관해 얘기하면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좋아하면서 찾고 그런 거요. 엄마랑 아빠가 곤충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못 키우게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정보 같은 것도 더 많이 얻어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독립이 2008. 6. 18. 2차 인터뷰)

위의 내러티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가정 내 대화나 경험이 초등학교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과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는 초등학교 자녀가 폭넓은 교양을 갖추면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4. 결론

진로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내러티브의 공통점은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너무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교육 정책 책임자,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교사 등의 ‘진로교육’이 초등학교에게는 다소 어려운 접근이었을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진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주체인 초등학교들은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진

로교육을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지에 관해 그들의 직접적인 내러티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에 대한 인식 및 진로선택 기준은 환경 및 가정 내 진로교육 등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진로선택기준으로는 흥미, 능력, 경제력 등이었으며, 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세계를 즐겁게 탐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는 진로교육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내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의 운영에 있어 의무적인 진로 관련 교과활동 시간도 필요하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가 파악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종합하여 가능성을 제시하고, 개발이 필요한 능력을 지도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가시적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진로교육의 모호함과 답답함을, 일방향이 아닌 소통하는 진로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었다. 교과수업내용과 진로 연계, 단원 내 직업분야 시연활동,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과학과 같은 타 과목 수업듣기 등과 같이 학생들의 요구가 비교적 구체적이며,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통합형 진로교육과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특별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 운영이 용이한 방식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식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내러티브의 내용처럼, 관심분야가 같은 초등학생들끼리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진로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관심분야를 구체화 할 수 있다. 다만, 주5일제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은 줄어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밖 진로교육에서는 가정 내 진로교육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학교 밖에서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다. 긍정적인 사교육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선택에 있어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공저(2007).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Ⅱ. 서울 : 학지사.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69-93.
- 이재창 외 공역(2008).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임언·최동선(2006). 『진로교육의 과제 :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페이퍼.
- 최동선 외(200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3 장

중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제1절 중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내러티브 탐구

정연순

1. 세 중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

이 장에서는 진로상담부장을 맡고 있는 세 명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중학교 진로담당 교사에 대한 면담은 200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명은 1회, 다른 2명은 2회씩 면담하였으며 각 면담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여기에서는 면담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교사 경력, 진로교육 실행 경험, 진로교육 실행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재구성되었다.

가. 김성호 교사¹²⁾

김성호 교사는 사립 여자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과 교사로 현재 진로상

12) 연구 참여교사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담부장을 두 번째로 맡고 있다. 처음 진로상담부장을 담당했을 때인 6년 전의 진로교육 활동은 지금보다 간단했다고 한다. 학년별 수준에 맞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명하며 약간의 집단 활동을 더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학년 당 연간 4시간 정도가 할애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틀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어왔고, 이에 더하여 연간 하루 진로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작년부터 그가 진로상담 부장을 맡으면서는 활동을 다양화하고 시간도 늘렸다. 1학년을 대상으로 창의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6시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진로교육 프로그램(일명 커리나비, Care-Navi)에 학부모 20여명이 참가하도록 했으며, 학생들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일명 잡스쿨, Job School)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서부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커리어 코치 제도를 교내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30여 년간의 교사 경험은 진로교육에 대한 그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는 진로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아이들이 자신을 잘 알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합한 목표를 세워야 학습 동기도 생기고 삶 전반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점수를 높여 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리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아이들이 “모든 것을 꿰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진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우선 아이들이 자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오면 공부에 굉장히 중압감을 받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다가 학교, 중학교에서 첫 시험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꿰고 음악, 미술, 태권도 모든 걸 다 꿰고 오로지 공부, 그 다음에 학원.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그걸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것이 맞으니까 그걸 맞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모든 걸 꿰고 모든 공부를 다 열심히 해서 1등만 목표로 한다든가 이게 되어 버리는 거 같아요.(김성호)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지도를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그는 다방면으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상담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때에 한 공부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연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담당 교과인 사회과 연수뿐 아니라, 컴퓨터 활용, 상담, 논술, 독서, 진로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수에 참여하면서 항상 “도태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또 사회과 교사로서 경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 예컨대 미국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의 한국 도입에 관한 기획과 자문활동, 상공인연합회와 진행한 전교생 용돈절약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교과를 활동중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능력을 형성해 왔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과 학습 경험들은 진로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풍부히 갖추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풍부한 사회자원 목록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연결하여 활용하는 노하우를 길러 왔다. 교육청이나 경제인연합회의 공모에 신청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원 상담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집단 상담을 진행하도록 마련하였다. 연간 6차시 운영되는 1학년 진로교육 교재도 ‘경제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교재를 가져다 쓴 것이다. 진로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여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그의 언급을 통해 그간 형성해온 진로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의욕적인 활동에 비하면 그것이 학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진로교육이 그저 진로상담부라는 한 부서의 일로만 인식되고 학교 전반의 교육과제로 중시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학생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담임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초 10여명 규모의 진로탐색 프

로그랩을 기획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신청자 모집을 당부했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그가 직접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담임교사들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설득하지 않고 단순 공지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고 진단하는 그는 담당 부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담임교사의 진로교육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 간에 공유된 인식이 없는 것이 그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교사 “혼자 날뛰는” 일이 되기 십상이라는 그의 언술에서 의욕적인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진로교육 담당자가 학교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중요하다고 인식이 공유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저 높은 뭐가 좋아 저렇게 날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중략)... 대체로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계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욕심있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면 알아서 그냥 하계끔, 그러니까 선생님 자율적인 것은 좋은데 그것의 약점은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공통된 중요한 인식이 공유되는 그런 것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중략)... 인식의 공유가 없고 혼자서 날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김성호).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학업성취도 진작을 제일의 교육 목표로 삼는 풍토 속에서 진로교육은 선택사항으로 여겨질 뿐이다. 따라서 진로상담부서의 활동도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직을 맡은 교사의 역량과 의욕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그가 진로상담부를 맡았을 때 처음으로 추진했던 활동들이 다른 교과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보직으로 맡는 지난 6년 동안 흐지부지되거나 명맥만 유지해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김성호).

교사들 각자가 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과 수업 운영이 학교 교육의 근간이기 때문에 교과 외 활동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을 강조하게 되면 교사들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진로상담 부서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학교 경영자의 적극적 후원이 없이는 교사 간 역할 분담이나 기존 관행을 조금 넘어서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나. 박양선 교사

도덕교사인 박양선은 올해 처음 진로상담 부장을 맡으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전까지 진로교육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담임을 맡은 학생지도와 교과 수업에 소홀해질까봐 부장 교사를 맡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올해 진로교육에 전문성과 의욕을 가진 교감이 새로 부임하면서 진로교육을 학교 전체의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게 진로상담 부장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연간 창의재량 시간 중 4시간, 적응활동 중 3시간, 매주 월요일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한 30분간 등을 진로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진로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을 실시하라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보다 더 많은 시간이라고 한다.

업무를 맡은 이후 진로교육 관련 교재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는 진로교육이란 것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해오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나 그가 맡은 도덕 교과는 10대들의 삶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장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규 단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도덕 시간에 언제나 하고 있는 게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덕 교과도 그중 하나이다. 박양선 교사는 1학년 도덕 시간에는 ‘자기존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진로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학년 도덕 시간에는

‘진로’ 단원이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련 수업 자료들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로정보 사이트인 커리어넷을 이미 활용하여 1학년에게는 수행 평가 과제로 커리어넷에서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학년들에게는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어른들을 만나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것을 방학 과제로 제출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직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로 현실을 알아가는 데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박교사는 진로교육을 수행한다는 특별한 인식 없이도, 교과외의 한 영역으로서 진로에 관한 자료를 찾고, 수업과 연결하여 제공하고, 관련 과제를 내주고 통합하는 활동을 이미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교사의 경험과 노하우는 진로교육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는 다양한 자료를 탐색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하거나 목적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해서 진로지도를 연계한 교과별 지도안 샘플을 다운받아 제공하거나, 진로교육시범학교 보고서를 활용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나 EBS 등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물을 진로교육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창의재량 시간의 일부를 진로교육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기존의 자료를 가공하여 총 4시간 분량의 수업 자료로 개발하여 담당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찾으려 노력하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교사들이 탐색 방법을 모르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열거한 자료 목록에는 비단 직업 뿐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탐구를 담은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 경영층의 후원과 강교사의 책임감 및 노하우가 결합되어 강교사가 몸담은 중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활발히 진로교육이 운영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 계획과 운영 기획이 교사들의 협력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자 맡은 교과 수업 준비로 모든 교사들이 바쁘기 때문

에 진로교육 기획은 전적으로 진로상담부장의 몫이다. 그런데 자신이 아직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상태에서, 학교 전체의 진로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

학교 일의 특성이 사실은 그 부서의 일이 맡겨지면 그 부서에서 안이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해야되요. 진로교육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안을 받고, 서로 토론하고 그건 좋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게 나 혼자의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중략)...사실은 저도 진로교육을 잘 모르는 형편에서 하려고 하니 까 한계가 있죠.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맡으면 책임감을 갖고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그 한도 내에서 잘 해 보이려고는 애를 쓰죠.(박양선)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올해 상담 연수를 신청한 상태이다.

다. 민숙인 교사

민숙인 교사는 30여년 경력의 국어과 교사이다. 올해 들어 처음 진로상담 부장을 맡았지만, 오랜 교사 경력으로 학생지도의 경험은 대단히 풍부한 편이다. 보직을 맡기까지는 의식적인 진로교육 활동을 했다기보다 담임교사로서 진학지도나 반별 특별활동 지도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는 편이 적합하다. 교직 경력 중 그가 손에 꼽는 진로교육 관련 활동으로는 연간 두 차례 진로체험의 날 운영하는 사회기관 방문 체험학습이다. 학급별로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서 방문·견학하고 도덕 교과와 보고서로 제출하여 수행 평가 점수를 주는 이 활동은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담임교사로서 몇 차례 기관 방문을 이끈 그는 이것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체험학습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관의 무성의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가 몸담은 중학교는 강북 지역의 사립학교로 진로교육 활동이 미미한 편이다. 학교 경영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재량 활동 시간도 진로교육에는 할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진로상담부장으로 그의 활동은 지금까지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어서 작년까지 다른 교사가 해오던 활동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진로상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연 1회 선배 초청의 날을 운영하여 성공한 동문들의 특강을 마련하는 일, 가끔 온라인 상담에 답변을 하는 일 정도가 민속인 교사가 하고 있는 진로교육 활동의 전부이다. 그는 진로교육 관련 사례나 정보에 대해서도 어두웠고 연수를 받은 경험도 없었다. 다만, 최근에 진로와 직업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진로 전문 연수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이다.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진로교육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오랜 경험 속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발전해 왔다. 이 문제의식의 축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고려이다. 진학지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졸업생들을 지켜본 그의 경험으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이 반드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진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다. 또 최근 10여 년간 아이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방식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대단히 강하다. 아무리 의미를 담더라도 지식전달식의 교육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방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더구나 진로교육이라면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가 요즘 아이들은 묘사하는 키워드는 무기력이다. 학교와 학원에 지쳐서

생각하기를 멈춘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의미를 진지하게 전달하려는 진로교육은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강의 방식의 진로교육은 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체험과 적극적 활동을 통해 학습과 삶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방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방학이 되면 하루에 평균 7시간 이상씩 컴퓨터 게임에만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깨워내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교과 교육보다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다면 아이들에 맞는 진로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강의라는 게 요새는 애들한테 별로, 그 듣고 강의, 이런 게 별로 안 먹혀요(민숙인).

민숙인 교사는 소속 학교의 진로교육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진로교육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학교 분위기를 꼽는다. 교사 구성의 변화 없이 운영되는 사립학교로서 학교장이 소신이나 의지를 가지고 강한 추동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개별 교사들에게 진로교육 관련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교과를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잡무처리에 바쁜 교사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의 관심은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과 후에도 교과수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진출은 곧 성적순이라는 전반적 사회분위기를 학교가 경쟁력 강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로교육이 설 자리는 별로 없다는 것이 김교사의 진단이다.

설혹 교사들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인가 시도를 하고자 하여도 수업부담이나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실제로 각종 행정 처리와 합창대회 같은 학교 행사 준비 때문에 교사들은 “잡무하는 짬짬이 수업한다”고 할 정도로 분주하다. 교과별로 가르쳐야 할 분량은 많

고 각종 행정처리 업무와 학교 행사 진행에 시간을 뺏기다보면, 별도의 지시로 내려오지 않는 업무들은 열외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교과 수업과 학업성취도 제고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 풍토와, 행정 처리 중심의 근무조건 속에서 진로교육은 교사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만약에 진로체험을 나가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한테 백프로, 참여시켜 가지고 활동적으로 하게 하려면 진짜 많은 계획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일이 많아서 앉아가지고 인터넷 탐색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무에 시달려서 짬짬이 수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민숙인).

민숙인 교사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안이 정해지고 이것이 행정 지침을 통해 개별학교에 가이드라인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이 학교에서는 창의재량 활동 시간에 정보통신, 보건윤리, 국제문화, 다문화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진로교육을 위해서도 할애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장학사를 통해 교무부장에게 지적사항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어차피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힘들고 집단상담 같은 실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한다는 보람을 느낀다할 지라도 근무시간 이외의 과외 시간이 드는 등 희생이 크다.

2. 교사들이 지각한 진로교육의 현실과 가능성

이 장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진로상담부장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면담 참여교사들이 진로교육 경험을 통해 겪은 변화, 둘째는 면담 참여 교사들이 인지한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진단 등을 분석하였다.

가. 교사의 변화

■ 진로교육 개념의 확장

학교교육 전반의 풍토 속에서는 교과교육이나 진학지도에 비해 진로교육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교육활동을 한다. 면담에 참여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진로상담부장을 맡기 전까지는 별다른 고민이나 실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로상담부장으로서의 경험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의미와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진로교육이 아이들의 삶 전반에 개입하여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핵적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민숙인 교사는 진로교육이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며,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교교육이 ‘바른 교육’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박양선 교사는 진로교육이 특정한 영역을 넘어서서 교육 전반에 편재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영역이라기보다 이제까지 여러가지 이름으로 수행해온 교육활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의 희망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진로교육의 개념을 학교교육 전반으로까지 확장한다.

우리가 진로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진로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진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생활지도나 뭐 환경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진로교육이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모든 분야에 전부 다 녹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라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교육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진로교육 자체는 계속 하고는 있죠.... 결국은 학교교육이 바로 진로교육이죠(박양선).

면담 참여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범위를 진로선택이나 정보탐색과 같은 영

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삶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활력과 태도, 학습 동기의 회복 같은 것들이다. 이중에서도 학생의 긍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학교가 발달단계상 계열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교직 경험과 진로교육 노하우의 통합

면담 참여교사들이 그간의 교직 경력 속에서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모든 경험을 통합하면서 진로교육의 노하우를 발전시켜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 교육 등 사생활에서 겪은 경험까지를 진로교육 활동에 통합하는 과정을 겪는다. 면담에 참여했던 세 교사들은 모두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들로서 교육 활동에 대한 자신들만의 레퍼토리를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이는 진로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방법론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성호 교사는 학교 밖의 자원을 탐색하고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진로교육 기회들, 경제단체의 프로그램 지원 공모전, 자원봉사 상담가의 활용 등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적합한 접점을 찾아 시행한다. 면담 참여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진로상담부장인 그는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음 번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진로 체험의 날 직업 현장 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였지만, 알차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오전에 진로관련 특강을 듣고 오후에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박양선 교사는 교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업 자료로 제시했던 노하우를 진로교육 활동에도 고스란히 활용하고 있다. 비단 직업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학습이나 삶 전반을 대하는 가치와 태도에 관

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주어진 시간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숙인 교사는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아이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던 경험과, 교회활동에서 친교를 위해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담 활동에 적용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점을 발굴하고 그것이 꽃피우도록 북돋우는 것이 우선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상담활동을 한다.

셴(Schön, 1983)은 매뉴얼로는 답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직업적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성찰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라고 불렀다. 풍부한 교직경험에서 나온 방법들을 진로교육에 통합해가는 세 교사들은 성찰적 실천가들이라 할 수 있다. 면담 참여교사들의 인식대로 진로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편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면 교육경험의 통합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 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취약한 관점

면담 참여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이 대부분 교과 외 활동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과 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안목이나 관점은 취약한 편이다. 교과 수업에서 진로 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거의 고려해보지 않았고, 있다하더라도 교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생활이나 사회의 흐름과 관련된 교과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진로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보다 학문 지향적인 교과에서는 진로교육 연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이 강하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³⁾.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단원을 편성하고 있다. 도덕, 사회, 기술·가정 같은 과목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교사들도 담당할 교과에 따라서는 수업 시간에 진로를 다루는 것에 대한

13) 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된 교과(진로와 직업)를 통한 방법, 특정 교과에 일부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 교과 외 활동을 통한 방법(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이 그것이다(이지연 외, 2007). 이중 독립교과 방식은 고등학교만 해당된다.

경험의 차이가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도덕교사인 박양선은 담당 교과에서 진로와 관련된 단원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나 그는 수업시간보다는 교과 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훨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김성호 교사는 경제를 다루는 단원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해 내용 진로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과는 역사부터 지리까지 워낙 방대한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 교과이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교과 진도에 쫓겨 진로교육을 교과 내에서 다룬다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 민숙인 교사는 더구나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어 교과 내에서 진로교육을 연계한다는 고민을 할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경험의 틀에서는 아직 교과 통합 진로교육의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적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 교사들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과별로 소화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 계열화된 학문 지식 이외의 내용들은 통합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나. 학생의 반응

■ 진로발달의 유예 혹은 퇴행

진로교육과정은 진로발달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다양한 진로발달 이론들은 여러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성숙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선형적 발달 가설을 취한다는 점에 공통성이 있다(강재태, 2005).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과정도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결정 등 순차적 발달을 상정한 진로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최동선, 2006).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인적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문화 속에서는 성장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의 도모나 진로에 대한 탐색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들의 내러티브에 담긴 중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분석해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퇴행하거나 적어도 진로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유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학년들은 창의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이해나 진로 탐색 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관심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는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성적의 압박이 커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활동에는 관심을 돌릴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호 교사는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3학년을 대상으로 기획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3학년과 2학년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 운영에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별로인 것 같아요. 금년에 하는 1학년 상대로 하는 창의적 재량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2, 3학년으로 갈수록 공부 성적에 직접 관련이 안 되는 거는 점점 관심이 적어지더라고요. 1학년은 아직은 학과성적 자체가 성적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아직은 교사가 말하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래서 1학년들은 아주 거기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그런데 2-3학년으로 갈수록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적 시험에도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 관심이 떨어지고(김성호).

‘성적이 곧 적성’이라고 인식되는 현실에서 성적에 발목 잡힌 아이들은 더 이상 진로에 대한 관심을 차단해 버리고 성적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 성적이 높으면 선택의 폭이 커지지만, 성적이 낮으면 그러볼 수 있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의 판단기준은 오직 성적으로만 수렴되는 것이다.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일종의 꿈이잖아요. 그게. 고민을 하죠. 1학년 때는 그래도 다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 굉장히 현실화되거든요. 성적이 딱 그냥 아이들을 안 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현실이 되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라는 그래서 좌절하는 애들도 있어요. 3학년 때는(박양선).

■ 성공 중심 진로교육 패러다임이 초래하는 무기력

교사들의 내러티브에서는 성적 중심의 경쟁적 교육풍토 못지않게, 성공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도 아이들의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진로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직업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를 초대해 직업특강을 듣는 것이다. 그러한 성공담들이 자극을 주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그러나 수많은 시련을 뚫고, 경쟁을 견뎌 삶과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수의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지 모르지만, 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이로 비춰지고, 심지어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심어주기 십상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진단이다. 교육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식의 성공담들은 경쟁적 사회풍토 속에서 살아남은 ‘특별히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됨으로써 아이들의 무기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진로 발달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대사를 지낸 바 있는 학부모나 기자 출신의 동문을 초청했던 직업특강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준 것 같다는 민숙인 교사의 언술에는 객관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해도, 학습자들에게 야기되는 교육 효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분석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 특강이]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저희들이 듣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패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런 건 내가 해봐야, 내가 할 수 없다. 그래도 비교적 엘리트 집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진로체험에.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가 없지 않나.(민숙인)

민숙인 교사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장점 쓰기에는 하나도 기입을 못하고, 단점쓰기에는 칸을 다 채우는 아이들을 보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계속되는 성적 압박과 성공담 위주의 진로교육 내러티브 속에서 아이들이 부정적 정체감과 패배감을 형성해 간다는 문제의 식인 것이다.

▪ 활동 중심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

아이들이 언제나 무기력한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내러티브에서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두 가지 경우이다. 우선 ‘자기 탐구 활동’을 할 때이다. 진로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되새겨보고 집단 활동 속에서 의견을 나눌 때, 사춘기의 여러 증상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등이 이런 활동들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체험 활동’과 관련된 경우이다. 직접 움직이고, 만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작지만 계획과 의논과 협력이 일어나고,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에서 아이들은 활기를 띤다. 특별활동 중 요리반 지도를 맡은 민숙인 교사는 어떻게 인생을 꾸려갈까 걱정될 정도로 수업시간에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요리를 하면서 보이는 활기와 나름대로의 능력들에서 다시 희망을 본다고 했다.

교사들의 언술에서 드러나는 진로발달의 유예나 퇴행은 성적중심의 경쟁적 교육 풍토에 기반하고 있어 진로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험은 아이들의 삶이나 생활을 연결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좀 더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문제를 개선해 가는 길임을 말해준다.

다. 학교 진로교육 운영의 현실

▪ 담당교사의 개별적 실천

연구 참여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보면 진로교육에 의욕과 능력을 가진 교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별 부서 활동에 머물 뿐 학교 전체의 호응을

얻거나 전반의 문화로 파급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진로교육이 학교 전체의 중요 과제로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임무는 부서 담당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맡겨지고 있다. 학교는 개별 교과목 단위로 시스템이 운영되며 교사들은 표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에 맞추어 학년별 진도를 나가기에 바쁘다. 독립 교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 연계 진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 중에 따라 움직이기” 바쁜 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별다른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강했지만, 그들의 적극적 부서 활동이 자칫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는 비단 진로교육 뿐 아니라, 부서 영역으로 맡겨지는 범교과 활동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

진로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 때문에 그냥 저 혼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박양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의식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 피해가 아니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면 제가 좀 그쪽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김성호)

선생님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감은 안 느끼게 하면서도 필요성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연수할 기회가 생긴다든가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부족하다면 외부 강사 분들을 모셔서 하고, 아이디어가 주어진다든가 제가 그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김성호).

타 교사들의 교과 수업이나 담임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교사 개인의 책임감과 역량 문제가 되어버린다. 진로상담부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진로교육은 실시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수적 교육활동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창의재량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도 기획과 준비가 해당 수업 담당 교사의 몫이라기보다 진로상담부장의 몫이 된다. 2시간 혹은 3시간짜리 수업 분량의 자료를 패키지로 만들어 창의재량수업 담당 교사에게 내용 진행을 ‘부탁’한다는 박양선 교사의 언술은 진로교육이 진로상담부장의 개인적 역량과 실천에 좌우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평균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선생님들이 창재를 담당하세요. 창의재량활동이요. 그 선생님들은 사실은 나는 이 분야에 어떤 뭔가가 특별한 관심과 뭔가가 있어서 이걸 하겠어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특별히 힘들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담당하시기도 해요(박양선).

■ 학교장의 진로 교육 ‘마인드’가 관건

진로교육이 학교의 주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참여 교사들이 유독 강조하는 것은 교장 및 동료교사의 진로교육 ‘마인드’이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과 같은 교과 이외 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 운영은 학교장의 관심이나 인식이 있어야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교과 이외의 활동 지도를 맡는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별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조적 참여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이는 교사와 학교경영자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부족을 진로지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송인섭 외, 2006). 민숙인 교사는 학급 지도에서도 충분히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담임교사들이 진로교육 ‘마인드’를 갖출 경우 정식 교과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성호 교사 역시 담임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

금만 높여도 학교 진로교육의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숙인 교사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학교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단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박양선 교사는 진로교육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감이 부임함으로써 진로 특성화학교를 추진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단위 학교의 책임자가 진로교육을 중시하는 일이 현재와 같은 실정 속에서는 가장 관건임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소위 범교과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교과 이외의 시간에 진로교육은 부서 담당자의 개인적 책임에 맡겨진 임의적 교육활동이 되기 십상이며, 교과 체계에 속하지 않는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자 및 교사들의 진로교육 관련 인식을 높이는 과제가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진로교육 체계화의 필요성

그러나 교과 수업과 행정 지침으로 움직이는 학교 체제에서 교사나 학교경영자의 관심과 인식만으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을 노련한 교사들은 간파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학교 전반의 교육과제로 상정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의적재량활동을 진로교육에 할애하도록 하려면 최소한 장학사를 통해 교무부장에게 지적사항으로 와야 학교가 움직인다거나, 진로교육이 교과교육과정 내에 특정 단원으로 편성되어야 모든 교사들이 자기 역할로 인식하고 진로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지적들은 결국 행정구조와 교과구조에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3. 논의

이상에서 중학교 진로상담 교사 세 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내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개약진식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이 담당부서의 개별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교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 각자가 담당 교과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교과 내용에 담기지 않은 진로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한 교과 교육은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고 점수나 진학과 관련되어 있어 특정 교과를 제외하고는 진로교육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 전반의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와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모델과 아울러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업 지도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개별 단원의 지식들이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지식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 제공과 아울러 수업 방식에 대한 지침까지 담은 지도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을 결정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 중 하나가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며, 진로 교육은 이에 기반하여 학교급 별로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적극적 진로탐색, 진로개척 등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연 외, 2007). 여기에서는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와 선택이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진로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학습자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교육이다. 학습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삶의 전망을 세우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데에 관여하는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삶에 대한 탐구, 특히 교육대상인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변화에 대한 고려와 반영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내러티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

로 발달이 어떻게 굴절되는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로교육 과정은 주로 심리적 발달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변화가 현재 청소년들의 생활과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진로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학교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진로교육은 개발된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참고용에 불과하고 주로 교과 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들마다 자료를 찾는 활동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자료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자료에 관한 정보의 부족, 수업 시수 등 학교별 교육 여건에 적합한 활용성 높은 자료의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로 상담 부장 교사를 비롯하여 교사들 모두 각자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은 또 다른 손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맞춤형 자료의 형태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 4시간 운영용 교육 자료 패키지, 실업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패키지, 동영상을 활용한 진로교육 가이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못지않게 그것을 일선 학교에 알리고 활용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재태(2005).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경상대학교 출판부.
- 송인섭, 김봉한, 조대연, 임언(2006). 교과통합형 진로지도 모형개발과 적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최동선, 이혜숙(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chön, D. A.(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NY: Basic Books.

제2절 중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정연순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하여 두 명의 중학생을 면담하였다.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을 면담하겠다는 계획으로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학생들을 찾았는데, 한명은 연구자 자녀의 친구이고, 다른 한명은 면담한 교사가 소개한 학생이었다. 둘 다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로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며, 다른 한명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다.

남학생인 명랑이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아버지와 한방 다이어트숍에서 일하는 어머니 그리고 3살 위인 형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부모님과 관계는 비교적 친밀한 편으로 느끼나 오히려 형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성적은 반에서 중하위권으로, 공부에 별 관심이 없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장래 희망은 가수이다.

여학생인 또록이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어머니, 중학교 2학년인 남동생과 한 가족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는 또록이는 현재 자신의 일 대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고자 하며, 부모와의 대화는 거의 없는 편이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학급에서 반장을 맡아 학교 행사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성실하고 성적은 중상위권이다. 방송에 관심이 많은 또록이의 장래희망은 방송국 프로듀서이다.

2. 두 중학생의 진로 이야기

이 장에서는 중학생 두 명의 진로 탐색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장래 희망과 준비,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학교 진로 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가. 명량의 진로 이야기

■ 장래 희망: “가수는 쉬운 직업인 거 같아요”

명량의 장래 희망은 계속 변해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가, 그 다음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을 때는 월드컵이 한참일 때였으며, 검사는 텔레비전에 멋진 직업으로 나오고 돈도 잘 번다고 해서 되고 싶었다. 한때 역사가에 흥미를 느낀 적도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금방 포기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중학교에 와서 했다. 명량이 생각하기에 가수는 “힘들지 않은 직업”이며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쉬운 직업”이다. 초등학교 때는 제법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중학교에 와서 급격히 공부에 흥미를 잃은 명량은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택하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가수는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명량에게 아주 끌리는 직업이다.

연구자: 왜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얘기해줄래?

명량: 그냥 노래하는 게, 노래하고 싶어서. 그냥 쉬운 직업인거 같아요.

연구자: 가수가 쉬운 직업인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

명량: 제 생각엔 쉬운 직업인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 쉬운 직업인 것 같아?

명량: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2008년 5월 25일 면담내용)

부모님은 명랑이의 진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와서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체육으로 관심을 돌리고, 관련된 진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제안하셨지만, 명랑이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 엄마 아빠는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하시니?

명랑이: 아빠는요 제가 운동 쪽으로,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저희 삼촌이 태권도 관련 일을 하시거든요. 도장 차리시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랑 제가 운동 했으면, 꼭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운동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구요. 엄마는 또 운동인데 좀 달라요. 엄마는 체육 선생님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운동 시키려고 하세요.

연구자: 그래서 헬스클럽도 다니는구나.

명랑이: 네. 헬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태권도도 다녔구요.

연구자: 그래. 태권도도 다녔다고 했지. 그게 삼촌네 태권도 도장이었구나.

명랑이: 네. 여러 가지 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러고

연구자: 근데 부모님이 체육을 시키려고 하시는걸 보니까 네가 체육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니?

명랑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체육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그렇다고 명랑이가 가수가 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를 양성하는 기획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일주일에 한두번 노래방에 가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크게 따라 부르기를 하는 정도이다. 본격적인 준비는 일단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가수 후보자 채용 오디션에 응시하고 합격한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자신에 대한 이해: “공부하는 직업은 안 맞아요”

명랑이는 스스로의 재능이나 적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적은 별로 없다. 학교에서 몇 가지 자기이해 관련 검사를 실시했지만 같은 반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그렇듯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아쉽다거나, 그 결과가 궁금하다거나 하지도 않다.

명랑이의 학습 효능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에 와서 치른 첫 시험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 부모님에게 성적으로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흥미를 잃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적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이후에는 공부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직업은 자기에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지만, 명랑이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성적을 올리는 데에 성공한 경험을 몇 번 해보았고, 이로 인해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편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면 기꺼이 감수해낼 수 있다는 것이 명랑이의 생각이다. 가수가 되기 위한 재능도 지금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한 훈련을 거치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가수가 되기 위한] 너의 재능은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해?

명랑이: 아직은... 아직은 다 못 미쳤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거치면 그런 재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해?

명랑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너의 어떤 점을 보고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

명랑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야지 직성이 풀려서, 그게 공부든 뭐든 다 했거든요. 여태까지(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명랑이와 그의 친구들은 쉬운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안정된 직업들을 갖고 싶어한다. 2학년 초에 명랑이네 반 아이들은 담임교사의 제안으로 자기 꿈을 적어서 책상에 붙였는데 교사, 기자, 엔지니어, 스타일리스트, 호텔리어 등 여러 가지였다. 아이들끼리 모여서도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한다. 하고 싶은 직업은 다양해도 명랑이가 친구들과 나누는 꿈 이야기는 대개 돈을 많이 벌자는 것으로 모아지고는 한다.

연구자: 애들이랑 꿈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

명랑이: 처음에는 기자가 되서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한 다음에 CEO가 될 거야. 뭐, 그런. 근데 과정은 얘기해 본적이 없어요. 같은 직업이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얘기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할거야, 이런 얘기만

연구자: 그런 얘기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같니?

명랑이: 돈. 그리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 길어서 수입이 많거나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돈 같은데요? 그리고 안정된 직업인지 그런 것도 있고(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면에 적성이 맞아야 한다거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누어 본적이 없다. 직업이나 진로정보를 특별히 찾아본 적도 없다. 인터넷과 집안 어른들의 이야기는 명랑이와 친구들이 직업세계를 알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가수가 되는 길은 인터넷에 올라온 가수들의 인터뷰나 기사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직업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친척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라도 결론은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로 끝을 맺는다.

연구자: 선생님이 되려는 애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명랑이: 선생님이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안정된 직업이고 정년퇴직 기간도 있으니깐.

연구자: 너희들도 정년퇴직 기간이 있는 걸 알아?

명랑이: 네. 삼성이 45세인가? 48세인가 45세라던데....

연구자: 친구한테 들었어?

명랑이: 아니요. 어른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거. 삼성 정년퇴직 기간이 45세라는 거. 삼성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나서는 연예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얘기해 주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등 주로 어려운 현실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명랑이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명랑이는 “돈 있고 뺨 있어야 가수된다”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편견”이거나, 최소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직업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이제 막 가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명랑이에게 아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 넌 [연예 기획사 등]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었니?

명랑이: 인터넷이나... 그리고 저희 아빠가 00대학 나오셨는데요, 방송국 피디나 소속사 직원들 아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종속계약을 해야 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냥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 진로교육 경험: “기억이 안나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학과 공부가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되면서 명랑이에게는 “귀찮고 짜증나는” 것으로 변했다. 공부가 재미없다보니 명랑이는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를 잃었다.

명랑이: 어렸을 때는 중 1때까지는 [수학이] 재밌고 편찮았거든요.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막 신기하고, 근데 이제는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산하기 귀찮고 짜증나요. 그리고 국어도 귀찮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국어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아직 잘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싫어하는 편이에요(2008년 5월 25일 면담내용).

친구를 만나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습 결과가 마음속에 남지도 않는 편이다. 특히 학교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진로교육 관련 활동들은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진행되었는지 기억해내기 매우 어려워하였다.

연구자: 학교에서 한 진로교육 중에서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줄래?

명랑이: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진로...근데 제가 좋아가지고...

연구자: 생각이 안나?

명랑이: 네.

연구자: 재미가 없었구나?

명랑이: 네. 그리고 청소하고 그래 가지구요.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애들이 막 난리피고 청소하고 그러느라고(2008년 5월 25일 면담내용).

명랑이는 개별적으로 수행한 진로교육 과제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다. 작년 여름방학 때 특정 분야의 직업인을 만나서 하는 일과 보람을 취재하는 인터뷰 과제를 수행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했고 대답을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연구자: 작년 방학 때는 누구를 만나서 보고서를 냈어?

명랑이: 누구를 만났지.....?

연구자: 일 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안나?

명랑이: 네. 아 누구를.....

연구자: 그냥 적어서 낸 것도 아닐텐데, 누구를 만났지?

명랑이: 그냥 회사원 같았는데....회사원.....(2008년 5월 25일 면담내용)

명랑이가 학교 교육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과 공부가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택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장래에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머리가 비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자: (학교교육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

명랑이: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는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대학가는 데나 고등학교 진학에는 쓸모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지만 고등학교 진학과정이나 대학교 수능 볼 때 공부 잘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 나와야 좋은 길이 열리고(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나. 또록이의 진로 이야기

■ 장래 희망: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또록이의 장래희망도 초등학교 이래로 여러 번 바뀌었다. 막연하게 “선생님”을 꿈꾸었다가 한때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모습에 반하여 검사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검사의 꿈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사촌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자신이 의외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유치원 교사가 될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는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으로서는 이 꿈이 앞으로 별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또록이가 워낙 방송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돌아온 늦은 시간에 꼭 텔레비전 프로를 챙겨보고 일요일에는 주중에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던 밀린 프로그램들을 챙겨본다. 방송 분야는 드라마이건 예능 프로그램이건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장래 희망을 선택하는 데에 어른들의 특별한 조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직업을 택하면 오랫동안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러면서 보수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야말로 직업 선택의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록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일단 제가 재밌어야 되요,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벌던 간에.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으면 좀, 직업으로 선택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그건

연구자: 보수는 중요하지 않아?

또록이: 보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는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하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직업을 유지 해야지 그만큼 보수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받게 되는 게 낮더라도, 열심히 하면 웬만큼 올라가니까. 그

건 가장 제가 흥미를 붙일 수 있을만한 일이어야 될 거 같아요(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 자신에 대한 이해: 적성에 대한 호기심

또록이는 자신이 어떤 재능과 적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지난 3월 달에 방송 프로듀서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업적성 검사를 스스로 해보았다. 방송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언어능력에는 비교적 자신이 있는 편이지만 자신이 창의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중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을 가진 또록이는 학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는 않고 있다. 대학입학에 대한 포부수준도 비교적 높게 잡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학교 공부를 제외하면, 이제까지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한 성공의 경험이 드문 편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피아노는 재미가 없어 억지로 시간만 보냈고, 중학교 때 취미로 시작한 스킨 자수는 한 작업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지구력과 끈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록이: 시험기간에 암기과목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 시간씩, 세 네 시간씩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완성했을 때 딱 보는 그 기분, 너무 뿌듯해요. 아 이걸 진짜 내가 했나? 너무 잘했다, 하하. 이런 정도? 그것 빼고는 항상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포기하고(2008년 5월 24일 면담내용).

자신의 단점을 직업과 연결시키면서 또록이는 프로듀서가 된다고 해도 드라마와 같이 매회를 찍으면서 긴 호흡으로 가야하는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에게 부족한 끈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록이는 요즘 자기 이해와 조절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일기 쓰기이다. 쓰면서 생각을 말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간다는 또록이는 일기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또록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일단 쓰면서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막 먹고, 소리 지르고, 제가 막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그게 좀, 그 사람이나 나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에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2008년 5월 24일 면담내용).

■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국문과나 신방과에 가야해요”

또록이의 친구들은 다른 또래들에 비해 비교적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 가끔 친구들과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 소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또록이와 친구들이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또록이는 어른들의 관여를 간섭으로 여기고 있고, 이 때문에 부모님과 그다지 관계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소원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진로와 관련된 조언이나 충고를 듣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을 거의 갖지 않고 있다. 또록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집단은 또래 친구들과 학원 교사이며, 직업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이들로부터 얻고 있다.

또록이: 학원 선생님이, 그 직업에 대해서요. 이런 장점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이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방송 피디 같으면 근무 시간도 좀 많을거고, 그 다음에 또 안에서부터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중요할 거라고(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다양한 꿈을 가졌다 해도, 중학교 3학년인 또록이와 친구들에게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는가,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록이는 진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특히나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컸다.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진로 문제는 결국 대학 입시로 연결되고, 경쟁적 교육 체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진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록이: 방송 피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국문과나 신방과를 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이 유리하다고 들어서. 그런데 연세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성적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영어가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대학을 갈 수 있을지가 가장 불안해요.(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 학교 진로교육 경험: “뭘 했는지조차 몰라요”

또록이는 학교 교사들은 진로를 상담하거나 의논할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업을 가르치기에 너무 바쁘고, 학생들도 너무 많이 대해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내밀한 경험을 털어 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렇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원 교사가 또록이에게 대화나 의논 상대가 되어준다. 학원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대하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아주는 편이라고 한다. 또록이가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직업의 특성을 말해준 것도 학원 교사였다.

명랑이와 마찬가지로 또록이에게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못하다. 학교에서 1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긴 시간 답을 적기에 지루해하면서 건성으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결과를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라고 한다. 또록이는 성실하게 작성

한 편이었지만, 검사 결과 중 자신과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어 역시 별로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도 학생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참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교과 외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학과 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학교에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록이: 하기는 하는데요.

연구자: 어떤 걸 했어?

또록이: 애들이 참여를 잘 안하구요, 그러다보니까 뭘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요, 1학년 때 적성검사 한 거.

연구자: 직업과 관련된 동영상도 보고, 방학 때 직업인들 인터뷰 같은 것도 해오고 그래?

또록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업체험 같은 것은요, 애들이,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 있다고 하면 그냥 가서 인터뷰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숙제인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숙제로 하는. 뭐 동영상은 보는 애들만 봐요.

연구자: 그럼 그 시간에 안보는 애들은 뭐해?

또록이: 선생님 몰래 떠들거나 자조. 하하(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3. 중학생의 진로 탐색 경험 분석

앞 장에서는 중학생 두 명의 진로계획과 탐색에 대한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내러티브에 드러난 진로 탐색의 특성을 분석한다. 한 사람의 생애 발달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중학교 시기는 일반적으로 진로 발달에 있어서 탐색 단계로 여겨진다(최동선, 2006; 정철영, 2004). 진로탐색은 제7차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중학교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 역시 장래 희망을 중심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었다.

가. 대중매체의 강한 영향력

두 명의 중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명랑이가 가수가 되고 싶은 것도, 또록이가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것도 텔레비전의 영향이 크다. 이들이 현재의 희망을 얼마나 지속시켜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얻는 정보나 이미지들이 이들의 진로탐색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들이 초등학교 시기 이후에 가졌던 대부분의 꿈들도 언론 매체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문제는 대중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서 출발하는 진로 탐색이 대부분 직업에 관해 조작된 이미지나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원은 너무 평범해서 싫고,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있고, 인기도 얻는 쉬운 직업인 것 같아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명랑이의 장래 희망은 청소년들이 스타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분석하는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M.)의 설명과 일치한다.

연예계에서 각광을 받는 스타가 아이들의 꿈이 되어버렸다. 이 요란한 스타들에 청소년이 끌리는 것은 우리 문화가 이들을 자리들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기술직이나 사무직은 재미없고 따분한 일로 여기는 반면 록가수나 프로 선수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여긴다. 우리 문화는 청소년의 머리에 박힌 이런 고정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현실을 은폐한다(칙센트미하이, 2003).

명랑이와 같은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화려한 스타나 일부 직업군의 사람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비현실적인 직업들을 찾아가려 한다. 노력하는 직업들은 따분하고 시시해 보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은 성적을 높여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예 교육적 성취와는 거리가 있는 진로를 탐색하게 되고 여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중 매체의 이미지와 정보들인 것이다.

나. 어른들과의 취약한 관계

진로교육의 목표는 몇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들은 대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선택과 계획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철영, 2004). 그러나 한 사람의 진로 탐색은 객관적 정보를 집적하고 여기에 자신의 특성을 조합시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진로 탐색은 수많은 관계들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맥락 속에서 행해진다. 특히, 일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사회의 생산적 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귀감이 될 만한 어른의 존재(칙센트미하이, 2003)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바이다.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받는 기대, 그것에 부응하려는 노력, 주변인들의 관찰과 조언, 의미 있는 타인들의 조력 같은 것들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참여 학생들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모두 취약한 편이었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또래 집단에서 오가는 이야기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오히려 진로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진로 역할모델이나 조언자로서의 교사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져 있었다. 또록이나 명량이 모두 교사들에게 진로 상담자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록이는 몇몇 교사는 교육에 열성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인으로서의 역할 모델로 삼는 것은 꺼려했다. 명량은 교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자: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어 하는 과목은 뭐야?

명량: 사회. 아, 제가 선생님들을 다 싫어해요. 애들한테 차별 같은 걸해서.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국사, 사회.

연구자: 어떤 차별을 하시는데?

명량: 수업시간에 자거나 떠들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걸리면 다 벌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만 나가라고 하고 수업도 못 듣게 하고 그런 거.

연구자: 이제까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없었어?

명량: 1학년 때도 없었구요. 아, 초등학교 때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진짜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는 다 별로,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2008년 9월 8일 면담내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명량의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가 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준다. 교과 성적이 초등학교 때보다 강조되고,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중학교 현실에서 교사들의 선호도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쏠리고 있다고 명량은 받아들인다. 상대적으로 양육과 돌봄을 강하게 받았던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성적이 관건이 되는 중학교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도 성적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는 진로를 탐색해 가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만한 어른으로서의 믿음과 권위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과 지식의 전달자로서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자이자 안내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심리검사로 국한된 자기이해 활동

자기 이해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목표이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이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식은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제안해 주는 것이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일의 경험과 이를 수행해 가는 자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심리검사가 가장 빈번하고 때로는 유일한 방식이 되는 이유는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간단하게 ‘test-and-tell’이 수행될 수 있다는 편리성,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 도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 속에서 자기이해 활동도 주로 심리검사에 제한되어 있었다. 또록이나 명량이 모두 학교에서 한두번씩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보기만 하였을 뿐, 별도의 해석이나 토론 등 추수 교육활동과 연결되지는 않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명량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하여 남학생들은 긴 시간동안 지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자체를 힘겨워하고 관심도 거의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여학생들은 심리 검사를 완수해 내는 비율이 높으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검사의 결과를 놓고도 또래 간에 상호해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또록이는 학교에서 얻은 정보로 직접 진로 전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스로 검사를 수행해보기도 하였다.

연구자: 네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니?

명량: 아니요, 별로.

연구자: 다른 애들은 어때?

명량: 한번하고 치워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연구자: 남자애들 하고, 여자애들 하고 좀 차이가 있니?

명량: 네. 여자애들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여자애들은 집중해서 하고, 잘 체크하고 질문도 하고 막. [결과 나오면] 나는 몇 개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여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2008년 6월 8일 면담내용)

또록이: [남학생인] 제 동생은 [검사 응답 문항을] 다 찍었대요 그냥. 그게 워낙 많고, 그러니까 지루하니까(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이러한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성별 차이나 특성에 따라서 자기이해 활동의

방식이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학생들에게는 지필 방식의 심리 검사가 자신에 대한 탐구를 위해 유용한 방식이 되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 속에서 자신의 특성을 알아나가는 것이 여학생들보다 특별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참여가 촉진되어야 할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체험보다는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현장과 일 체험이 교과내용과 연계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지연 외, 2005; 최동선 외, 2005; 이영대 외, 2004). 중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진로교육 경험도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지적과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도덕이나 기술·가정 등 교과의 단원 중 일부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사회 등의 교과에서 전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낯선 지식’이 아니라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고, 따라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명랑이는 도덕 시간에 했던 진로교육이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너무 딱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감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명랑이의 얘기를 들어보자.

연구자: 도덕에서 뭘 한 것 같아?

명랑이: 진로의 뜻, 정의 같은 것 가르쳐 주고.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간 것 같아요.

연구자: 그게 너한테 좀 도움이 되었니?

명량아: 아니요. 너무 딱딱해 가지고. 너무 당연한 정의 같아서 관심을 못 가졌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EBS 교육방송 자료인가 그거 몇 개 보여주고요. 그리고 박지성에 대한 것, 박지성 평발이라고 그런 것 보여주고. 그리고 정의 같은 건 딱딱하게 읽구요. 그냥 그런 것 보여주고, 뭐 읽고. 본문에 나온 것 읽고. 그런 게 다예요(2008년 6월 8일 면담내용).

반면, 지식 전달과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성찰, 그리고 재구성이 동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진로교육은 진로 인식을 환기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또록이의 언급을 들어보자.

또록이: 기가 시간예요, 그 진로부분하고 그 부분인데,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해가지고요, 나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자기 직업 같은 거랑 다 써서 발표를 해서 애들이 다 한 번씩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연구자: 열심히 했어? 아님 그것도 그냥 숙제야?

또록이: 지루해하는 애들은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도 있구요. 근데 거의 그런 거는 다 어쨌든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생각하고 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국영수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재미있어?

또록이: 아무래도 기가시간이 더 낫죠. 진로 쪽이 더 낫죠. 국영수는 재미있다고 보다는 이걸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또록이의 언술에서는 지식교과와 진로교과의 구분이 ‘강압적인 교육’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되는 지식의 성격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지만,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보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능동적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교육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교육효과는 매우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마. 교과 중심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독립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은 대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체 중학교 중 창의적 재량활동 내용의 하나로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7% 정도이며, 학교별로 할애하는 시간은 매우 다양하다(임언 외, 2005). 연구 참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주된 이유는 교과가 중심인 학교교육에서 범교과 활동인 진로교육이 아이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직업 관련 동영상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가 진행되는데 학생들은 “뭘 했는지조차 모른다”고 할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연구 참여 학생들은 교과는 성적을 위해서 배우고 익힌다는 생각이 강해서,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뜻을 설명해도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여지를 상상하지 못했다. 교과 공부와 자신의 삶이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으로 본격적인 대학 입시체제 전 단계에 있는 또록이는 진로와 관련된 불안감을 강하게 표현했는데, 그 불안감은 직접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결되어 있었다. 진로와 관련해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도 교과 공부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의미를 축소하여 답변하였다.

또록이: 하도 주변에서 대학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국영수만, 직업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해요(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또록이: [진로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냥 불안하기만 해요. 계속 걱정되고

연구자: 그럼 누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또록이: 음.. 영어? 영어, 영어요...

연구자: 응 영어를 잘 하도록?

또록이: 국어나 다른 과목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되겠구나란 것을 알겠거든요. 영어나 수학은 도저히 안 보이더라구요.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과목별로(2008년 5월 15일 면담내용)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진로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는 모호하고 이중적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자신이 가지는 진로 희망을 구체화시켜 가려고 노력하며 단편적이기는 하나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려 애쓴다. 학교에서 알려준 정보를 단서 삼아 스스로 직업 심리검사를 해보았다는 또록이나 가수 오디션 일정을 알아보고 있는 명랑이가 그러하다. 명랑이는 아이들이 가지는 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방법을 안내해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례를 보여주면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자신들에게 의미있게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자, 입시를 위한 경쟁 체제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어놓기 시작되는 때이다. 성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이제 막 시작된 자신과 진로에 대한 관심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또록이의 말

처럼 지식 학습에 의미를 붙여넣기 위해서도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은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경쟁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이 대부분인 학교 교육에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한 학생들의 진로 관심을 지속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진로교육일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바버라 슈나이더 지음. 이희재 옮김(2003). 어른이 되는 것은. 해냄.
- 이지연, 최동선, 이혜숙(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장홍근, 윤형환(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외(2004).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중앙고용정보원.
- 최동선(2006).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4 장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제1절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임언

1. 서론

현재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의 주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과 또는 기술·가정, 도덕, 사회 교과와 일부 단원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나, 제한적 내용만이 다루어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교과로서 「진로와 직업」 교과가 있으나 일부의 학생들만이 그 교과를 접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교사에 의하여 성의 없이 교과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교사들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진로교육의 경우, 행사 위주의 일회성 교육인 경우가 많으며, 토요일무체가 실시되고, 학교에 자율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섭·김봉환·조대현·임언(2006)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지도의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인식 부족(31.8%), 학교 경영자의 마인

드 부족(20.9%), 시간 부족(18.6%), 자료 부족(17.8%),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부족(1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서 학교 경영자 역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고 간주하여 통합하여 해석하면, 진로교육이 어려운 이유의 절반 이상(52.7%)이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학교장의 “인식”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교사 혹은 학교장과 교감이 진로교육을 중요한 것으로, 혹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로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현재 학교 교육 상황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우며, 목표와 내용 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등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로교육을 잘 해보고자 애쓰는 교사들의 사례가 있으며, 그러한 교사들에 의하여 진로교육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서 진로교육을 잘 해보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 동안 진로교육의 현황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진로발달 상황, 제도적 현황 등에 관한 양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이지연·최동선, 2006; 임연·장홍근·윤형한, 2005).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접근한 자료에서 조차 교사들을 주된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는 송인섭 외(2006)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간략히 질문한 것 외에는 찾기 어렵다.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치며 생활하는 교사가 실제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교사들 대상의 정기 간행물인 『중등우리교육』, 2005년 10월호에서 “진로교육에서 학교의 희망을 발견하다”라는 특집을 통하여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이 내실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다.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

급,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진로정보의 생성과 보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제반 요인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들이 실망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운영되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실행 당사자인 교사들의 실제 삶으로서의 진로교육의 실천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찾아내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그들이 진로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교과로서의 진로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타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들의 진로교육 실행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드러내는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진로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딪치는 어려움,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희망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은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을 연결하

여 유의미하게 연속되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복잡하고, 모호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차원적 층으로 에워싸인 인간의 경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접근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박민정, 2007). 첫째,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경험적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하면서 해석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요컨대, 우리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을 연결하여 유의미하게 연속되는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삶의 사건을 넘어 개인의 삶의 전체 이야기, 즉 삶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자아를 이해한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공조 관계를 강조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며,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야기의 의미구성에 동참한다.

연구자는 두 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진로교육 경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그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연구자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야기의 의미 구성에 동참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하여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 명의 참여자와 여러 번 만나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로교육을 잘 해나

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진로교육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열심이 선생님과 우직이 선생님이다. 열심이 선생님은 교직 경력 28년 차의 여교사로 현재 경기도 소재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열심이 선생님은 경기도 지역의 진로교육 담당 교사를 대표하여 진로교육교과연구회를 이끌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개발한 『진로와 직업』 교과서 집필에도 참가하는 등 진로교육 관련 경력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열성적인 진로교육 교사이다.

우직이 선생님은 서울시 강남 지역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23년간 근무한 남교사이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진로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왔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글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부모 대상 강의를 하는 등 활발하게 진로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교사이다.

다. 연구 과정, 자료 분석 및 타당화

연구자는 2008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각각의 참여자와 두 차례, 총 네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 회 면담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로교육의 목적과 기능,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에 대하여 질문할 것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틀은 기본적인 도구로서만 참고하였으며, 대체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무리하게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지는 않았다. 특히 각 참여자가 가진 특별한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 자료의 전체 내용을 다시 풀어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도출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의 타당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이 읽어보고 그 해석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동료 연구자들이 내러티브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자의 내러티브 해석 및 구성과정에서의 편향된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두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이야기

이 장에서는 두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각 교사들의 내러티브는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진로교육의 어려움, 교사의 전문성, 성공적 진로교육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가. 열심이 교사의 진로교육

▪ 교과 연구회에서 시작한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

열심이 교사가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9년도에 진로교육 교과연구회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잘 아는 분이 회장을 맡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원래 새롭고 궁금한 것들을 열심이 찾아보는 성향이 있어서 쪽 열심이 하다 보니 교과서 작업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열심이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도덕과 윤리이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관련성이 높다보니 더욱 더 열심이 진로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 늘 어렵다고 느껴지는 진로교육

“내가 오늘도 아이들 설득에 실패했구나!”

열심이 교사는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면서도 매 수업 시간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진로교육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진로교육이 단순히 지식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진로교육이 그러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매 시간 마다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진로교과는 뭐랄까 마음이나, 경향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잖아요. 그게 참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 동원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작업 같은 거예요, 저는 수업하고 나면 아, 내가 오늘 설득에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열심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이미 한정된 직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만 눈이 쏠려 있어서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간신히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정말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줄 직업을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이끄는 작업은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도 될 듯 말듯하다.

자기 자신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미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거든요.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원하는 직업들의 폭이 좁혀져 있어요. 조금씩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애들의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한다면, 방향을 동쪽을 보고 있는 데 서쪽을 보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죠.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이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이다. 그 속에서 열심이 교사는 그런 아이들을 자극해서 관

심 갖게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삶에 대한 목표라든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줘야 하는 데,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 답답해요. 학교에서 만나는 수 없이 많은 애들의 절반 이상은 다 자기는 이 수업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목표를 갖게 해주고 싶어요. 진로교육을 통해서. (2008 년 5월 8일 면담 내용)

뼈대가 안 세워져서 어려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로교육을 열심히 정말 애써서 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열심이 교사는 진로교육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열심이 교사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진로교육 교과서의 개발, 그 교과서를 위한 지도서 개발 작업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러한 답답함은 주변의 교사들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대우하면서 조언을 구하지만, 무엇인가 명쾌하고 체계적인 해답을 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로와 직업』 교과 자체가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진로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성향 또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학문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명확한 지식 체계가 있지도 않은데다가 국가 수준에서 합의된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체계가 수립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혼란스럽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안내, 주요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이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많다는 것,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교과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가르치면서도 뭔가 자신 없게 하는 것이 『진로와 직업』 교과 속에 내재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이게 학문은 아니지만 진로교육하면 이거, 이거, 이거는 딱딱 가르쳐야 한다는 체계라든가 정형화된 틀이 없잖아요. 경기도에도 교과서가 있지만 다른 도에도 교과서가 있고,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마다 다 편리한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로교육의 뼈대를 확실히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수학 같으면 사칙연산을 가르친다, 이 단원은 뺄셈을 가르친다고 하듯이, 진로교육의 어떤 영역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목표하고, 역량 같은 것을 동료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편하게 쉽게만 가르치려고 하는 동료 교사들

열심이 교사가 갖는 답답함의 또 다른 원인은 동료 교사에게도 있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도 없이 진로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일종의 “문외한”으로서 매우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고 있으나 교육이라는 활동이 교사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안내서에 따라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한계에 부딪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 순간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별로 안 느끼고, 가능하면 좀 어떻게 쉽게 그 시간을 수업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요령을 제게 물어보면,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뭐 결국 우리가 하는 교육이나 진로 교육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진로교육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그 의미를 희석해버리거나 어떻게 하면 그 걸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할 땐 힘들죠.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 그래도 진로교육을 하기 참 잘했다.

열심이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귀한 시

간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보다는 뭔가 찝찝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어려움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오랜 동안 진로교육에 몸담아 왔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며,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다. 열심이 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과 보람은 담임교사와 윤리교사라는 두 측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열심이 선생님이 맡은 학급 아이들은 다른 학급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평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은 자신이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제가 애들하고 부딪칠 때 다른 교사들하고 조금 달랐던 거 같아요. 제가 담임 맡은 아이들이 상이라는 상은 다 쓸다시피 하구요. 지금 고3에 올라가서 꼭 잡고 있는 출신들이 다 저희 학급 출신들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로교육을 제대로 해서 애들의 목표를 제대로 수립해 준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로교육을 잘 했다는 생각을 거기서 해. (2008년 5월 19일 면담 내용)

열심이 교사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속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있다. 최근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과반의 시민윤리 선택 교과를 담당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3학년 이과반의 시민윤리 수업은 대충 흘러가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 상의 순서와 다르게 학년 초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먼저 정성껏 다루다 보니,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과 연결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진지한 분위기는 그 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3이고, 윤리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특히 이과 받은 수능에서 윤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업태도가 참 좋아요.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의 의미,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3월, 4월동안 가르쳤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아이들이 방향이 많이 잡히고 더 진지해 졌다고 봐요.(2008년 5월 19일 면담 내용)

■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교과통합, 독립된 진로교과는 있어야 해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해서 열심이 교사는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열심이 교사는 실제로 경기도 진로교육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자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친 경험이 있었다.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고, 특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로교육 교과연구회에서 3년 동안 교과안에서 각각의 개별 교과안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전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와요. 각 교과의 단원에서 상당히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자료를 만들어 보았지만, 막상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각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고, 그 직업과 관련된 여러 부수적인 사항들을 수업하는 정도로만 주로 구성되더군요.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열심이 교사는 교과 내용을 진로교육내용과 연계시킬 경우, 그래서 교과지도가 잘 된 건지, 진로지도가 잘 된 건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통합적 접근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설사 교과통합적 방식으로 진로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독립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는 반드시 존속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실적으로 다른 교과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며, 둘째, 그나마 「진로와 직업」이 독립교과로 존재하기 때문

에 교사들이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로와 직업」도 하나의 교과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그것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요.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교과통합으로 가는 거지. 이 교과가 홀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과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모든 교과에 있으니까 흡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흡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진로와 직업」이 필요한 것은, 그 교과 목표 밑으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정렬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나. 우직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 교과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작한 상담, 그리고 진로 교육

우직이 교사는 물리교과 교사로서 10여년 넘게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특성이 많이 변하고,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지는 가운데, 단순히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것에는 일정하게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학교에서의 상담은 물론 진로상담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의 경우 오히려 전문적 임상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가 상담을 할 경우에는 진로 상담이 가장 핵심적인 학교 상담의 내용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인성과 관련된 문제조차도, 진로 교육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 학교,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매우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숙시켜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고, 이 모든 것이 진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2008년 5월 31일 면담 내용).

■ 진학위주의 박제화된 진로교육

진학상담이 우선되는 상담, 진학지도 위주의 진로지도

우직이 교사는 서울 강남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오는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진로교육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대학생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진학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진학 지도부라는 것이 별도로 고3담임으로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진학지도를 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진학 후에 전공과 학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저런 낭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기도 하였다.

생생함이 없는 박제화된 진로교육

우직이 교사가 볼 때,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박제화”되었다. 다시 말해,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활발한 토론이나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은 매우 양적인 정보들로서, 실제로 직업을 선택해서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담겨 있는 생생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진로탐색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직이 교사는 10 여년 전에 미국 연수를 가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든 기업과 직업인들이 일종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 지역 사회 내의 주요 직업 현장에 가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부러웠다. 따라서 우직이 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 사회 시스템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과서 안에 심리검사도 포함되고, 또 액티브한 토론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기 길을 변화하거나 선택을 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해나가는 액티브한 교과서가 되어야지 지식만 나열한 것은 인터넷에 가면 더 많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2008년 5월 31일 면담 내용)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 그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말하자면 생생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박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 7월 1일 면담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 인근에 있는 기업체라던가 공공기관은 학교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 업체에 가면 학생에 대한 박물관적인 자료가 있고, 또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가서 인근 자기 지역에 있는 직업현장을 방문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요. (2008년 5월 31일 면담 내용)

■ 삶의 여정에는 로드맵이 필요 합니다

우직이 교사가 일선에서 학생들을 접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전공이 잘 맞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이다.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공을 바꾸려고 하거나 방황하는 아이들을 볼 때이다. 우직이 교사가 볼 때, 진로교육이 잘 된다면, 이런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아이들은 좀 더

행복하게 인생이라는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생생한 정보를 담은 국가 수준의 진로에 대한 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진로가 있고, 그 진로를 선택해서 가더라도 굽이굽이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그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상세한 그림이 보이지 않다보니 당장의 성적과 진학에만 몰두하고,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에만 눈을 돌리고, 다른 길을 감히 모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폭넓은 로드맵이 있어서, 다양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안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길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더라도 이런 길이 있고, 또 여기서 시작하지만 또 다음 단계가 있고 라는 식으로 정확한 평생의 로드맵이 있어야 해요.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정거장에 대한 안내라고 할까요? (2008년 7월 1일 면담 내용)

우직이 교사가 볼 때,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각 직업에 대하여 로드맵을 그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생생한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직이 교사는 이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표하고 지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잘 못 탔을 때 어떻게 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시키는 친절한 진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정리되어야 하며,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직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갖는 소망이다.

▪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이해, 교과 통합적 접근은 어려워

우직이 교사가 보기에 진로교육의 중요한 내용 영역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자기이해이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별도로 ‘who am I’라는 1학년 교과과정을 두고, 자기이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알아야 제대로 자아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기이해가 긍정적 자아개념, 당당한 자신감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우직이 교사는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별도의 교과로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직이 교사는 교과통합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별도의 교과를 통하여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직이 교사는 교과통합적 접근에 대한 경험으로서 다양한 교과의 교사가 그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행사를 운영한 것과 연결시켰다. 교과 시간에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진로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자기가 그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직접 얘기해주는 시간을 마련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동문들 얘기도 해주고, 어떤 분야로 나가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시간 정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반복하거나 심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지요. (2008년 5월31일 면담 내용)

3. 진로교육의 목표와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앞 장에서는 두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진로교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은 무엇

이며, 어떤 보람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서 희망을 갖는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구성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현황,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수준에서 가능하다. 가장 크게 볼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진로교육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평생진로개발 5개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의 목표는 그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목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진로와 직업」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하고 교양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4]).

진로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적 계획 및 실천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과 측면이 공존하는 진로교육의 목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참여한 열십이 교사와 우직이 교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기주도성과 자신감, 자기이해, 정확한 정보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주도성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독립한 성인으로서 삶을 주도해 나가고 사회에 건강

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다. 또한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이 훼손되지 않고 신장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다 중요한 건, 넓은 직업의 범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좀 당당하게 여기면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2008년 5월 8일, 우직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

저희 학교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열심이 늦게까지 자기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진학에도 좋은 성적을 가져오더군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열심이 하는 학생들이 역시 진학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신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2008년 5월 31일, 우직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대한 선행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 자아 개념”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의도적인 교육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현재 사교육으로 촘촘히 학생들이 시간이 분할되고 진행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주도성을 미래를 위해서 담보로 내놓은 상태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미래에는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비교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아개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교육적 배려도 없는 상황이다. 보완과 보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 기반을 둔, 경쟁을 위한 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학업 성취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아이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훼손당하고, 이렇게 훼손된 자아개념을 회복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진로교육은 그들의 자기주도성, 긍정적 자아개념을 찾을 수 있을 것을 강

조하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심리검사가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진로교육의 중요한 내용 영역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자기이해이다. 초기의 진로교육 이론인 특성-요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교육에서의 자기이해는 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왔다.

저희는 특별히 ‘who am I’라는 1학년 교과과정을 두고, 자기이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진로와 직업대선에, 재량시간에 ‘who am I’를 운영합니다. 나를 알아야 제대로 자아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2008년 5월 31일 우직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지도가 안이하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의미 있는 교육 경험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장원섭, 2007; 임언 외, 2005). 심리검사에 기초해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을 짚겼겠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실증주의에 기초한다. 우선 개인의 특성을 제한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심리검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그러한 결과에 의하여 찾아진 특성에 맞는 직업이 있다는 가정, 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의 특성은 고정되었다는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특성과 잘 맞는 직업을 찾기만 한다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과 같이 현실을 매우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이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진로교육의 목표이며, 그것이 피상적인 자기이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아탐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심리검사가 갖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로서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한 번 보고 검사 결과표를 받아서 어디 났는지 모르는 애가 절반 이상이에요. 결과를 한 번 대충 보고 부모님에게 조차 안보여주는 학생도 있죠. 그렇지만 담임들 입장에서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 담임들도 한부씩 가지고 문제 되는 학생들은 지도를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직업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환기가 되죠. (2008년 5월 8일 열심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나 성격검사가 얼마만큼 심리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5월 31일 우직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

나. 「진로와 직업」 교과 7차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윤활유로서 이용되는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선택교과로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진로교육지표조사 결과(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교¹⁴⁾ 중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7.1%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52.0%가 「진로와 직업」 과목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조사 대상 학교 : 중학교 2,999개교, 고등학교 2,144개교

<표 5> 진로와 직업과목 채택여부 (단위 : 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아니오	1,757	(92.9)	444	(44.4)	261	(55.7)	705	(48.0)
예	134	(7.1)	557	(55.6)	208	(44.3)	765	(52.0)
소계	1,891	(100.0)	1,001	(100.0)	469	(100.0)	1,470	(100.0)

자료: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 진로교육지표조사. p.63

위의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진로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교과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하여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는 그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이 교과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소문은 무성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두 교사의 내러티브를 분석해보면,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사의 관심이나 전문성과 별로 상관이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분되고 있었으며, 사실상 내실 있게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든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이 이와 같이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현행 「진로와 직업」 교과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열심이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로와 직업」 수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성적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매해 수업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나눠서 합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진로와 직업」 교과 지도가 정말 재미가 있고, 사명감을 느끼기 때

문에 하고 싶다는 선생님은 매우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2008년 5월 31일 면담 내용).

「진로와 직업」 교과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전공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대충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고, 때로 필요한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시간을 빌려줄 수 있어서 일종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 교과 통합적 진로교육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인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며, 생생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사회에 건강하게 기여하는 직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목표가 「진로와 직업」 교과운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진로와 직업」 교과는 매우 제한된 학생들이 제한된 시기에만 접하게 되는 것이라면, 진로교육이 전 교과를 통하여 전 방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최근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다(임연·최동선, 2006; 송인섭 외, 2006; 최동선, 2005; 홍후조, 2008; 이지연·최동선·이혜숙, 2007). 진로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이 학습자의 삶에 어떻게 적절하게 관계되는가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문 교과의 학습 효과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진로교육은 그 목적이 단순히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이 여타 교과와 함께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의미하지

만, 통합의 수준, 통합의 제재, 통합이 제공되는 시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식으로 제시가 가능하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하는 학자들의 논의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교과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열심이 교사는 실제로 경기도 진로교육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자료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친 경험이 있었다.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고, 특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심이 교사가 교과연구회 작업을 통하여 시도한 교과통합은 주로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것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교과 통합적 접근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한 자료를 활발하게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하고 수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뒤따를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이다. 열심이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로교육 교과연구회에서 3년 동안 교과안에서 각각의 개별 교과안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전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와요. 각 교과의 단원에서 상당히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자료를 만들어 보았지만, 막상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각 교과의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고, 그 직업과 관련된 여러 부수적인 사항들을 수업하는 정도로만 주로 구성되더군요. (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열심이 교사는 최근에 국책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위하여 종전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도덕 및 윤리 교과와 진로교육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았지만, 그 결과가 얼마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다. 초, 중, 고에서 진로교육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원을 골랐고, 그 단원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진로교육내용과 연계시키고, 그리고 지도를 했지만, 그래서 교과지

도가 잘 된 건지, 진로지도가 잘 된 건지 애매했다는 것이다.

교과 통합적 접근에 대하여 열심이 교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데에는 앞 장의 내러티브에서 밝혔듯이 열심이 교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교과통합의 요체가 되는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혹은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 합의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열심이 교사의 윤리 교사로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교과 속에서 진로교육적인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수업이 훨씬 진지해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가 진로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교과에 대한 동기를 제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열심이 교사는 3학년 이과반의 시민윤리 수업 속에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진로교육과 연관 지어서 운영하는 시도를 해 본 결과 전혀 새로운 반응을 아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열심이 교사의 말을 들어보자.

고3이고, 윤리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특히 이과 반은 수능에서 윤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업태도가 참 좋아요.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의 의미,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3월, 4월동안 가르쳤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아이들이 방향이 많이 잡히고 더 진지해 졌다고 봐요. (2008년 5월 19일 면담 내용)

한편, 우직이 교사는 교과 통합적 접근에 대한 경험으로서 다양한 교과의 교사가 그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행사를 운영한 것과 연결시켰다. 교과 시간에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진로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에 대한 우직이 교사의 견해가 반영된다. 우직이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진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자기가 그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직접 얘기해주는 시간을 마련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동문들 얘기도 해주고, 어떤 분야로 나가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시간 정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반복하거나 심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지. (2008년 5월31일 면담 내용)

진로주간을 맞이하여 각 교과의 교사가 해당 교과와 관련된 진로를 안내하는 행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교사들이 한 시간 이상을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통 교과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교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 독립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은 교과 통합적 접근으로 대치되어야 하는가?

교과와 통합하여 진로교육을 운영하자는 것이 곧 독립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을 대치할 수 있는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교과가 운영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여 그 교과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두 교사의 입장을 종합하면, 교과 통합적 접근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의 실패 경험에 기초해서 선뜻 교과통합 접근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과통합의 방식으로 설사 진로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독립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교과는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의견을 드러냈다. 「진로와 직업」이 독립교과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다른 교과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진로와 직업」이 독립교과로 존속하기 때문

에 교사들이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열심이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로와 직업』도 하나의 교과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그것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요.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교과통합으로 가는 거지. 이 교과가 홀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과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모든 교과에 있으니까 흡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흡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진로와 직업』이 필요한 것은, 그 교과 목표 밑으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정렬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2008년 5월 8일 면담 내용)

『진로와 직업』 교과가 비록 그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일종의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활용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정하게 교과로서의 정체감을 유지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더 정교화 되고, 향후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교과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보다 내실 있는 교과 운영을 위하여 교과서 선택 기준,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진로교육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 전문성이다.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들이 실망하고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 연구는 교사들이 진로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딜레마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이로부터 생생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것의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 진로교육의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 교육 여건 속에서 진로교육을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 상,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진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불충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해주고,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길러 주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 자주 부딪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지식과 단편적인 정보로 구성된 교과서, 교사들의 열의와 전문성 부족,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수립하고, 생생한 직업정보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일터를 개방하고, 경험과 학습의 장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진로와 직업」은 교사의 관심이나 전문성과 별로 상관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 교과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교사들 간의 수업시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점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평가가 되지 않는 수업이므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장점을 가진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각 교과별로 시간이 할당되면, 해당 교과 내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목표로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주도성이 함께하는 자기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검사를 이용한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지도가 갖는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심리검사가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심리검사에 기초해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접근은 매우 고전적인 진로지도의 모형이지만, 그 저변에는 매우 순진한 가정들이 전제되어 있다. 제한된 시간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특성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 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식 위주로 구성된 교과서로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사로서 심리검사는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된다. 아이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고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교과 통합적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교과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본 본 연구 참여자들은 그것이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히 교과 전체 혹은 특정 단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수준의 교과통합이 진로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 통합이 단순히 해당 단위 또는 교과와 관련된 직업을 안내하는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일정한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 교육이 다른 교과와 의미 있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주제로 선정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합을 위한 통합을 위하여 소재를 발굴, 활용하기 보다는 각 교과별로 중핵적인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 교육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교과

의 내용요소와 진로교육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찾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는 정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지향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통합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 각 교과별로 중핵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진로개발 역량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를 창의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요청 된다. 각 교과의 관점에서 볼 때, 진로교육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교과를 위한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 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통합의 주제 혹은 소재는 각 교과 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범위 혹은 깊이가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결국 진로교육과 타 교과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이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학생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있다. 개별 교과와 진로교육이 관련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생에게 현재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와 진로교육 관련 내용들이 학생 개인의 삶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만, 그러한 요소와 각 교과가 통합되는 것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 1, 69-93.
- 송인섭 · 김봉환 · 조대연 · 임언(2006). 『교과통합형 진로지도 모형 개발과 적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 · 이지연 · 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운영(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 최동선 · 이혜숙(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 윤형한 · 장훈근(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 최동선(2006). 『진로교육의 과제: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페이퍼.
- 장원섭(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중등우리교육(2005). *진로교육에서 학교의 희망을 발견하다*. 중등우리교육, 10월호.
- 최동선(200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지침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후조(2008). 『교과통합적 진로지도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콜로키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정윤경

1.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경험 및 인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일(진로)을 인식, 탐색,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 전 교육부터 일생동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직업세계)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교과 논의와 더불어 진로교육과 교육과정간의 연계·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07년 현재 87.1%¹⁵⁾로 대부분의 일반계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혹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과연 진로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가 만연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계 고교생 입장에서 바라본 진로교육과 진로선택에 대한 내러티브탐구를 실시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의 수는 1,347,363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7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일반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87.1%에 달함.

가. 참여자의 특성 및 연구과정

이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섬김이 학생, 평범이 학생, 호감이 학생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섬김이 학생은 강북에 위치한 남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커리어넷 이용수기 공모에 당선되는 등 진로탐색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평소애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어머니의 권유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과 형이 1명 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 속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원래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절에 다니시거든요. 근데 절 이랑 봉사단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원받으실 분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봉사단체에 들어가셔서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 때 방학 때였어요. 근데 방학 때 집에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같이 봉사하러 가자고 권유해주서 가지고요. 같이 가서 일손도 돕고 같이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배달해 드리고, 물건도 들어드리고요.(2008년 5월 17일 면담 내용)

평범이 학생은 강북에 위치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보통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무남독녀이다. 부모님은 평범이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지지해 주시는 편이며, 직업을 볼 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학생은 커리어넷 이용수기 공모에서 진로탐색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섭외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본 연구에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호감이 학생은 강남에 위치한 남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이신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호감이 학생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지만 집에서는 자상하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시며, 어머니는 호감이 학생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지만 학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의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내러티브 인터뷰는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총 여섯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명의 학생 모두 진로교육에 관한 인터뷰에 성실하게 응해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세 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다. 섬김이 학생은 고1때 국어선생님의 권유로 장래 희망 직업인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변호사 직업에 관심이 있었으나 섭외가 어려워 다른 직업인을 인터뷰하였다고 한다. 또 기억에 남는 것으로 학교 선배의 멘토링을 들었다.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야간학습 시간에 방문하여 교과목 지도, 대학생활 및 학과정보 등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예요.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들이 오시는데요. 대부분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이 좀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선배를 학교에서 연결을 시켜줘서 하는데요. 일단 저희 자율학습 시간예요. 자리가 또 따로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배들이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다가요. 학생들이 공부나 학교생활, 진로에 대해서요. 궁금해 하는 점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공부는 자신이 뭐가 약하고, 모르는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대해선,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리 할 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험 대비를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는 대학교 생활을 얘기해 주시면서요. 대학교 오면 이리이러한 점이 좋고, 그 다음에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대학 와서 좋은 학과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요. (2008년 5월 17일 면담 내용)

평범이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진로검사와 성격 테스트를 실시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진로에 대한 목표나 목적의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첫 수업시간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성격테스트는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평범이 학생은 자신의 적성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정반대로 나와 놀랐으나 그 결과에 관해 상담을 받아 본적은 없으며, 기술가정 과목시간에 그것으로 수행평가를 했다고 하였다. ‘진로와 직업’ 수업은 시험 때는 지습시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진로를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매년마다 검사를 한 번씩 했었어요. 학년마다 다른 걸로요. 3학년 때는 자기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 같은 진로 직업이었고, 아마 1학년 때가 지능검사였던 거 같아요. 정반대로 나왔어요. 과학 쪽에 관심이 별로 그렇게 없는데, 성향이 이과 쪽으로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호감이 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만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특기 적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문 선배와의 멘토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학교는 1학년 때 이 학교 교사가 직접 집필한 WHO AM I라는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한다. 이 수업은 즐겁긴 했지만, 가끔 소란스러워서 아쉬웠다고 응답하였다. 고2때부터는 이 수업이 없다고 하였다.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느낌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응답하였다.

저희 학교에 안종복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쓰신 책이 WHO AM I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책. 그 책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면서 그런 것으로 약간씩 저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업을 하긴 했었어요.(2008년 5월 23일 면담 내용)

학교의 상담실 운영과 이용에 대해서는 섬김이 학생은 상담실이 있으며, 진로상담실 선생님(전담)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학 시간에 학급을 돌며 지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에 비해 학생이 많다보니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자세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상담실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로상담실이라고 학교에 있는데요. 찾아가면 거기 계신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신다고 해요. 찾아가는 건 거의 안 찾아가요.(2008년 5월 3일 면담 내용)

평범이 학생과 호감이 학생은 상담실이 있지만 가 본적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학교 상담선생님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섬김이 학생은 일반상담부터 진로상담까지 다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잘 모른다는 평범이 학생도 포괄적으로 진로상담부터 고민 상담까지 해 주지만, 주로 여학생들의 고민 상담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호감이 학생은 가정문제 학업, 진로 친구관계 등 다양하게 상담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재학 중인 학교가 중점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성적향상)와 대학진학인 것으로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학교가 목표를 두는 거는요. 성적향상이랑 대학진학이예요. 우리학교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열반도 많이 만들어 놓고...(2008년 5월 21일 면담 내용)

세 명의 학생들이 진로선택이나 준비를 위해 학교에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섬김이 학생은 학교와 구청 및 동사무소, 노동부 및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연결한 희망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1학년 때는 진로교육을 해 주었으나 2,3학년 때는 담임선생님과 대학결정을 위한 상담만 하고 있는데 HR 시간에 특색 있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평범이 학생은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 때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검사를 직접 해 보고, 동영상 등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충실하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은 멘토링 때 선호하는 직업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격주 토요일 수업에 해당분야 직업인을 초청해 주기를 바랐다. 학교에서 대학입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진로상담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세 명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채택하는 학교는 많지는 않으며, 전담 교사는 없고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서 진로교육 관련 지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담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진로에 대해 지도해 주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섬김이 학생은 1, 2학년 선생님들은 진로에 대해 말씀 안 해주시고, 고 3 선생님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은 시험이 끝나고 1~2주 정도 개인 면담할 때 가끔 이야기 한 적이 있는 정도였다. 평범이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였다.

다. 희망하는 진로 및 선택 과정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장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래 진로를 어떠한 과정과 계기로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섬김이 학생은 장래 희망 직업이 변호사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소송)이 닥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커서 변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경제적 비용 때문에 변호받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되고 싶다고 희망 이유를 꼽았다.

평범이 학생은 커서 교사(교육직)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얘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정하게 되

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이해해줘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 매여 있어 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였다.

교사였어요. 지금도 그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지금도 부모님께서 그 쪽으로 많이 지지해주세요.(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호감이 학생은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의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의사 집안의 영향에 따른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친구들이 컴퓨터를 통해 영화를 보든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을 보고 멋있고 부럽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좀 더 개선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안시스템분야에서 해커들을 막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세 명의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호감이 학생의 경우 어머니께서 의사가 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과 진로에 대한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주로 섬김이 학생의 경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봉사단체에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이 학생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교사인 삼촌에게 월급, 직장생활, 힘든 점, 대학 정보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알려 주셨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의 경우는 어머니가 학습스케줄을 짜시며, 대학 입학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여 알려 주시며, 모의고사성적을 보고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사립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을 위해 준비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섬김이 학생은 부모님과 장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

다. 인터넷검색, 카페를 통해 희망직업에 대한 여러 정보(시험정보, 업무, 장점/단점)를 찾아보고, 적성검사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범이 학생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사 직업에 대한 월급이나 근무환경 같은 정보를 찾아 보았다고 한다. 호감이 학생은 희망 진로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컴퓨터에 소질 있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희망 진로에 따라 섬김이 학생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 한번 보고, 안되면 로스쿨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평범이 학생은 교육학과를 생각하고 있으며, 호감이 학생은 의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정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나름의 장래 희망 직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잠정적으로 졸업 후 진학할 학과나 장래 직업에 대한 생각과 선택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라. 학업 및 진로준비

섬김이 학생의 경우 큰 고민은 없다고 하였으나 역시 세 명의 현재 관심사는 성적이었다. 이들은 희망 직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섬김이 학생은 사회과목(사회문화)을, 평범이 학생은 언어 특히 국어를, 호감이 학생은 영어와 이과과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진로선택 및 탐색이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 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섬김이 학생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성적이 안 좋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학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하였다.

평범이 학생도 빨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늦게 진로를 결정하다보면 3학년 때 입시준비 할 시간도 없는데 진로고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빠른 쪽이요. 아무래도 늦다보면 대개 고민이 3학년 때 많이 되거든요. 이제 막 대학입시가 되고 학과도 골라야 되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3학년 입시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진로고민 때문에 낭비하는 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부담감 때문에 성적부터 올리자고 해도 공부도 잘 안 되고요.(2008년 5월 21일 면담 내용)

반면에 호감이 학생은 여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자신에게 더 적성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우선은 열심히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둘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빨리 어떻게든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어쨌든 그 쪽만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는 다른 쪽은 안 보게 되니까 그렇게만 하면 깊게 몰두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할 수 있게 될 거 같은데,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고 보면 그 중에서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내 적성이 이거였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까지 잘 하다보면 다른 것도 즐겁게 느껴지고 이것이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다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2008년 5월 16일 면담 내용)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준비 상황을 보면, 섬김이 학생은 학급 학생 총 30명 중 10명 정도만 장래 진로가 뚜렷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대부분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은 학급 학생 총 36명의 절반 정도가 진로를 선택했는데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사, CEO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독특한 직업으로 디자이너, 레이서 등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였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김이 학생은 학교에 마련된 야간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급 당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시까지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고, 10시 이후에 동문선배들이 와서 학생들의 여러 질문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평범이 학생도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하고 있었다. 학교 독서실 두 곳과 교실에서 하고 있으며, 1, 2학년은 선택이며, 3학년은 강제로 시키고 있었다. 보통 6시 20분부터 시작 하여 8시에 한번 쉬고 10~11시까지 한다고 하였다. 감독 선생님이 11까지 있으며, 심화반은 11시까지 강제로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10시나 8시에 귀가한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은 학원에 다니다가 현재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는 현재 1, 2, 3학년 모두 학년별로 20명 정도 신청 받아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성적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주 4회 이상 빠지면 자동 탈락된다고 하였다. 현재 2학년에서는 16~18명 정도가 별도의 장소인 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감독 하에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하였다. 호감이 학생은 논술과 언어영역에 과외를 받고 있었다.

세 명의 응답을 종합할 때 야간자율학습을 많은 학생이 하지는 않으며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제 생각에는 학원 안 다니는 애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뭐 운동부라든가 그런 애들 빼고는 다 다닌다고 생각해요...어쨌든 예전에는 저 혼자서 공부하려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되니까 약간 딴 짓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학원가면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알게 되는 점이 있고 좋았던 거 같아요.(2008년 5월 16일 면담 내용)

다만 섬김이 학생은 집안의 학원비 부담도 있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하여서, 호감이 학생도 주로 학원에 다니고 혼자 공부한 적이 없는데, 대학교 가면 혼자서 공부해야 되므로 혼자 공부해서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능력을 한 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2. 종합 및 시사점

세 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고 있으나 3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받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학교의 상담교사를 비롯하여 교과 교사들의 진로교육 지도가 미흡하여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도입(접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육지표 조사(2007)¹⁶⁾에 따르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채택하여 배우는 학생은 49.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만족하는 비율도 15.2%밖에 되지 않았다. 진로와 관련된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 등을 받은 학생은 36.2%정도이며 만족도는 진로와 직업 교과 보다 높은 64.6%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교생의 20.6%만이 졸업후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¹⁷⁾. 진로교육지표 조사에서도 높지는 않지만 59.7%의 학생들이 학교 진로교육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1%의 학생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러티브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반계 고교생 중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교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를 갖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진로교육 경험과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

16)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 진로교육지표 조사(2007)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생의 졸업후 직업 방향 결정 여부는 결정했다 20.6%, 어느 정도 결정했다 57.1%, 결정하지 못했다 22.3%로 나타났다.

선 교사의 이해와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부모들이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및 그 진로의 선택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 친구들의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지표 조사(200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90%가 부모와 진로에 대해 대화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또는 또래와의 활동을 살펴보면, 희망 직업을 지지해 주거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 학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 등으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에 한계가 있다. 세 명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다른 조사의 결과¹⁸⁾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직업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부분의 직업인 전문가는 성인 취업자의 10% 미만이다¹⁹⁾.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의 폭이 좁고 경쟁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 중에서 진로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설령 진로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직업 구조로 고려할 때 보다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진로선택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직업세계 변화를 준비하는 진로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장래 희망 직업의 이유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섬김이 학생은 타인에 대한 봉사(섬김)이었고, 평범이 학생은 직업의 안정성과 본인의 적성,

18) 일반계 고교생의 10대 희망 직업은 교사(17.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무원(6.2%), 의사(4.7%), 회사원(4.4%), 간호사(3.5%), 자영업/개인사업(2.3%), 경찰(2.3%), 연예인(2.0%), 패션디자이너(2.0), 공학관련 엔지니어(1.8%) 등으로 응답자의 46.5%가 10개 직업 중에서 희망 직업을 제시하였음.

19) 통계청(2007)의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2.4%), 전문가(8.7%), 기술공 및 준전문가(11.1%), 사무 종사자(14.1%), 서비스 관련업종(12.4%), 도·소매 관련업종(11.3%), 농업·임업·어업 관련업종(6.9%), 기능종사자(10.3%),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11.0%), 단순노무 종사자(11.6%) 등으로 나타남.

호감이 학생은 부모님의 권유와 흥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진로교육지표 조사에서 학생의 최종 인생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돈, 명예, 권력, 인기, 봉사, 기타, 아직 없다 중에서 돈(42.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명예(14.4%), 권력(5.1%), 인기(2.4%)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객관식 조사와 심층 인터뷰와의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인생 목표에 대한 조사 결과로 최근 학생들의 돈을 중시하는 점을 우려할 수 있는데 내러티브 탐구 결과 학생들은 돈 보다는 다른 이유와 계기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 목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교육의 역할은 심리검사, 진로정보 제공 등도 중요하지만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참고문헌

- 오호영 · 이지연 · 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 한상근 외(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제 5 장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내러티브 탐색

제1절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김나라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교사 세 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로교육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탐구하였다. 크게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이야기와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 분석으로 논의를 이끌어갔다. 진로교육 이야기에서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의 어려움,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진로교육 경험 분석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 교과통합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서의 담임교사의 중요성, 학부모-학생-교사의 삼위일체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서론

최근 들어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전문계 고교의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나, 특히 2004년부터 시행된 동일계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으로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007년 기준 진학률 71.5%).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취업을 위해 전문계 고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진학을 위해 전문계 고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한 개인의 진로가 보다 다양화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나라 외, 2008). 이처럼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로지도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반계 고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해 주면 되지만, 전문계 고교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다.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의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학교 내의 열악한 여건과, 또 전문계 고교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진로정보와 진로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계 고교는 일반계 고교와는 달리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단계별로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하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실행

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진로교육을 타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을 분석하여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사점의 도출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 방법

가.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진로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을 진술하고 해석하는데 적절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세 명의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진로교육 경험 이야기를 듣고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 구성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하여 현재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계 고교의 계열,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의 지원, 학생들의 입학 성적 등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열심이 선생님, 우직이 선생님, 그리고 열정이

선생님의 3명이다. 열심이 선생님은 경기도 소재 공립 농업계열 전문계 고교에 재직 중이며, 올해 처음 진로상담부장을 맡게 되었다. 열심이 선생님은 진로상담부장으로서의 경력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인문계 및 전문계 고교 3학년 부장을 맡다보니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 관련 연수경험도 풍부하고, 최근까지도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관련 정보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가공하고 있을 정도로 진로교육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이다.

우직이 선생님은 경기도에 있는 공립 농·공업 계열 전문계 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실업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이다. 우직이 교사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기능사업을 지원 받아, 이를 계획·운영하고 있어서 진로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하거나, 외부인 초천 강연,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이다.

열정이 교사는 조리 분야 특성화 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2007년부터 진로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이다. 열정이 교사는 호텔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리 관련 전문대학의 초빙교수로 있다가, 특성화 고교의 매력에 빠져 교사로 전환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무한한 열정과 성실성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이들의 진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는 교사이다.

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자는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 세 달에 걸쳐 총 5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실이 교사와 두 차례, 우직이 교사와 한 차례, 열정이 교사와 두 차례의 면담을 했다. 일 회 면담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은 진로교육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구성되었는데, 크게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의미 및 중요성, 교과통합 진로교육, 진로교육 담당교사

의 전문성,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내외의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뷰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질문하지는 않았고,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연구 참여자별로 느끼고 경험한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음 내용의 전부를 전사하여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그 안에서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이 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내러티브 텍스트와 분석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3.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이야기

이 장에서는 세 명의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교사들의 내러티브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 진로교육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가. 성실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전문계 고교생의 독특한 특성

성실이 교사는 인문계 고교생과는 달리 전문계 고교생에게는 보다 특별하고 집중적인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진로지도를 전문계에서 하는 게 진짜 훨씬 힘이 듭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진학이 목표예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학인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게다가 그러면서도 실력은 없고, 원해서 오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및 학과 생활에 흥미가 없다. 특히 전문계 고교의 경우 일반교과와 함께 전공교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흥미가 학교생활 및 학업동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성실이 교사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지금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 학교를 원했던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한 20-3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레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여기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깐 전문과목인 농업에 흥미가 있느냐? 그러니깐 흥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요. 전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해야 하니깐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깐. 원래 실력도 낮고(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탐색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요, 머 제시해 주지도 못하지요. 그러다보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진로지도라는 게 보통 평균에 맞춰서 그냥 학교에 보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둘째, 학과 및 전공에 대한 흥미를 토대로 전문계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조차, 해당 전공 및 전공 후 진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성실이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제과제빵 과정이 존재하는데, 해당 전공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TV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파티쉐 만을 상상하고 무작정 진학한 학생들에게 제과제빵 분야의 어려움과 향후 겪을 어려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학생들의 진로지도 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좀 교육과정이 다른데,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하고 있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학교 왜 왔니”하고 물으면 보통 제과제빵이 있어서 왔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과 제빵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보면, 임금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월급이 70-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은 좋을지 몰라도 솔직히 직업으로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왔다고 하면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셋째, 인문계 고교생에 비해 전문계 고교생은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실이 교사는 진학을 결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조차도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나 대학을 거의 결정하고 있지 못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과·문과로 나누면 그 후에 자기가 갈 학과를 미리 정해놓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다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파도 안 정했어요. 정말 너무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애들 다 일일이 지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3학년 현재까지도 진학한다고 말하는 애가 학과 선택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 정보 및 인력의 부족

성실이 교사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성실

이 교사의 경우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받거나, 진로교육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성실이 교사처럼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학교에 거의 없다 보니, 전교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하고 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사실 진로부가 편하려고 하면 정말 편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료 주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 상담을 잘 안 오거든요. 자료를 던지니깐 학생들이 반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더 바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9시나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습니다(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특히 성실이 교사는 진로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전문상담교사나 진로부 소속 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몇 안 되는 진로부 소속교사들은 전체적인 진로교육의 틀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실제로 진로교육을 학생에게 전달(delivery)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에 소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로나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건 담임 선생님이고, 우리 진로부는 스텝입니다.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맡아요. 메신저 역할이요. 우리가 자료는 많이 모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줘야 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고,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또한 성실이 교사는 다양해진 직업세계와 복잡해진 입시전형으로 인하여 취업 · 진학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1 맞춤형 컨설팅 형태의 진로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나 진로상담교사가 다양하고 방대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며, 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진학을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는 그냥 성적이 몇 점에서 몇 점 되어 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다보니까 한 학생 진로지도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보니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다 하기가 쉽지 않죠(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 진로교육 성공 사례: 교사의 관심과 학생의 열정이 연주하는 하모니

성실이 교사는 이와 같은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하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샘솟는다고 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능력이나 학업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극복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성실이 교사는 자신이 진로지도를 했던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들의 열정과 노력의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남학생 한명이 기억에 남네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지각이 한 번도 없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성적은 남자 153명중에

153등 꼴찌인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학생에 대하여 알아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기 뷔페 유행할 때, 뷔페집에서 일하고 학교와서는 잠만 자고 그랬던거죠. 3학년 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너 왜 고기뷔페에서 계속 일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데리고 요리학원에 한번 데리고 갔죠. 그리고 요리학원 선생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2-3년 인가 후에 그 학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잘 되가지고 또 취사병을 간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말했죠. “니가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시장을 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시장을 같이 다녀라.”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 친구가 시장을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어디가면 머가 잘나오고, 머가 싸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늦게까지 일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하고,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 배우면 서울에 있는 동네식당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었죠(2008년 4월 26일 면담 내용).

나. 우직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학부모의 인식 전환

우직이 교사는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문계 고교의 높은 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진학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우직이 교사는 취업과 진학이 이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하는가의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취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진학이 필수적이므로, 취업을 한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체계화 한 후에 진학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직이 교사는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일종의 “현명한 진로 결정을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직이 교사의 생각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작정 대학진학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직이 교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진학 결정의 중요한 원인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전환을 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바로 진학을 할 경우 실패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잠시라도 해보고 필요할 때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주로 진학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지요.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끄덕끄덕 하다가, 3학년 되어서 친구들 진학하는 거 보면 애들이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솔직히 요즘 대학은 돈만 내면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에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많지요. 부모님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

우직이 교사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직이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애완동물이나 화훼장식 등과 같은 특수한 학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들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침체 될 경우 해당 전공의 학생들의 진로지도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다.

애완동물이나 화훼장식이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애완동물 같은 경우 한동안 떴다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애견미용 이런 거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애견미용 수요가 별로 없거든

요. 애완동물 훈련, 사육 같은 경우도 좁은 분야고 실제로 수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쪽 계열로 해서 나갈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애견훈련소 가서 자기가 교육받고 같이 생활하고 한 학생들은 도제식으로 해서 졸업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외 학생은 그쪽 계열로 나가기가 힘들니다(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우직이 교사는 이처럼 직업세계와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전공이나 교육과정의 그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가지는 비용통성은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학과개설이나 특성화 계획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당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전문계 고교 진로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화훼장식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우리학교를 화훼장식 관련해서 원에 쪽으로 특성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양시가 화훼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있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화훼에 관한 것만 하면 우리학교에서 하면 수요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 여기 나와서 농사짓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도 기반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고요. 그리고 일반 샵이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득권층을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수요가 없지요(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 진로교육 성공 사례: 소외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우직이 교사는 진로교육을 단순히 진학이나 취업지도의 범위로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직이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모두 담임교사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진학·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성교육과 상담의 하나로써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우직이 교사는 이처럼 학생과 담임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진로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것은 학생들과 메일 주고받는 것 이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소심해서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차타고 와서 막차타고 갈 때, 긴 일과 중에서 아예 교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만 올인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애들한테 메일을 썼는데 정말 말 한마디도 안하는 학생들이, 메일에 대해서 장문의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먼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솟기가 없어서 못한 거지요. 그런 애들한테 이런 메일 같은 것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우직이 교사가 가장 우려하는 유형의 학생은 이른바 사고뭉치 들이 아닌, 소심하고 또래에서 소외된 유형의 학생들이다. 특히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소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직이 교사는 이러한 소외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가정, 학업, 진로 등에 관한 문제들을 상담함으로써 진로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소외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래저래 힘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걱정스러운 학생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거지요. 까불까불해도 저랑 대화가 되는 애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혼날 꺼 혼나고 하면서 고치니깐.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속으로 끓아 터질 때까지 모르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면담 내용).

다. 열정이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열정이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조리 분야의 특성화 고교로서, 다른 전문계 고교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교사 역시 이런 학생들이 대견스럽고,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척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특히 열정이 교사는 단순히 조리사라는 하나의 진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의 특성을 살린 보다 많은 진로와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였다.

몇 십 년 후에 여기 졸업생들이 모였을 때 너도 나도 다 조리만 하고 있으면 학교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조리라는 틀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좋겠고, 따라서 다양한 진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리를 가지고 어떠한 변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캐취해 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해야 된다, 불어 해야 된다, 한자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능력들을 갖췄을 때 이러한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학부모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2008년 5월 28일 면담 내용).

열정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사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조리와 응용해서 개척해나간 좋은 사례들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애들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노어학과를 가서 음식점을 차린다는 것을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방송학과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학교 졸업해서 방송학과로 진학하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미장원에서 무슨 잡지를 봤는데 ○○○○인가에서 우리학교 출신의 한 졸업생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음식과 관련한 기사를 쓰더라고요. 푸드칼럼리스트인가 그랬을 겁니다. 음식을 하던 학생이고, 글재주가 있다보니깐 음식에 대한 표현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거죠. 이러한 진로는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낸 진로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는 키워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자, 또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간 길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2008년 5월 28일 면담 내용).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 제대로 된 전공심화과정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의 부재

열정이 교사는 현실적으로 고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리 분야와 관련된 유명한 호텔 및 외식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이나 유학을 결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열정이 교사는 이처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좋은 고등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점이 진로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열정이 교사의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매우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다 배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심화과정을 배워야 하는데, 대학에서 그런 심화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복습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1등을 하는 학생이고, 다른 부류는 재미없다고 아예 손을 놓아버리지요. 전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밀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 부류이고,

후자의 학생들은 결국에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조리를 한 애들보다도 뒤쳐지게 되는 것이지요(2008년 6월 10일 면담 내용).

■ 진로교육 성공 사례: 자신감 고양을 통한 성공적인 진로개척

열정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성공적인 진로교육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일찍부터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열정이 높은 학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인문계 고교의 경우 이른바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지만, 자신의 학교는 1등부터 꼴찌까지 모두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124명중에 124등하는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테니깐 자신감 가지고 하라고 했고,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갈 실력도 안 되고 대학 갈 생각도 없어 졸업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계속 경력 쌓다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 기업 인턴십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꼴찌하는 학생인데 영어를 알 리가 없지요. 근데 이 학생도 조리 용어는 알아요. 3년 동안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같이 지원한 친구는 영어는 엄청 잘하는데 조리 용어는 하나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깐 거기 웨프가 둘이 같이 6개월 동안 하는 조건으로 뽑아줬나 봐요. 그렇게 미국을 가서 하다가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학생비자 끊고 거기서 다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꼴찌도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학교입니다. 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학교입니다. 전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2008년 5월 28일 면담 내용).

라.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 분석

앞 장에서는 전문계 고교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연구자가 뽑은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계 고교 교사들의 진로교육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

전문계 고교에서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운경 외(2006)의 연구에서 파악한 중학교 시기의 전문계 고교 관련 진로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중학교 단계에서 전문계 고교 관련 정보 제공 실태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중학교 단계에 전문계 고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전문계 고교에 진학한 재학생들조차 중학교 단계에서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문계 고교 관련 정보 습득 여부 (()안의 단위는 %)

구분		중3 학생	전문계고1 학생	중3 학부모	전체
전문계 고교 관련 정보 습득 여부	없음	196 (54.1)	79 (35.3)	230 (65.7)	505 (54.0)
	있음	166 (45.9)	145 (64.7)	120 (34.3)	431 (46.0)
	전체	362 (100.0)	224 (100.0)	350 (100.0)	936 (100.0)

자료: 정운경·김나라·정철영·김봉환(2006).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안내제 도입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계 고교 1학년이 응답한 전문계 고교 안내정도를 보여주는 <표 7>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과거에 전문계 고교에 대해 안내받은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음’(51.6%)과 ‘부족하게 안내를 받음’(38.1%)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과거에 전문계 고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안내 없이 학교를 선택 및 진학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운경 외, 2006).

<표 7> 전문계 고교 입학 선택 시 안내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많은 안내를 받음	15	7.0	2.62	.66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음	111	51.6		
부족하게 안내를 받음	82	38.1		
전혀 안내를 받지 않음	7	3.3		
전체	215	100.0		

자료: 정운경·김나라·정철영·김봉환(2006).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안내제 도입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처럼 전문계 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학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문계 고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중학교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열심히 교사와 우직이 교사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계 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문계 고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탐색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자료가 전혀 없으니깐요, 머 제시 해주지도 못하지요. 그러다보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진로지도라는 게 보통 평균에 맞춰서 그냥 학교에 보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2008년 4월 26일, 열심이 교사 면담 내용).

그러나 이처럼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 등에서 전문계 고교 입학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는 있지만 매우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문계 고교 선택시기부터 해당 고교 및 전공에 대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계 고교에 왔을 때 어떠한 진로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켜야 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머 전문계가 다 그렇지만 사실 스스로 오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중3 담임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계 고교에 오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담임선생님들이 성적 안 되는 애들 밀어 넣으시는 것일 거고, 그중에 절반 조금 안되게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2008년 5월 14일, 우직이 교사 면담 내용).

또한 이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선택 시 자신의 적성, 흥미, 희망직업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윤경 외(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표 8> 참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적성, 흥미, 희망직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담임, 중학교 3학년 학부모의 경우는 '성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중학교 3학년 담임과 중학교 3학년 학부모의 경우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전문계 고교에서의 부적응을 낳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 고교 교사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이 '적성, 흥미, 희망직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중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구분	중3 학생	중3 담임	중3 학부모	전문계고 교사	전체
성적	148 (41.9)	51 (45.1)	131 (37.1)	6 (9.2)	428 (38.7)
가정환경	5 (1.4)	0 (0.0)	9 (2.5)	1 (1.5)	35 (3.2)
적성, 흥미, 희망직업	170 (48.2)	32 (28.3)	198 (56.1)	49 (75.4)	525 (47.5)
학부모의 의견	18 (5.1)	7 (6.2)	8 (2.3)	2 (3.1)	49 (4.4)
학생의 선택	2 (0.6)	23 (20.4)	7 (2.0)	7 (10.8)	45 (4.1)
기타	10 (2.8)	0 (0.0)	0 (0.0)	0 (0.0)	24 (2.2)
전체	353 (100.0)	113 (100.0)	353 (100.0)	65 (100.0)	1106 (100.0)

자료: 정운경·김나라·정철영·김봉환(2006).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안내제 도입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열심이 교사와 우직이 교사는 학생들이 고교 선택 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계 고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교사의 경우, 다른 전문계 고교와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소신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어 진로교육이 매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실제로도 성공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도 내가 여기에 왜 가야 하는지, 여기를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학교 학생의 경우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1-2학년 때부터 조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95%, 아니 100%일 것입니다. 100%의 아이들이 정말로 조리에 미쳐서 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픽픽 쓰러질 정도로 교육과정이 힘들고, 체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쩡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밝고 인사도 잘하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가 99년에나 생겼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2008년 5월 27일, 열정이 교사 면담 내용).

이처럼 전문계 고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즉 조기에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중학교시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토대로 전문계고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교과통합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

전문계 고교의 진로교육은 교과교육, 범 교과교육, 재량활동, 특별활동, 현장체험,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기타 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다음의 <표 9>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체험(20.7%), 재량활동(19.3%), 교과교육(17.9%), 특별활동(11.7%), 범 교과교육(11.0%) 등의 순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9> 전문계 고교의 진로교육 운영 형태

구분	빈도수 (%)	
교과교육	232	(17.9)
범교과교육	143	(11.0)
재량활동	251	(19.3)
특별활동	152	(11.7)
현장체험	269	(20.7)
방과후 학교	115	(8.9)
시범학교 운영	50	(3.9)
기타활동	86	(6.6)
전체	1,298	(100.0)

자료: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처럼 대부분 교과교육 이외의 형태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위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독립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제공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표 10>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의 절반 정도가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렇게 독립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수치상으로는 전문계 고교의 절반 가까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거품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수업시수가 줄어든 교사들이 담당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교과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로교육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표 10> 전문계 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채택 및 운영

구분		빈도수 (%)	
진로와 직업 채택 및 운영	채택하지 않음	261	(55.7)
	채택·운영함	208	(44.3)
	전체	469	(100.0)

자료: 오호영·이지연·윤형환(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은 ‘거품’은 진로와 직업 교과목 담당교사의 진로관련 연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가운데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경험한 교사는 전체의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은 당연히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표 11> 전문계 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교사의 진로관련 연수 경험 여부

구분		빈도수 (%)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교사의 진로관련 연수경험 여부	연수 경험이 없음	146	(71.2)
	연수 경험이 있음	59	(28.8)
	전체	205	(100.0)

자료: 이지연·최동선·정일동(2004). 초·중등 진로·직업교육 혁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열심이 교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운영할 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하질 않습니다. 우리학교에 공업선생님들과 농업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시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진로와 직업' 수업이 어떻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학생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깐 사실 시간을 때우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008년 4월 26일, 열심이 교사 면담 내용).

이처럼 독립된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경우 자칫 형식적인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교육과 같이 인지적 영역이 아닌 학생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주목적일 경우, 실천 중심의 교육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성공적인 진로교육의 운영형태는 대부분 교과 외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열심이 교사의 경우 조리 분야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나 선배들의 초청강연이 학생들의 의지나 동기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리명인 특강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불러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분이 왔냐면, 노르웨이에서 '누들 킹'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호텔에서 조리명인들을 불러다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외식산업체에서 성공한 분들, 예를 들면 ○○○CEO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애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2008년 5월 27일, 열심이 교사 면담 내용).

또한 열심이 교사의 경우 방과 후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로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문계 고교와는 달리 전문계 고교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비교적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이 진로교육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교 동아리는 다릅니다. CA활동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이 저희 학교도 제한을 해요. 또 CA활동은 선생님들이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요. 근데 동아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동아리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애들한테 두 시간씩,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2008년 4월 26일, 열심이 교사 면담 내용).

또한, 다양한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녹아 내는 이른바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일선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계 고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인문교과에 대한 흥미가 적는데, 이를 자신의 전공 및 진로와 연계하여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따로 진로교육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통합시키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어선생님이 예를 들면 어떻게 국어 교과를 조리와 연관을 시킬까 많이 고심을 하셨었지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음식을 보고 감상을 얘기할 때, 맛있다나 맛없다라는 표현 이외에 다양한 단어나 어휘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또 발표 같은 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2008년 5월 27일, 열정이 교사 면담 내용).

실제로 열정이 교사의 학교의 경우 이러한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교장선생님 생각이 정말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해 확고합니다. 그래서 인문교과 선생님들한테 교과 속에 조리를 많이 녹아들어가게 하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인문 교과 선생님들이 정말 당황하시죠. 예를 들어,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요리사·조리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명함을 말이지요. 학생들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호텔 앞에서 있다가 거기 유명한 조리사들한테 명함주고 하더라고요. 음식문화 탐방이라던가 이런 숙제를 저는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선생님이나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내줘서 저도 그런 것을 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다양한 과목을 하나로 집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2008년 5월 27일, 열정이 교사 면담 내용).

■ 진로교육 담당인력으로서의 담임교사의 중요성

전문계 고교에서의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크게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부장, 담임교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계 고교의 절반 이상에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상담교사가 중등학교, 특히 전문계 고교의 진로개발 지원, 즉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진로지도와 관련한 과목이 진로상담의 단 1개의 과목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생활지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전문계 고교 진로개발 지원 담당인력 현황

구분		빈도수 (%)	
전문상담교사 확보	확보하지 않음	211	(45.0)
	확보함	258	(55.0)
	전체	469	(100.0)

자료: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편 진로상담부장교사는 학생 상담, 학생 이해를 위한 제반 검사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로서 전문계 고교에서의 연간 진로지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로상담부장의 자격요건은 현행 교육법령 상에서는 폐지된 상태이며, 학교별 조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이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의 부재는 진로상담부장을 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편의적인 직제로 간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일선 전문계 고교에 1인씩 배치된 진로상담부장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진로상담 업무의 추진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진로관련 부서는 전체적인 틀을 정립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실제적인 진로교육의 전달(delivery)은 담임교사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로나 취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건 담임 선생님이고, 우리 진로부는 스텝입니다.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맡아요. 메신저 역할이요. 우리가 자료는 많이 모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줘야 하는데

중간에 끊겨버리고, 애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2008년 4월 26일, 열심이 교사 면담 내용).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진로관련 부서에서 아무리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정작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계 고교의 경우 인문교과 담당의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들의 경우 전문교과 담당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담임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에서 진로교육을 위해 교사 대상의 연수 및 세미나를 운영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계 고교의 49.9% 가량이 진로교육을 위한 교사대상 연수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진로와 취업, 상담과 관련한 업무들이 담임위주지요. 단지 담임선생님이 인문교과 담당인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도 따로 두고 있어서 인성,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2008년 5월 14일 우직이 교사 면담 내용).

■ 학부모-학생-교사의 삼위일체

중등단계 청소년의 경우 진로선택 시 부모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로선택 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문계 고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전문계 고교의 65.9%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표 13> 전문계 고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현황

구분		빈도수 (%)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지도 교육 실시	실시하지 않음	160	(34.1)
	실시함	309	(65.9)

자료: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참여자들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우직이 교사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연스레 학생 역시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진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학생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했는데 학생이 아니라 부모님을 상담해야 되요. 학부모를 상담해야 되요. 학생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비교적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부모님 주도하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진로에 대한 많은 탐색을 해요. 심지어 해외 어디를 다녀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주 진로가 뚜렷해요.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변리사를 하겠다. 어떤 학생들은 변리사나 노무사가 먼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학생들은 벌써 난 여길 가야 되고. 여길 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 학생들은 진로지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오면 제가 오히려 긴장을 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3학년 때가 됐는데도 우왕좌왕하고, 난 무슨 과 갈래하면 몰라요, 몰라요 이려고.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원서를 써가지고 해줘도 접수까지 해줘야 할 때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2008년 5월 14일, 우직이 교사 면담 내용).

또한 열정이 교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의 형태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하였다. 우직이 교사와는 달리, 열정이 교사는 전문계 고교 및 전공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학생의 장래를 위해 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적인 피드백 제공은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개척”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로부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요. 학생들이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어떠한 진로로 나가야 하느냐가 학부모님들의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옆집에 인문계 학생이 있고 하면 그쪽 학생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정말로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시거든요. 왜 우리학교는 인문계 학생처럼 공부 안 시켜 주느냐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지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면 많이 나아지기는 하는데, 1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은 아직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시니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요.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바로 교사이지요.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학사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토의하고 피드백 받고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2008년 5월 27일, 열정이 교사 면담 내용).

4.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교사 세 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였다. 크게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이야기와 전문계 고교 교사의 진로교육 경험 분석으로 논의를 이끌어갔다. 진로교육 이야기에서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교육의 어려움, 진로교육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진로교육 경험 분석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 교과통합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 진로교육 담당 인력으로서의 담임교사의 중요성, 학부모-학생-교사의 삼위일체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실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교육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인문계 고교와는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진로교육을 하면 되지만, 전문계 고교의 경우 진학이 목표인 학생도 있고 취업이 목표인 학생이 있어 어느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전문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성적이 안 좋은 편이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편부편모 가정도 많아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인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인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문계 고교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들어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

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특히 고교 졸업 후에 진학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우식이 교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인식 또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계 고교 교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미흡한 점이다. 2006년도에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에 입학한 동기가 성적이 안 좋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5년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안 내제 운영 도입 방안’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계 고교 관련 정보 습득 여부에 대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50% 이상이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미 전문계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도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입학한 경우가 3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시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계 고교 등 고교에 대한 신뢰롭고 올바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계 고교의 진로교육은 교과교육, 범 교과교육, 재량활동, 특별활동, 현장 체험 및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기타 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교과교육 이외의 형태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교육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경우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 내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즉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나가고 있으며, 전문계 고교의 경우 인문계 고교보다는 교과통합을 위한 진로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실이 교사의 경우 본인이 맡고 있는 사회교과에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으며, 열정이 교사의 학교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이 흥미 잃기 쉬운 인문교과 과목에서도 자신의 향후 진로와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흥미와 집중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교과 담당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pp. 69-93.
- 염지숙(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pp. 110-140.
- 오호영 · 이지연 · 윤형환(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준 · 김나라 · 윤여인 · 고재성(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 최동선 · 정일동(2004). 초 · 중등 진로 · 직업교육 혁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광순(2004). 한 교사의 열린교육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교육연구*, 12(1), pp. 1-23.
- 정윤경 · 김나라 · 정철영 · 김봉환(2006).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 선택안내제 도입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내러티브 탐구

김나라

1. 서론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학생 두 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였다. 크게 진로흥미에 대한 발견, 진로개발 과정,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개발 경험을 진로개발에서의 가족의 지지 및 영향력, 지속적인 진로관련 포트폴리오 작성의 필요성,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교육에의 불만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진로개발에 대한내러티브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계 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및 적성을 어떻게 찾게 되었고, 가정 환경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 활동을 어떠한지를 찾아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을 진술하고 해석하는데 적절한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두 명의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진로개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나. 연구 참여자

이 연구를 위하여 현재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성실이 학생, 열정이 학생의 2명이다. 성실이 학생은 서울 소재 상업계열 전문계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커리어넷의 수기 공모에 참여한 계기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직 1학년 학생이라 진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로목표를 벌써 구체화하였고, 그에 따른 진학 및 취업 계획을 수립해 놓을 정도로 성숙한 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열정이 학생은 경기도 소재 조리 분야 특성화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열정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 외국에서 혼자 거주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독립심이 뛰어나고, 조리 분야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다. 특히 조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흥미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개발시키고 있다.

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자는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실이 학생과 두 차례, 열정이 학생과 두 차례 면담을 했다. 일 회 면담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은 진로교육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구성되었는데, 크게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 진로개발 과정, 적성의 발견, 가정환경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뷰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질문하지는 않았고,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연구 참여자별로 느끼고 경험한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음 내용의 전부

를 전사하여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그 안에서 진로개발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3. 두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개발 이야기

이 장에서는 두 명의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개발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진로흥미의 발견, 진로개발 과정,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의 도움의 측면에서 구성하였다.

가. 성실이 학생의 진로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 진로흥미의 발견: 커리어넷 활용을 통한 전문계 고교에 대한 편견 타파

성실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 커리어넷(CareerNet)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담임선생님께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후 활동을 하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셔서, 별 생각 없이 커리어넷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성실이 학생은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정보들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자, 친언니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하여, 그때부터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교 정보를 보다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매주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컴퓨터실에 가면 게임을 하는데 한번은 선생님께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특정한 활동을 하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수업 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다음날 혼나지 않을까 싶어 가입을 하였는데 바로 거기가 커리어넷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활동이 좀 뜸했죠. 그러다가 중3이 되고 친언니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하여서, 그때부터 계

속 이용하여 왔습니다(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성실이 학생도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고민 없이 인문계 고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등학교 정보를 접하고 난 후, 고교 선택이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지역별로 존재하는 전문계 고교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방송관련 진로를 개척하는데 적합한 전문계 학교가 근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홍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별로 자세하기 설명이 되어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 보게 되었고, 결국 성적을 고려하여 지금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2006년 6월 3일 면담 내용).

이처럼 성실이 학생은 특별히 공부에 흥미나 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기 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의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데 가족과 중학교 담임교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실이 학생은 집 근처의 전문계 고교의 문화산업마케팅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딜 가도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니도 인문계에서 잘 못하느니, 차라리 전문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라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 진로개발 과정: 형제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진로계획의 체계화

성실이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부모님보다는 형제들이 자신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회상하였다. 실제로 8살 터울과 3살 터울의 언니를 두고 있는 성실이 학생의 경우, 부모님보다 언니들이 자신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성실이 학생이 전문계 고교에 진학하고자 결심하였을 때, 유독 언니들만이 심하게 반대를 했다.

언니들은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전문계 고교로 진학하면 나중에 차별받을 수 있다고, 그냥 인문계 고교로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이처럼 전문계 고교로의 진학을 결심했을 때 심각하게 반대하던 언니들이었지만, 진학 이후의 성실이 학생의 학업, 진로와 관련 고민을 들어주고, 정신적·물질적 지지를 제공한 것도 언니들의 몫이었다.

친구들과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친구들도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다보면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 안되면 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처음배우는 과목이고, 중학교 때와 비교해서 양도 갑자기 많아져서 언니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언니가 가끔 그런 것 하라고 돈도 주고 그래요(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또한 이처럼 전문계 고교에서의 적응문제와 함께, 고교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역시 성실이 학생의 언니들이 제공해주었다. 특히 성실이 학생의 큰 언니의 경우 별다른 진로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후회를 경험한 터라, 동생에게 조기에 진로계획을 세워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큰언니는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다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너는 나처럼 헛공부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정해놓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 성실이 학생의 의지나 동기가 행여 꺾일까봐 무조건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해주는 반면, 언니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계획 및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중간에 흥미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근데 언니는 그런 곳이 텃세가 심해서 상고 애들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깐, 가는 건 좋은데 그 때가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2008년 6월 18일 면담 내용)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활동의 도움: 외부 강사들의 강연을 통한 동기화

성실이 학생의 경우 전문계 고교에서 특별히 자신의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활동들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오히려 중학교 때 경험했던 진로탐색장 쓰기 등의 활동들이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실제로 성실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진로상담부가 존재하지만, 학

생들이 그다지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성실이 학생 역시 이용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아, 학교에 상담실은 있어요.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긴 하지만, 그런 기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은 계속 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2008년 6월 18일 면담 내용).

성실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전문계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들은 대부분 외부 강사들의 강연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관련된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이들의 경험담이나 현장 상황 등을 듣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때때로 동기화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근데 외부에서 강사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진로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강당이 전교생이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아서 그냥 저희는 TV로 해서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보이는 화면만 본 것이라서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몇 일전에 DOLL Korea 라는 곳에서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그분이 '바나나는 밥이다.' 그런 문구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런 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한테 관련한 마케팅 계속 소개해주시고, 잘된 마케팅 사례나 실패한 마케팅 계속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어요(2008년 6월 3일 면담 내용).

나. 열정이 학생의 진로개발에 대한 내러티브

- 진로흥미의 발견: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조리에 대한 관심

열정이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오빠 모두 조리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비교적 일찍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흥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9살 터울이 지는 오빠도 가업을 물려받아 일찍부터 조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현재 다니고 있는 조리 관련 특성화 고교 역시 열정이 학생의 오빠의 조언에 의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조리를 좋아했어요. 집에서 즉발 장사를 해서 요리하는 것도 보고, 사업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아왔지요. 미술도 좋아하기는 해서 조금 고민은 하였는데, 제 오빠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빠가 요리를 하려면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여기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반죽 하는 것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꿈은 어렸을 때부터 쪽 요리사였었어요. TV에 보이는 모자 쓴 아저씨들이 웬지 멋져보였었어요. 학교 면접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2008년 6월 10일 면담 내용).

- 진로개발 과정: 조리 관련 특성화 고교 진학을 통한 진로의 구체화

열정이 학생은 가정의 환경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아 조리 관련 특성화 고교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정말로 진로를 계획하고 구체화되게 된 계기는 바로 고등학교에서 제공한 다양한 실습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막연하게 흥미만을 가지고 있던 조리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됨으로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성화

고교에 진학하여 조리과 관련한 실습을 경험하다 보니 열정이 학생이 생각하던 만큼 조리 분야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리과 관련된 수많은 기능을 터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한식분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리는 맨 처음부터 좋다고 막 달려든 것은 아니고, 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배워가면서 좋아진 거죠.

학교가 며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반도 보면 학생들한테 실습해보고 하라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숙사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학교에서만.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머가 아쉽다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2008년 6월 19일 면담 내용).

-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활동의 도움: 다양한 실습, 기능대회 및 인맥 제공

열정이 학생은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열정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조리 관련 특성화 고교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실습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리과 관련된 기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기능대회를 준비·참가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정말 요리를 좋아해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온 경우에는 정말 생각이 많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3학년 때 외식창업이라는 것을 배워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자기만의 가게를 설계를 해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애는 뭔가 하겠다라고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포크에 자기만의 마크를 넣기도 하고, 디저트에 자기만의 토핑을 얹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픈식 키친을 열어서 칵테일 쇼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애들도 있고요(2008년 6월 19일 면담 내용).

우리는 그런 곳이랑 비교하면 정말 다르지요. 일단 시설도 좋고 거기서 배우는 실습도 다 하면서 다른 것도 배우니깐요. 예를 들면 카빙도 배우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데코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지요. 우리는 또 양식과정이 있고 고급양식과정도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1학기도 채 끝나기 전에 다 완료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런 학원이랑 우리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2008년 6월 19일 면담 내용).

이와 함께 학교의 교사진이나 출신 선배들 대부분이 조리 업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맥적인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조리 관련 진로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동기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네, 제가 조리 대회를 5번인가 6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대회를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이 무조건 김○○ 선생님 물어보거나 고○○ 선생님을 물어보곤 합니다. 여기 학교를 나오면 인맥을 통해서 호텔에 더 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무시 못 할 것들이지요. 3학년 때는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학교 차원에서 실습을 가게 해주거든요. 그 때 하얏트 호텔, 롯데 호텔, 힐튼 호텔, 수능 친 애들도 수능 끝나고 가서 실습을 하고 수업일수를 마치죠. 그런 것 보면 다른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2008년 6월 10일 면담 내용).

다. 두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개발 경험 분석

앞 장에서는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연구자가 뽑은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진로개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 진로개발에서의 가족의 지지 및 영향력

진로개발에서 가족 및 가정환경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개인이 마주치는 1차적이며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 바로 가족 및 가정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가족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언 및 물질적·정신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전문계 고교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족 및 가정환경을 들고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흔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모님보다는 두 학생 모두 형제들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는 점이다. 특히 5살 이상의 터울이 지는 형제들의 경우 부모님보다는 훨씬 의사소통이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실이 학생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8살과 3살 터울의 언니들의 조언이 자신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처음에는 전문계 고교 진학을 반대하던 언니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8살 터울의 큰 언니의 경우 성적만을 고려하여 대학을 진학하였다가 방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이 학생에게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진학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이 학생 역시 가족환경이 자신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과 오빠 모두 조리업계라는 동일한 진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리와 관련한 흥미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 경우 열정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회생활이 다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제가 4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셨대요. 아버지는 그때 32살이었어요. 그 때부터 아버지가 요리하는 것을 계속 봐왔어요.

아버지보다는 사실 오빠가 더 많이 자기의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오빠는 우리 집이 가난했을 때부터 자라서 다 알아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라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여기에 있는 거고 해서 우리 집이 가난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해요. 오빠가 그때에 관한 얘기를 종종 해주곤 해요. 그 때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건물도 사시고 정말 아버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이사를 하고, 가게가 커졌거든요. 전에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장사는 돈이 많이 남는거보다 하고 말이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이 안 모이는구나(2008년 6월 19일 열정이 학생 면담 내용).

■ 지속적인 진로관련 포트폴리오 작성의 필요성

진로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력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해놓은 일종의 기록물로 정의된다. 진로포트폴리오에는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한 탐색 결과는 물론, 진로와 관련된 모든 활동 및 성취물 등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성실이 학생과 열정이 학생 모두 이러한 진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경험한 상태였다.

우선 성실이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진로탐색장이라는 일종의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경험이 자신의 진로계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였지만, 점차 포트폴리오 작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작성을 통해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장래의 모습이나 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행사시간이 있어요. 그 때 진로탐색장도 잘 쓰면 상을 주거든요. 또 다른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줘요. 그 유인물에 10년 나의 모습, 남편의 모습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그걸 짝 써요. 그걸 거의 2~3시간 동안 쓰는데, 그걸 보면 어떤 애들은 시골 애처럼 살겠다는 애들도 있고, 도시에 남아서 강남에서 살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읽어보고 좋은 애들을 추리고, 교장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상장을 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이 그걸 그냥 쓰다가, 선생님이 나눠주면 애들이 그걸 집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붙여놓고 그랬어요.(2008년 6월 18일 성실이 학생 면담 내용)

또한 열정이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실습이나 기능대회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3이 된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 이러한 진로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담임교사나 학교차원에서 이러한 진로포트폴리오 작성을 조언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문계 고교의 경우 일반계 고교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나 기능대회 참여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 관련 경험 결과 및 성취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자격증이나 수상경력 등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대회나 교외활동 등의 경험을 통해 느낀 바나 동기화된 점등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3학년인데 아까 진로포트폴리오처럼 1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1학년 학생들한테 레시피 정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2008년 6월 19일 열정이 학생 면담)

■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교육에의 불만족

한편 성실이 학생과 열정이 학생 모두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자신의 진로개발에 전문계 고교나 담임교사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실이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의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단지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외부 강사 초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계획에 도움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들한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말이나, 혹은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강사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진로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2008년 6월 3일 성실이 학생 면담 내용).

특히 성실이 학생은 자신을 비롯한 또래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를 돕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실제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도서관에서 직업사전을 빌려서 관심 있는 직업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또한 학내에 존재하는 상담실의 경우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 및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직업사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동안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아보면, 그 직업이 되는 길이랑 연봉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책을 보면 이건 좀 아닌 거 같더라는 얘기

를 많이 했어요(2008년 6월 18일 면담 내용).

상담실이 특별히 들어가기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약간 좀 그런게, 누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 잘 들려요. 애들은 무슨 상담을 받는 게 공개상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2008년 6월 18일 성실이 학생 면담 내용).

한편, 열정이 학생의 경우 정규교사들이 전공지식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에게서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귀중한 조언을 받는다고 했다. 반면에 조리와 관련하여 사범대를 졸업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교사들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인들이 보다 손쉽게 전문계 고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시고,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지만 정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리에 관해서 거의 모르는 선생님들이 몇 년 공부하고 와서 조리 가르치는 것이 정말 더 싫어요. 이걸 정말 저희들 생각인데, 그렇게 오셔서 하는 분들한테 정식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2008년 6월 10일 열정이 학생 면담 내용).

4.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전문계 고교 학생 두 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였다. 두 학생의 내러티브는 진로흥미의 발견, 진로개발 과정, 전문계 고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의 도움의 측면에서 구성하였

으며, 학생의 진로개발 경험을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가지 주제는 진로개발에서의 가족의 지지 및 영향력, 지속적인 진로관련 포트폴리오 작성의 필요성,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교육에의 불만족으로,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개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전문계 고교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족 및 가정환경을 들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가족 및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한다. 즉 가족 및 가정환경이 개인의 진로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인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인 성실이 학생, 열정이 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보다는 형제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형제들의 경우 부모님보다는 의사소통이 편하면서도 어느 정도 물질적·정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실이 학생의 경우 중학교시기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진로 탐색장 작성 경험이 자신의 진로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진로탐색장이란 일종의 진로포트폴리오로 처음에는 선생님의 강요로 억지로 작성하였지만 점차 포트폴리오 작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작성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포트폴리오의 효과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열정이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포트폴리오에 필요성을 느껴 작성을 하고 있지만, 1~2학년 때부터 진로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진로포트폴리오에 대해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사들을 위한 진로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에도 진로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진로지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실이 학생을 비롯해서 성실이의 같은 반 학생들이 우연한 기회에 직업사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전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펴보았지만, 실망스럽게도 너무 제한적인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정보가 실려 있었다고 하였다. 진로정보의 경우, 최신의 내용이어야 하며, 신뢰롭고 정확할 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정확하며 최신의 진로정보의 제공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각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상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진로상담부를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상담부에서 전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로상담부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직업정보, 학교정보 등의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담임교사들이 학급의 학생에게 진로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등 진로상담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야 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pp. 69-93.
- 염지숙(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pp. 110-140.
- 이상준 · 김나라 · 윤여인 · 고재성(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저자 약력

- 임 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박민정
 - 서울대학교 BK 사업단 사무국장
- 정운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정연순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서승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연구원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발행연월일 | 2008년 11월 29일 인쇄
2008년 11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권 대 봉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 (주)범신사 (02)720-9786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가 8,000원 >